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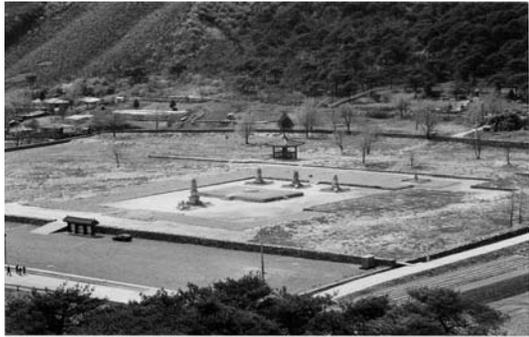
제3장 불교유적

1. 성주사지와 유물 · 유적

1) 성주사지(聖住寺址)

- 지정번호 : 사적 제 307호 (1984년 8월 8일)
- 위 치 :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2

성주사(聖住寺)는 백제 법왕 때인 서기 615년 창건한 오합사(烏合寺 또는 烏舍寺, 烏舍寺라고도 함)가 그 전신이다. 오합사는 백제가 전쟁에서 이긴 뒤 전사한 병사의 원혼들을 위해, 그들이 불계(佛界)에 오르기를 기원하는 원찰(願刹)이고 호국사찰이었다. 660년 백제멸망 후 폐허가 되었다가 신라 문성왕 때 당에 가서 선종을 공부하고 돌아온 무염대사(無染大師)가 주석하면서 중창되었다. 무염대사 주석 후 성주사(聖住寺)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신라 하대에 유행하던 선종의 문풍을 진작시켜 9산선문 중 하나인 성주산문의 중심지가 되었다.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성주산문의 중심지로 이름을 날리던 성주사는 조선 태종 7년(1407)에는 자은종(慈恩宗) 사찰로 정리되었다가 임진왜란 이후 쇠퇴하다가 조선후기에 폐사되었다.



성주사지

현재는 8,800여 평의 빈터만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국보 8호인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와 5층석탑, 중앙·동·서 3층석탑, 석등, 불대좌(佛臺座), 석불입상, 부도과재(浮屠破材) 등의 유물이 있다.

신라 하대 불교계의 새로운 동향은 선종의 유행이었다. 선종은 통일 전후에 전래되었으나 교종의 위세에 눌려 그리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라 말기에 귀족 사회의 분열이 심화되고, 지방 세력들이 일어나는 변화에 발맞추어 크게 기반을 넓혔다.

경전의 이해를 통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교종과는 달리 선종은 문자를 뛰어넘어 구체적인 실천수행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속에 내재된 깨달음을 얻는다는 실천적 성격이 강하였다. 즉 선종은 소의경전(所依經典)에 의하여 종파를 구별하는 교종과는 달리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주장하고, 복잡한 교리를 떠나 심성을 도야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선종에서 주장하는 견성오도(見性悟道)는 불립문자의 다른 일면이었다. 견성오도의 방법은 선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깨달을 수 있고, 크게 깨우치면 산문의 개조(開祖)가 되어 독자적인 문파(門派)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교종 체제를 뒤엎는 혁신적인 것이었고, 당시 불교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개혁요구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천여 년 동안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며 우리나라 불교 발전과 불교계를 대표해 온 명찰(名刹)이었던 성주사는 신라말 경순왕이 찾기도 하였다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3천 명의 승려가 있었다고 하는데, 식사용 쌀을 씻은 물(뜨물)이 하천을 타고 4km 떨어진 개화리까지 흘러내려 이곳으로 진입하던 왜군들이 이 광경을 보고 군량미 씻은 물이 저렇게 흐르는 것을 보아 이 계곡에는 틀림없이 많은 군대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일단 후퇴를 한 후 첩자를 보내 알아보니 승려들뿐이라 급습하여 절을 불태워 버렸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다.

2) 성주사지의 현재

8,800여 평의 사지는 장방형으로 석축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서가 200m, 남북이 142m이며, 북쪽의 성주산을 등지고 남쪽을 향하고 있다. 앞에는 웅천천 상류인 냇물이 흐른다. 사지의 전체 형상은 장방형이며, 사지의 중심부가 상당부분 동으로 치우쳐 있다. 남쪽 담장의 동쪽 끝에서 68m 지점에 문이 나 있으며, 여기서 남북으로 일직선상 14.4m 지점에 중문지(中門址)가 있으며, 중문지에서 10m 지점에 석등이 있고, 14m 거리에 5층석탑이 있으며 이 석탑에서 18m 거리에 금당지가 있으며, 금당지에서 16.8m 거리에 3층석탑 3기가 나란히 있다. 이 석탑에서 34.8m 지점에 초석렬(礎石列)이 있고 그 동쪽으로 석불입상 1구가 있다.

현재 건물지는 중문지를 들어서서 5층탑 뒤에 절의 중심인 금당지가 있고, 그 오른쪽에 삼천불전지, 금당지 뒤에 강당지가 확인된다.

동서가 길고 남북이 짧은 장방형의 대지에, 가람 배치는 남북을 축으로 하여 중문-탑-금당순으로 배치한 일탑일금당(一塔一金堂) 양식을 취하고 있다. 백제 때의 일탑일금당

으로 지어진 절에 신라 때 중창을 하며 서쪽에 건물을 지으면서 절의 규모가 커진 것이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절의 중심부 옆에 새로운 건물터가 있는 양식은 장흥 보림사 등 당시 9산선문 절에서도 보여지는 특징이다.

절 중심부의 서쪽은 아직 발굴을 하지 않아 건물지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성주사사적기」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三千佛殿 9칸, 海莊殿 9칸, 大雄寶殿 5칸, 定光如來殿 5칸, 內僧堂 9칸, 極樂殿 3칸, 文殊殿 3칸, 觀音殿 3칸, 普賢殿 5칸, 遮眼堂 3칸, 十王殿 7칸, 梅檀林 9칸, 香積殿 10칸, 住室 7칸, 井閣 3칸, 鐘閣, 東行廊 15칸, 西行廊 15칸, 동서남북문 각 3칸, 종각 2층, 中行廊 3백칸 外行廊 5백칸 水閣 7칸 庫舍 50칸이 있다고 하여 성주사의 위용을 짐작할 수 있다.

3) 성주사지의 조사·발굴

성주사는 조선후기 범등이 끊어진 후 절터가 밭과 집터로 변하고 작은 암자가 겨우 명맥을 이어오기도 하였으나 오랫동안 무방비상태로 파헤쳐졌고, 최근에는 도굴도 진행된 상태였다. 또 탄광이 발달하면서 주변에 탄광촌이 형성되었고, 따라서 광부들의 주택도 들어서면서 사역이 상당히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

성주사지는 폐사 이후 방치되어 오다가 1968년과 1972년 동국대학교에서 실측·발굴 조사를 했고, 그간에 부여박물관 동국대박물관을 비롯하여 관심있는 학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부분적으로나마 그 규모나 실체가 드러났다. 동국대가 실시한 발굴은 삼천불 전지와 금당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성주사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미흡하였다. 다만 소조불이 많이 나온 건물지를 삼천불전지로 추정된 것은 하나의 소득이었으나 토층에서 백제시대의 유구를 확인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보령시에서는 1980년대부터 땅을 연차적으로 매입하였고, 1991년에 충남대학교에 발굴을 의뢰하여 6차에 걸친 발굴 조사를 하였다. 그리하여 백제시대의 토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성주사사적기」에 나오는 오합사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통일 신라 시대의 가람배치 양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후의 가람배치를 체계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트렌치 발굴로 인하여 가람배치의 변화만 확인하고 건물배치의 변화는 확인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발굴을 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전면발굴을 통한 선종사찰의 전모를 밝혀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중문지〉

남북으로 놓여 있는 두 장대석렬(長大石列)은 거리가 10m이고 동쪽과 서쪽에 각 1개씩의 초석이 있어 동서 기단의 거리가 12.4m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추정된다.

〈금당지〉

기단(基壇)의 규모가 동서 19.6m, 남북 14.4m이며 갑석(甲石)이 없는 현재의 기단 높이는 약 1.2m이다. 여기에 세워진 건물의 평면은 초석의 배열로 보아 정면5칸, 측면 4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금당의 한가운데 자리한 불대좌는 하대(下臺)만 남아있는데, 복련부(覆蓮部)는 4조각으로 갈라져 10cm 정도의 틈이 벌어져있다. 16엽의 연화문으로 장식한 장방형의 대좌로, 이 위에 놓인 불상은 철제불상이었다 한다. 일제시기 초까지도 있었다 한다.

〈三千佛殿址〉

금당지 동쪽편에 남북으로 길게 정면 9칸 측면 4칸의 건물지가 있는데, 이곳이 1974년 동국대박물관에서 발굴한 바 있는 삼천불전지이다. 삼천불이란 과거 현재 미래의 ‘三劫三千佛’인데, 글자 그대로 삼천불상을 한 집에 안치한 것으로, 각지의 사찰에서 천불전은 쉽게 볼 수 있으나 삼천불전은 거의 찾기 어렵다. 동국대박물관의 조사로 불두(佛頭) 10점, 불신(佛身) 4점, 완전복원이 가능한 불상 1점을 수습하였고, 복장사리구(腹藏舍利具) 23점, 연화문와당 등 숫막새기와 당초문와당 등 암막새기와 등이 수습되었다. 불상은 모두 흙으로 만든 소조(塑造) 불상으로 파손이 심했다.

〈회랑지〉

금당지 서쪽으로 10m 거리에 남북으로 긴 건물지가 있으며, 거기서 2.7m 거리에 이 건물지의 초석렬이 있다. 이곳이 서회랑지일 것으로 추측되며 동회랑지는 유구가 보이지 않는다.

〈강당지〉

금당지 뒤의 중앙3층석탑에서 약 8m 뒤에 길게 만들어진 건물지가 있는데 별다른 유구는 없고 1개의 장대석과 4개의 초석이 있는 바, 가람배치상 이곳이 강당지일 것으로 보인다.

4)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 지정번호 : 국보 제8호 (1962년 12월 20일)
- 위 치 :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80-2

이 비석은 보령지역 최대의 문화유산이다. 성주사에 주석하면서 신라하대 선문9산 중 성주산문을 크게 일으킨 무염대사(無染大師)를 기리기 위하여 그의 행적을 당시 최고의 학자인 최치원(崔致遠)이 왕명으로 지은 비석이며, 서기 890년에 세워졌다. 무염대사 입적 후 진성여왕은 무염대사에게 대낭혜화상(大朗慧和尚)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리고, 무염대사의 유골을 모신 부도를 백월보광탑(白月葆光塔)이라 이름하고, 최치원으로 하여금 무염대사의 행적을 칭송하는 글을 짓도록 하여 세운 비석이기 때문에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라고 한다.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이 비석은 5,120여 자에 달하는 긴 비문으로 현존 우리나라 비석 중 가장 많은 글자 수이며, 최치원의 현란한 사륙변려체의 문장을 최인연(崔仁漑, 고려시대 최언위)이 해서체로 쓴 것으로, 무염대사의 성장과정, 중국에 유학하여 공부하는 과정, 귀국하여 성주사를 일으키고 불법을 전하는 과정 등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역사 연구에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된다.

무염대사(800~888)는 신라 태종 무열왕의 8세손으로 13세에 출가하였고, 이후 당에 건너가 20여 년 동안 선종불교를 공부하고 문성왕 7년(845) 귀국하여 성주사에 주석하여 선종을 진작시켜 성주산문 개조(開祖)가 된 인물이다.

이 비석은 최치원의 사산비명(四山碑銘)중의 하나로 유명한데, 사산비명이란 최치원이 지은 비문 가운데 신라의 불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가치가 높은 네 편을 뽑아 한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다. 곧 송암산성주사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명(崇巖山聖住寺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銘), 지리산쌍계사진감선사비명(智異山雙溪寺眞鑑禪師碑銘), 초월산대송복사비명(初月山大崇福寺碑銘), 회양산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명(曦陽山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銘)을 말한다.

성주사가 있는 남포지방의 오석(烏石)은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석질이 좋기로 유명하며, 지금도 그 명성이 여전하다. 남포오석을 재료로 한 이 비석은 1천여 년의 갖은 풍상을 몸으로 견뎌낸 채 고스란히 남아 있어 세월의 거리를 미처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보령 남포오석의 품질을 상징하는 이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는 최치원의 명문장과 완벽한 보존상태, 나말여초의 뛰어난 조각술과 크기 등이 어우러져 그 시대의 많은 고승탑비들 중에서 쌍계사의 진감선사비와 함께 2개만이 국보로 지정되었다.

비석의 높이는 480cm이고, 폭은 150cm, 두께는 43cm로 신라말의 비석으로는 최대이다. 귀부(龜趺) 및 이수(螭首)는 오석으로 되어 있으며, 비신도 오석으로 되어 있고, 글씨는 자경(字經) 1.5cm의 해서로 되어 있다. 비좌는 앞뒤 길이가 310cm, 좌우가 260cm의 지대석 위에 대좌가 놓여 있고, 조각은 크고 웅대하게 되어 있다. 비좌의 귀두(龜頭)와 몸체의 좌측 부분이 깨어져 나갔으나 그 형체를 알아보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귀두 중앙의 정수리에 나선형으로 구부러진 뿔이 있고, 뒤로 찌진 눈에 눈썹이 휘말려 있으며, 큰 입으로는 불을 내뿜는 형상이 양각되어 있다.

머리를 앞으로 치켜들어 드러난 목덜미에는 커다란 비늘무늬가 있으며, 목뒤에서 양 옆으로 내려가는 귀갑(龜甲)의 가장자리에는 강렬한 비늘무늬가 새겨져 있고 그 위로 상향의 화염문(火焰文)이 귀갑위로 양각되어 있다. 윗면에는 폭이 넓은 6각의 귀갑문이 새겨져 있으며 중앙의 정부(頂部)에서 꼬리부분까지 넓은 운문대(雲文帶)가 연결되어 있다. 꼬리는 귀갑 위로 꼬여 있다. 귀갑 중앙으로 큼직하고 볼륨이 큰 구름무늬 위에 비좌를 만들었는데, 비좌의 측면에는 1개, 앞뒤면에는 2개씩의 안상(眼象)을 새기고 그 안에 연화문 같은 식물의 줄기와 잎을 새겼다.

비신은 네 군데의 모서리를 죽이고 앞면에만 비문을 새겼는데, 위쪽 모서리는 화문형(花文形)으로 둥글게 깎았다. 이수는 각(角)·호(弧)·각(角)형의 3단 받침을 만들고 그 주변에는 복판(複瓣)의 앙련(仰蓮)을 새겼는데 꽃잎 안에는 당초문 같은 식물 잎 모양을 양각했다.

그 위로 네 주위에는 운룡문(雲龍文)으로 장식했으며, 전면중앙에는 1개의 용머리가 잎을 향해 새겨져 있고, 그 밑에는 제액(題額)이 있으나 글씨는 보이지 않는다. 그 양옆과 뒷면에는 각 2마리의 용머리가 바깥쪽을 보며 서 있다.

이 비석은 최근에 와서 풍화에 의한 훼손을 방지하게 위해 비각을 세워 보존하고 있다.

5)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비문

有唐新羅國故兩朝國師教諭大朗慧和尚白月葆光之塔碑銘 并序

淮南入本國送¹⁾國信詔書等使 前東面都統巡官承務郎侍御史內供奉賜紫金魚袋 臣崔致遠奉教撰

帝唐, 揃亂以武功, 易元以文德之年, 暢月月缺之七日²⁾, 日薰咸池時, 海東兩朝國師禪和尚, 盥浴已, 跏坐示滅³⁾. 國中人如喪左右目, 矧門下諸弟子乎?

嗚呼! 應東身⁴⁾者八十九春, 服西戒⁵⁾者六十五夏. 去世三日, 倚繩座儼然面如生. 門人詢父等號奉遺體, 假殮⁶⁾禪室中. 上聞之震悼, 使駛⁷⁾弔以書, 賻以穀, 所以資淨供而贍玄福. 越二年, 攻石封層冢, 聲聞玉京⁸⁾.

菩薩戒弟子武州都督蘇判鑑, 執事侍郎寬柔, 貝江都護咸雄, 全州別駕英雄, 皆王孫也. 維城⁹⁾輔君德, 險道賴師恩, 何必出家然後入室? 遂與門人昭玄大德釋¹⁰⁾通賢, 四天王寺上座釋慎符, 議曰: 『師云亡, 君爲慟. 奈何吾儕忍灰心木舌¹¹⁾缺緣飾在參之義¹²⁾乎?』 迺白黑¹³⁾相應, 請

1) 送: 바침. 『儀禮』 「聘禮」 “賓再拜稽首送幣”

2) 月缺之七日: 달이 기우는 16일부터 7일 뒤인 22일이라는 설과, 달이 기울기 시작한 뒤 바로 오는 17일(『海雲碑銘註』 所引 『大朗慧和尚年譜』), 또는 27일로 보는 설(『祖堂集』 권17, 聖住無染國師條)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衆論에 따라 22일로 보기로 한다.

3) 示滅: 佛家語. 스님의 죽음을 말함. ‘示寂’이라고도 한다.

4) 應東身: 東國에 몸을 나타냄. ‘應身’이란 三身の 하나로, 중생을 교화하려는 부처가 중생과 같은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른다.

5) 西戒: 불교(西敎)의 계율.

6) 假殮(가사): 임시로 靈柩를 모셔둠. 殮는 ‘殯’의 뜻.

7) 駛(사): 파발꾼.

8) 玉京: 道家에서 전설상으로 내려오는 天上의 仙闕로 三十二帝의 도읍. 여기서는 신라의 서울 慶州를 가리킨다. 일부 寫本에서는 ‘王京’으로 고쳐 보기도 하나, 榻本에는 분명히 ‘玉京’으로 되어 있다.

9) 維城: 죽 잇달아 있는 城처럼 호위함. 太子 또는 왕족의 비유. 『詩經』, 大雅, 「板」 “宗子維城.”

10) 釋: 부처님의 姓. 釋迦의 약칭.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뒤 초기에는 승려들이 대개 ‘竺’ 또는 師僧의 姓을 따랐는데, 東晉 때 道安이 “불제자들은 모두 석가의 성을 따라야 된다”고 한 뒤부터 승려의 성으로 사용하여 왔다. 『梁高僧傳』 권5, 「釋道安傳」 참조.

11) 木舌: 입다물고 말이 없음을 비유한 말. 木鐸. 『後漢書』 권61, 「黃瓊傳」 “忠臣懼死而杜口, 萬夫怖禍而木舌.”

12) 在參之義: 君師·父를 극진히 섬기고 그 은혜를 갚는 것. 在三之節.

13) 白黑: 白衣와 緇衣, 즉 俗人과 僧侶를 이른다.

贈諡暨銘塔, 教曰可, 旋命王孫夏官二卿¹⁴⁾禹珪, 召桂苑¹⁵⁾行人¹⁶⁾侍御史崔致遠. 至蓬萊宮, 因得竝¹⁷⁾琪樹¹⁸⁾上瑤墀, 踞埃命珠箔外. 上曰: 『故聖住大師, 眞一佛出世. 昔文考¹⁹⁾康王咸師事, 福國家爲日久. 余始克纘承, 願繼餘先志, 而天不憊遺²⁰⁾, 益用悼厥心. 余以有大行者授大名, 故追諡曰大朗慧, 塔曰白月葆光. 乃²¹⁾嘗西宦, 絲染錦歸²²⁾. 顧文考選國子²³⁾命學之, 康王視國士禮待之, 若²⁴⁾宜銘國師以報之!』 謝曰: 『主臣²⁵⁾! 殿下恕粟饒浮稅²⁶⁾, 念²⁷⁾桂飽餘馨²⁸⁾, 俾報德以文, 固多²⁹⁾天幸. 第大師於有爲澆世, 演無爲秘宗, 小臣以有限麼才, 紀無限景行, 弱轅載重, 短綆汲深³⁰⁾. 其或石有異言³¹⁾, 龜無善顧³²⁾; 決叵使山輝川媚³³⁾, 反羸³⁴⁾得林慙澗愧³⁵⁾. 請筆路斯避』 上

14) 夏官二卿: 夏官은 周禮 六官 가운데 하나로 軍政兵馬를 관장하였으며, 大司馬가 그 長이었다. 二卿(亞卿)은 卿 다음가는 벼슬로 오늘날의 次官을 이른다. 따라서 신라의 경우 兵部侍郎에 해당된다.

15) 桂苑: 달나라에 있는 계수나무 동산. 芳香이 진동한다고 하여, 대개 학자나 문인이 모인 곳을 이르며, ‘文苑’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중국 조정을 지칭하고 있다. 『文選』 권13, 謝莊, 「月賦」 “洒清蘭路, 肅桂苑.”; 崔致遠, 『桂苑筆耕集』 권19, 「謝周繁秀才以小山集見示書」 “鴻儔鶴侶, 鳳翥鸞翔, 集桂苑之名都, 占蓮池之雅望.”

16) 行人: 使者의 통칭.

17) 竝(방): 의지함.

18) 琪樹: 옥같이 아름다운 나무. 轉하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의 비유. 『文選』 권11, 孫綽, 「遊天台山賦」 “建木滅景於千尋, 琪樹璀璨而垂珠.”

19) 文考: 周文王이 세상을 떠난 뒤 무왕이 先考를 일컫던 말. 轉하여 亡父의 존칭으로 사용된다.

20) 憊遺(은유): 억지로 남겨둠. 『詩經』, 小雅, 「十月之交」 “不憊遺一老.”

21) 乃: 너(汝).

22) 絲染錦歸: 벼슬에 오르거나 어떤 일에 성공하여 영광스럽게 귀향하는 것을 이르는 말. ‘錦歸畫繡’라고도 한다. ‘絲染’은 織物 위에 화려하게 그린 그림(畫繡)을 말한다. 『書言故事』, 「問歸類」 “榮貴還鄉曰, 錦歸畫繡.”; 『晝書』 권91, 「虞喜傳」 “往雖微命而不降屈, 豈來絲難染, 而搜引禮簡乎.”

23) 國子: 公卿大夫의 子弟. 『周禮』, 地官, 「師氏」 “以三德教國子”; 同注 “國子, 公卿大夫之子弟”

【참고】 丁若鏞, 『雅言覺非』 권1, 國子條에서는 國子를 太學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4) 若: 너(汝).

25) 主臣: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때 쓰는 發語辭로 ‘황공하다’는 뜻. 『史記』 권56, 「陳丞相世家」 “平謝曰, 主臣! 陛下不知其篤下, 使待罪宰相, ……”

26) 粟饒浮稅(속요부비): 곡식에 빈 쪽정이가 많음. 실속이 없음의 비유.

27) 念: 답본에 없는 글자이다. 그러나 앞의 ‘恕粟饒浮稅’와 대귀를 이루려면 반드시 ‘桂飽餘馨’이 되어야 할 것인데, 『崔文昌侯全集』에 실린 ‘무염국사비명’에서는 이 ‘念’자를 덧붙이고 있다. 이에 따른다.

28) 桂飽餘馨: 계수나무에 餘香이 풍부하다는 말. 文辭가 화려함의 비유.

29) 多: 마침. 우연히.

30) 短綆汲深: 짧은 두레박 줄로 깊은 우물의 물을 길는다는 말. 재주가 적어 큰 일을 감당해 내기 어려

曰：『好讓也，蓋吾國風；善則善已。然苟不能是，惡用黃金榜³⁶⁾爲？爾勉之！』遽出書一編，大如椽者，俾中涓³⁷⁾授受，乃門弟子所獻狀也。

復惟之，西學也，彼此俱爲之，而爲師者何人，爲役者何人？豈心學者高，口學者勞耶？故古之君子慎所學。抑心學者立德³⁸⁾，口學者立言；則彼德也或憑言而可稱，是言也或倚惠而不朽；可稱則心能遠示乎來者，不朽則口亦無慙乎昔人。爲可爲於可爲之時³⁹⁾，復焉敢膠讓乎篆刻⁴⁰⁾？

始繹如椽狀，則見大師西遊東返之歲年，稟戒悟禪之因緣，公卿守宰之歸仰，像殿影堂之開闢，故翰林郎金立之所撰聖住寺碑，叙之詳矣。爲佛爲孫之德化，爲君爲師之聲價，鎮俗降魔之威力，鵬顯⁴¹⁾鶴歸⁴²⁾之動息⁴³⁾，贈太傅獻康大王親製深妙寺碑，錄之備矣。顧⁴⁴⁾腐儒之今作也，止宜標我師就般涅槃⁴⁵⁾之期，與吾君崇宰堵婆⁴⁶⁾之號而已。

움의 비유. 『莊子』 「至樂」 “褚小者不可以懷大，短絆者不可以汲深.”

- 31) 石有異言 : 춘추시대에 晉侯가 농사철에 宮室을 화려하게 지으려 하자, 돌이 魏榆에게 民弊를 짓지 말라는 내용의 말을 했다는 故事. 『春秋左氏傳』 昭公 8년조 참조.
- 32) 龜顧 : 晉나라 때 孔愉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바구니에 담겨 있는 거북을 보고, 이를 사서 물에 놓아주었는데, 그 뒤 公유가 餘不亭侯에 봉해졌을 때 侯印에 새긴 거북이 좌로 돌아보며 前恩에 깊이 감사하였다는 ‘印龜左顧’의 故事. 『晉書』 권78, 「孔愉傳」 참조.
- 33) 山輝川媚 : 돌이 옥을 감추고 있으면 산이 빛나고, 물이 구슬을 품고 있으면 시내가 아름답다는 말. 轉하여 학덕을 갖춘 이는 저절로 밖에 드러나 문장을 이룬다는 의미. 『文選』 권17, 陸機, 「文賦」 “石韞玉而山暉, 水懷珠而川媚.”
- 34) 羸(영) : 받음. 『春秋左氏傳』 襄公 31년 “我實不德, 而以隸人之垣, 以羸諸侯” ; 同注 “羸, 受也”
- 35) 林慙澗愧 : 節操가 없는 사람이 隱士로 위장하고 산 속에 있으면, 숲이나 시내가 모두 수치로 여긴다는 말. 여기서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 있는 척 가장하면 숲이나 澗水도 부끄러워 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文選』 권43, 孔稚珪, 「北山移文」 “其林慙無盡, 澗愧不歇.”
- 36) 黃金榜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여 내거는 牌. 金榜.
- 37) 中涓 : 書謁과 王命의 出納을 맡은 侍從職. 『史記』 권103, 「萬石君傳」 “高祖召其姊爲美人, 以奮爲中涓, 受書謁” ; 同注 “如淳云, 中涓, 主通書謁出入命也.”
- 38) 立德 : 후세에 무궁하게 은덕을 끼치는 것. 三不朽 가운데 最上. 『春秋左氏傳』 襄公 24년 “大上立德, 其次立功, 其次立言, 雖久不廢, 此之謂不朽.”
- 39) 爲可爲於可爲之時 : 할 만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한다는 뜻. 『漢書』 권57(下), 「揚雄傳」 “爲可爲於可爲之時則從, 爲不可爲於不可爲之時則凶.”
- 40) 篆刻 : 篆字를 새김. 轉하여 文句의 겉치레에만 힘쓰고 실질이 없는 문장을 이른다. 雕蟲篆刻.
- 41) 鵬顯 : 『莊子』 「逍遙遊」에 나오는 봉새와 같이 海路 수천리를 훨훨 날아 西國에 몸을 나타냈다는 말.
- 42) 鶴歸 : 중국 漢나라 때 丁令威가 靈虛山에서 仙術을 배우고 鶴으로 化하여 遼東으로 돌아왔다는 ‘丁令威化鶴’ 또는 ‘鶴歸遼海’의 故事. 『搜神後記』 참조.
- 43) 動息 : 出處, 進退를 이르는 말.
- 44) 顧 : 그러므로(故).

口將手議役⁴⁷⁾, 將自適其適⁴⁸⁾; 這有上足苾芻⁴⁹⁾, 來趣⁵⁰⁾ 齏臼⁵¹⁾, 語及斯意; 則曰: 『立之碑, 立之久矣. 尙闕數十年遺美, 太傅王神筆所紀, 蓋顯示殊遇云爾. 吾子口嚼古賢書, 面飲今君命, 耳飫國師行, 目醉門生狀. ⁵²⁾宜廣記而備言之, 殆⁵³⁾ 貽厥可畏. 俾原始要終⁵⁴⁾. 脫⁵⁵⁾ 西笑⁵⁶⁾ 者, 或袖之, 脫西人⁵⁷⁾ 笑則幸甚, 吾敢求益? 子無憚煩!』 狂奴⁵⁸⁾ 態餘, 率爾應曰: 『僕編苦者, 師買采⁵⁹⁾ 乎?』 遂絆猿心⁶⁰⁾, 強搖兎翰⁶¹⁾, 憶得西漢書留侯傳. 尻云: 『良所與上, 從容言天下事甚衆, 非天下所以存亡, 故不著』⁶²⁾ 則大師時順⁶³⁾ 間事蹟, 瑩瑩者星繁, 非所以警後學, 亦不書. 自許窺一

45) 般涅槃: 범어 ‘Parnirvana’의 音譯. 生死를 초월한 涅槃의 경지에 드는 것.

46) 窣堵婆(술도파): 범어 ‘Stupa’의 音譯. 塔을 말한다. 塔婆. 浮圖. 卒都婆.

47) 口將手議役: 梵海 覺岸은 『四山碑註』에서 이 부분을 “釋曰 口가 장차 손과 역을 의논하야”라고 하였다. 한글 주해가 독특하다.

48) 將自適其適: 梵海 覺岸은 『四山碑註』에서 이 부분을 “釋曰 장차 제가 그 마땅한 말로 나아가더니”라고 하였다.

49) 苾芻: 범어 ‘Bhiksu’의 音譯. 比丘를 말한다. 본래 서역의 풀 이름인데, 柔軟하여 바람이 부는대로 나부끼므로, 출가하여 아무 일에도 구애받지 않는 比丘를 비유하여 일컫는다.

50) 趣(촉): 재촉함.

51) 齏臼(제구): ‘辭’의 破字. 글을 말한다. 『世說新語』 권4, 「捷悟」 “齏臼受辛也, 于字爲辭.”

52) 宜廣記而備言之 ~ 俾原始要終: 杜預가 한 말. 『文選』 권45, 杜預, 「春秋左氏傳序」 “身爲國史, 躬覽載籍, 必廣記而備言之, 其文緩, 其旨遠, 將令學者, 原始要終.”

53) 殆: 반드시. 『呂氏春秋』 「自知」 “座殆尙在於門.”; 同注 “殆, 猶必也.”

54) 原始要終: 어떠한 일의 시초를 캐내고 다시 그 일의 종말을 살핀다는 뜻. 『周易』 「繫辭(上)」에 나오는 말. 「계사(하)」에는 ‘原始反終’이란 말도 보인다.

55) 脫: 만약(若).

56) 西笑: 중국 關東 지방의 속담. 사모하는 것을 이른다. 『桓譚新論』 「祛蔽」 “人間長安樂, 則出門向西而笑.”

57) 西人: 西國(中國) 사람.

58) 狂奴: 중국 後漢 때의 逸士인 嚴光을 가리키는 말로, ‘狂奴故態’의 故事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撰者 최치원은 嚴光의 ‘買采求益’의 故事를 인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글쓰는 스타일을 嚴光에게 비유하였다. 『後漢書』 권83, 「嚴光傳」 참조.

59) 買采: 買采求益에서 나온 말. 多寡를 計較하는 것에 대한 비유. 皇甫謐, 『高士傳』 “嚴光字子陵, 少有高名. 司徒(侯) 霸與光素舊. …… 霸使西曹屬侯子道奉書, 光不起. …… 子道求報, 光曰: 「我手不能書, 乃口授之. 使者嫌少, 可更足. 光曰: 「買采乎? 求益也?」”

60) 猿心: 散亂하여 갈팡질팡한 마음을 원숭이의 마음에 비유한 말.

61) 兎翰: 붓(筆)을 달리 이르는 말. 兎毫.

62) 良所與上 ~: 『漢書』 권40, 「張陳王周傳」에 나오는 말. 여기서 ‘箸’는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뜻한다(顏注).

班⁶⁴於班史然，於是乎管述⁶⁵曰：

光盛且實，而有暉八紘之質者，莫均乎曉日；氣和且融，而有孚⁶⁶萬物之功者，莫溥乎春風。惟俊風⁶⁷與旭日，俱東方自出也，則天鍾斯二餘慶，嶽降⁶⁸于一靈性⁶⁹，俾挺生君子國，特立梵王家者，我大師其人也。

法號無染，於圓覺祖師爲十世孫。俗姓金氏，以武烈大王爲八代祖。大父周川，品眞骨，位韓絜；高曾出入⁷⁰，皆將相戶知之。父範清，族降眞骨一等曰得難(原註：國有五品，曰聖而，曰眞骨，曰得難，言貴姓之難得。文賦云，「或求易而得難」⁷¹)，從言六頭品，數多爲貴，猶一命至九，其四五品不足言)。晚節追蹤趙文業⁷²。母華氏魂交⁷³，視脩臂天⁷⁴垂授毅花⁷⁵，因有娠，幾踰時申夢，胡道人自稱法藏，授十護⁷⁶，充胎教，過朞⁷⁷而誕。

大師阿孩(原註：方言謂兒，與華无異)時，行坐必掌合趺⁷⁸對；至與群兒戲，畫墁⁷⁹聚沙⁸⁰，必

63) 時順：제때에 태어나서 天分대로 살다가 죽음. 『莊子』「養生主」“適來，夫子時也，適去，夫子順也。”

64) 一班：一斑(하나의 얼룩점)과 같은 말. 전체가 아닌 작은 일부분.

65) 管述：管見으로 서술한다는 말.

66) 孚：기름(育).

67) 俊風：큰 바람(南風). 『大戴禮』「夏小正」“時有俊風”；同注“俊者，大也. 大風，南風也”

68) 嶽降：높고 존귀한 산이 神靈和氣를 내려 훌륭한 사람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뜻. 대개 賢輔重臣을 칭송하는 데 쓰이지만, 여기서는 훌륭한 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쓰였다. 『詩經』, 大雅, 「崧高」“崧高維嶽，駿極於天，維嶽降神，生甫及申.”

69) 靈性：신령스럽고 지혜로운 품성, 또는 그러한 품성을 지닌 사람.

70) 出入：內外의 관직을 출입하여 將帥와 宰相을 지냈다는 말. 出將入相. 『祖堂集』 권17, 「聖住無染國師」“高曾皆爲將爲相.”

71) 或求易而得難：‘혹 쉬운 것에서 구하여 문득 어렵게 여기는 것을 얻게 된다’는 뜻. 『文選』 권17, 陸機, 「文賦」；同注에서는 “或求之於易，而便得難之.”라 했다.

72) 趙文業：趙나라 文王이 칼쓰기를 좋아했다는 故事에서 나온 말로, 劍術을 지칭. 『莊子』「說劍」“趙文王喜劍，劍士夾門而客三千餘人.”

73) 魂交：잠을 잔다는 뜻. 잠을 잘 때에는 혼이 交合하고 깨었을 적에는 五官이 열린다고 한 데서 나왔다. 『莊子』「齊物論」“其寐也魂交，其覺也形開.”

74) 脩臂天：三頭와 六臂를 가진 護法天. ‘脩臂天人’이라 되어 있는 곳도 있다. 『祖堂集』 권17, 「聖住無染國師」“脩臂天人，垂授藕花.”

75) 毅花：연꽃. ‘毅’은 ‘藕’의 古字인 듯.

76) 十護：十戒. 菩薩十戒.

77) 過朞：만 1년(12개월)을 넘김. 곧 13개월 짜를 이른다.

78) 合趺：合掌趺坐의 준말. 두 손을 모으고 책상다리를 함.

79) 畫墁(획판)：벽에 금을 그음. 『孟子』「滕文公(下)」“有人於此，毀瓦畫墁”；集註“墁，牆壁之飾也. 毀瓦畫墁，言無功而有害也.”

模樣像塔，而不忍一日違膝下。九歲始鼓篋⁸¹⁾，目所覽口必誦，人稱曰：「海東神童」

跨一星終⁸²⁾，有隘九流，意入道，先白母，母念已前夢，泣曰□⁸³⁾!(原註：方言許諾)後謁父，父悔已晚悟，喜曰善! 遂零染⁸⁴⁾雪山五色石寺，口精嘗藥⁸⁵⁾，力銳補天⁸⁶⁾。有法性禪師，嘗扣楞伽門⁸⁷⁾于中夏者。大師師事數年，擲索無孑遺⁸⁸⁾，性歎曰：『迅足駸駸⁸⁹⁾，後發前至，吾於子驗之，吾快⁹⁰⁾矣。無餘勇可賈⁹¹⁾於子矣，如子者宜西也』大師曰惟⁹²⁾!

夜繩易惑⁹³⁾，空縷難分⁹⁴⁾。魚非緣木可求⁹⁵⁾，兔非守株可待⁹⁶⁾。故師所教，己所悟。互有所長。苟

80) 聚沙：모래 쌓기 놀이. 佛家에서는 兒童時期를 '聚沙之年'이라고 한다. 『法華經』「方便品」“乃至童子戲，聚沙爲佛塔，如是諸人等，皆以成佛道。”

81) 鼓篋(고협)：就學을 말함. 옛날에 학과를 시작할 때 북을 쳐서 학생들을 모이게 한 뒤, 책을 꺼내 공부하도록 한 데서 연유한다. 『禮記』「學記」“入學鼓篋，孫其業.”；同注“鼓篋，擊鼓警衆，乃發筐出所治經業也.”

82) 一星終：12년을 이름. 歲星(木星)이 한 차례 公轉을 끝내는 것을 '一終'이라 하며, 12년이 걸린다고 한다 (木星의 정확한 公轉週期는 11.861년). 『春秋左氏傳』襄公 9年 “十二年矣，是謂一終，一星終也.”

83) □(예)：'言'+兮.

84) 零染：零髮染衣의 준말. 머리를 깎고 잿빛 물을 들인 옷을 입을.

85) 嘗藥：약을 맛봄. 여기서는 經義를 해석하는 것의 비유로 쓰였음.

86) 補天：하늘의 이지러진 곳을 보충함. 옛날 女媧氏(여와씨)가 五色의 돌을 달구어 蒼天을 보충하였다는 '女媧補天'(또는 鍊石補天)의 故事, 여기서는 천연의 조화가 부족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世運을挽回하는 것을 이른다. 『淮南子』「覽冥訓」“於是女媧鍊五色石，以補蒼天.”

87) 楞伽門(중가문)：楞(楞)伽門을 이름. 『祖堂集』권17, 『聖住無染國師』에서도 '有法性禪師嘗扣楞伽門于中夏'라 하였고, 또 天頌의 『禪門寶藏錄』第25則에 인용된 『海東七代錄』에서도 “故聖住和尚，常(嘗?)扣楞伽經，知非祖宗，捨了，却入唐傳心”이라 하여 '楞伽經'과의 관련성을 말한 바 있다(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상권, 104쪽 참조).

88) 無孑遺：조금도 남거둠이 없음. 『詩經』, 大雅, 「雲漢」“周餘黎民，靡有孑遺.”

89) 駸駸：달리는 모양. 『詩經』, 小雅, 「四牡」“載馳驅駸駸.”

90) 快：만족함. '愜'과 同字.

91) 餘勇可賈(여용가고)：남은 용기를 남에게 팔만한. 『春秋左氏傳』成公 2年 “齊高固曰，欲勇者，賈余餘勇.”；同注“賈，賣也. 言己勇有餘，欲賣之.”

92) 惟：唯와 同字. '예'하고 대답하는 말. '諾'보다는 공손한 말이다. 『禮記』「曲禮(上)」“父召無諾，先生召無諾，唯而起.”

93) 夜繩易惑：밤중에 새끼줄은 뱀으로 속기 쉽다는 말. 夜繩은 小乘法을 비유한 것.

94) 空縷難分：허공에 뜬 베울(布縷)은 분간하기 어렵다는 말. 空縷는 大乘法을 비유한 것. 『梁高僧傳』권2, 「鳩摩羅什傳」“什之師盤頭達多，師謂什曰：「汝於大乘，見何異相而欲尚之？」什曰：「大乘深淨明，有法皆空，小乘偏局，多滯名相，師曰：「汝說一切皆空，甚可畏也. 安捨有法，而愛空乎? 如昔狂人令續師，續綿極令細好，續師加意，細若微塵，狂人猶恨其麤，續師大怒，乃指空示曰：「此是細縷，狂人曰：「何以不見?’ 師曰：「此縷極細，我之良匠，猶且不見，況他人耶?’ 狂人大喜. 汝之空法，亦由此也.”

95) 魚非緣木可求：물고기는 나무에 올라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님. 緣木은 '緣木求魚'의 故事에서 나온 말. 『孟子』「梁惠王(上)」“以若所爲，求若所欲，猶緣木而求魚也.”

珠火⁹⁷⁾斯來, 則蚌燧可棄. 凡志於道者, 何常師⁹⁸⁾之有?

尋逖去, 問驃訶健拏⁹⁹⁾于浮石山釋燈大德, 日敵三十夫¹⁰⁰⁾, 藍茜沮本色¹⁰¹⁾. 顧坳盃之譬¹⁰²⁾, 曰: 『東面而望, 不見西墻. 彼岸不遙, 何必懷土?』 遽出山竝¹⁰³⁾海, 視西泛之緣. 會國使歸瑞節¹⁰⁴⁾象魏¹⁰⁵⁾下, 侷足而西, 及大洋中, 風濤欬顛怒, 巨艫壞, 人不可復振. 大師與心友道亮, 跨隻板, 恣¹⁰⁶⁾業風. 通星¹⁰⁷⁾半月餘, 飄至劔山島. 膝行之碕上¹⁰⁸⁾, 悵然甚久曰: 『魚腹中幸得脫身, 龍頷下¹⁰⁹⁾庶幾攬手. 我心匪石¹¹⁰⁾, 其退轉乎?』

泊長慶初, 朝正¹¹¹⁾王子昕, 艫舟¹¹²⁾唐恩浦. 請寓載, 許焉. 既達之罟山麓, 顧先難後易, 土揖海

96) 兔非守株而可待: 도끼는 그루터기만 지킨다고 해서 기대되는 것이 아님. 守株는 '守株待兔'의 故事에서 나온 것으로, 成規만을 墨守하여 權變을 모르거나, 혹은 요행을 바라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韓非子』 권19, 「五蠹」 참조.

97) 珠火: 조개(蚌)에서 나오는 구슬과 부싯돌(燧)에서 나오는 불. 師資關係를 비유한 말.

98) 常師: 일정한 스승. 『論語』 「子張」 “夫子焉不學, 而亦何常師之有.”

99) 驃訶健拏(표하건나): 梵語로 '華嚴'을 의미하는 말. 驃訶(Vyuha)는 '嚴飾', 健拏(Ganda)는 '雜華'의 뜻이다. 여러 가지 雜華로 꾸며 장엄하다는 의미이니, 여기서 꽃은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수행을 비유한 것이며, 장엄은 그 결과로서 이루어진 부처님을 아름다운 여러 꽃으로 장식한다는 말이다.

100) 日敵三十夫: 하루에 서른 사람의 목을 해냈다는 佛陀跋陀羅(覺賢, 359~429)의 故事. 『梁高僧傳』 권2, 「佛陀跋陀羅傳」 “覺賢, 本姓釋氏, 迦維羅衛人甘露飯王之苗裔也. …… 度爲沙彌. 至年十七, 與同學數人, 俱以習誦爲業. 衆皆一月, 賢一日誦畢. 其師歎曰, 賢一日敵三十夫也.”

101) 藍茜沮本色: 쪽빛과 쪽두서니빛이 제 빛깔을 잃음. 곧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난 것의 비유. 『荀子』 「勸學」 “青取之於藍, 而青於藍.”; 『文心雕龍』 「通變」 “夫青生於藍, 絳生於蒨, 雖踰本色, 不能復化.”

102) 坳盃之譬: 坳堂과 盃水の 비유. 『莊子』에 이른바, “잔의 물을 堂 가운데 우묵 패인 곳에 부으면 거자는 배가 되어 뜨지만, 거기에 잔을 놓으면 땅에 닿고 마니, 그것은 곧 배는 큰데 물이 얇기 때문이다”고 한 말. 『莊子』 「逍遙遊」 참조.

103) 竝(방): 의지함.

104) 瑞節: 친자가 제후를 봉할 때 信標로 주는 符節.

105) 象魏: 옛날에 임금의 명령(敎令)을 象魏(闕門)에 걸어 보였던 데서, 敎令 또는 闕門을 의미함. 여기서는 '궐문'의 뜻.

106) 恣: 내맡기다. 『戰國策』 「趙策」 “恣君之所使之.”

107) 通星: 徹夜, 通宵와 같은 말.

108) 碕上(기상): 굽이진 해안. 『集韻』 “碕, 曲岸, 或作埼.”

109) 龍頷下: 용의 턱밑에 있다고 하는 구슬을 가리킴. 곧 求法을 비유한 말. 『莊子』 「列御寇」 “千金之珠, 必在九重之淵, 而驪龍頷下, 子能得珠者, 必遭其睡也, 使驪龍而寤之, 子尙奚微之有哉.”

110) 我心匪石: 내 마음은 구르는 돌과 같지 않다는 말. 곧 지조나 결심이 굳은 것을 이른다. 『詩經』 邶風, 「柏舟」 “我心匪石, 不可轉也.”

111) 朝正: 제후가 임금을 알현하고 政敎를 받는 것을 이룸. 事大外交의인 표현이다.

112) 艫舟: 배떠날 준비를 차리고 배를 언덕에 갖다 댐. 『廣韻』 “艫, 整舟向岸.”

若¹¹³⁾曰：『珍重鯨波，好戰風魔』

行至大興城南山至相寺，遇說雜花者，猶在浮石時。有一髻顏¹¹⁴⁾者年，言提之¹¹⁵⁾曰：『遠欲取諸物¹¹⁶⁾，孰與¹¹⁷⁾認而¹¹⁸⁾佛』大師舌底¹¹⁹⁾大悟。自是置翰墨遊歷，佛光寺問道如滿。滿佩江西¹²⁰⁾印，爲香山白尚書樂天空門友者，而應對有慙色，曰：『吾閱人多矣，罕有如是新羅子。他日中國失禪，將問之東夷耶!』

去謁麻谷寶澈¹²¹⁾和尚。服勤¹²²⁾無所擇，人所難己必易，衆目曰：『禪門庾異行¹²³⁾』澈公賢苦節，嘗一日告之曰：『昔吾師馬和尚，訣我曰：『春蘄繁，秋實寡，攀道樹者所悲吒¹²⁴⁾。今授若印，異日徒中有奇功，可封者封之，無使剝¹²⁵⁾!』復云：『東流之說¹²⁶⁾，盖出鈎識¹²⁷⁾，則彼日出處善男子，根殆熟矣。若若¹²⁸⁾得東人可目語¹²⁹⁾者，畎道¹³⁰⁾之! 俾惠水¹³¹⁾丕冒於海隅，爲德非淺』，師言在耳，

113) 海若：海神. 그냥 '若'이라고도 함. 『莊子』「秋水」, “河伯向若曰, ……”: 『楚辭』「遠遊」, “使湘靈鼓瑟兮, 今海若無馮夷.”

114) 髻顏(예안) : 검은 색의 美石과 같은 얼굴.

115) 言提之 : 귀를 잡아당겨 말함. 곧 지혜를 깨우쳐 줌을 이른다. 『詩經』, 大雅, 「抑」, “匪面命之, 言提其耳.”

116) 遠取諸物 : 『周易』「繫辭(下)」에서는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이라 하였다. ‘諸’는 ‘之於’의 줄임말.

117) 孰與 : 의문사. ‘어떻겠느냐(何如)’의 뜻. ‘孰若’과 같다.

118) 而 : 너(汝). 『爾雅』「廣詁」, “而, 汝也.”

119) 舌底 : 말이 그치자마자. 言下. 『爾雅』「釋詁」, “底, 止也.”

120) 江西 : 江西 馬祖(道一, 709~846)의 별칭.

121) 寶澈 : 원 법명은 寶徹이지만 ‘寶澈’이라 쓰기도 한다.

122) 服勤 : 힘든 일에 부지런히 종사함. 『禮記』「檀弓(上)」, “服勤至死.”

123) 庾異行 : 중국 南朝 때 효자로 유명했던 庾黔屨의 異行을 말함.

124) 悲吒(비차) : 슬피 탄식함.

125) 剝 : 끊음(斷).

126) 東流之說 : 부처님의 教法이 동쪽으로 흐른다는 말. 佛家에서는 예로부터 이 말이 전해오고 있었다. 『續譯名義集』 “大法東流, 爲日諒久, 雖風移政變, 而弘之不易.”

127) 鈎識 : 豫言. 갈고리(鈎)는 앞으로 끌어 당기는 것이므로, 대개 앞으로 생길 일을 미리 이끌어서 말하는 것을 비유한 말.

128) 若 : 너(汝).

129) 目語 : 佛家에서 이른바 ‘以心傳心’ 또는 ‘目擊道存’ 등과 같은 말.

130) 畎道 : 밭도랑으로 인도함. 畎流의 준말. 밭도랑이란 밭 가운데 물이 잘 흐르도록 만들어 놓은 排水路이니, 앞에서 大法의 東流를 물의 흐름에 비유했기 때문에 ‘畎流’의 뜻으로 말한 것이다. 『易緯』「乾鑿度」 “聖人鑿開虛無, 畎流大道, 萬彙滋溢, 陰陽成數.”

131) 惠水 : 지혜를 물에 비유한 말. 지혜가 길게 흘러 번뇌의 때를 씻겨준다는 뜻에서 비롯되었다.

吾喜若徠¹³²⁾. 今印焉, 俾冠禪侯于東土; 往欽哉¹³³⁾, 則我當年作江西大兒, 後世爲海東大父, 其無慙先師矣乎』

居無何¹³⁴⁾, 師化去, 墨巾離首¹³⁵⁾, 乃曰: 『筏既捨矣, 舟何繫焉¹³⁶⁾?』 自爾, 浪遊飄飄然, 勢不可遏, 志不可奪. 於¹³⁷⁾渡汾水, 登崢山; 跡之古必尋, 僧之眞必詣. 凡所止舍遠人煙, 大要在安其危, 甘其苦; 役四體爲奴虜, 奉一心爲君主. 就是中, 顛¹³⁸⁾以視篤癡恤孤獨¹³⁹⁾爲己任. 至祁寒酷暑, 且煩喝或駭瘵侵, 曾無倦容, 耳名者不覺遙禮. 囂作東方大菩薩, 其三十餘年行事也, 其¹⁴⁰⁾如是.

會昌五年來歸, 帝命也. 國人相慶, 曰: 『連城壁¹⁴¹⁾復還, 天實爲之, 地有幸也』 自是, 請益者, 所至稻麻¹⁴²⁾矣.

入王城, 省母社¹⁴³⁾; 大歡喜, 曰: 『顧吾疇昔夢, 乃非優曇之一顯¹⁴⁴⁾耶? 願度來世, 吾不復撓倚門之念¹⁴⁵⁾也已矣』

迺北行, 擬目選終焉之所. 會王子昕懸車¹⁴⁶⁾, 爲山中宰相¹⁴⁷⁾, 邂逅適願¹⁴⁸⁾. 謂曰: 『師與吾俱

132) 若徠: 若은 '汝'의 뜻이고 徠는 '來'와 全字.

133) 往欽哉: 가서 조심하라는 뜻. 『書經』, 虞書, 「堯典」 “帝拜曰兪, 往欽哉.”

134) 居無何: 시간적으로 얼마되지 않아서. '居無幾何'의 준말.

135) 離首: 머리에 씌. 『周易』 「離卦」 “離, 麗也.”; 同注 “麗, 猶著也.”

136) 舟何繫焉:航海 중의 배가 어찌 매이겠느냐는 말. 自然에 順任하거나 漂泊不定한 것을 비유한 말. 不繫之舟. 『莊子』 「列禦寇」 “汎若不繫之舟, 虛而遨遊者也.”

137) 於: 대부분의 註解本에서는 '於是'의 잘못으로 보고 있으나, 본 역주자는 答本을 그대로 따라 “~함에 있어서”라고 번역한다.

138) 顛: 오로지. '專'과 全字.

139) 孤獨: 어려서 부모가 없는 사람을 孤, 老境에 자식이 없는 사람을 獨이라 함. 『孟子』 「梁惠王(下)」 “幼而無父曰孤, 老而無子曰獨.”

140) 其: 앞귀절에서 '其三十餘年~'이라 하여 '其'자가 나왔는데, 뒷귀절에서 '其如是'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아마도 '蓋如是'의 잘못인 듯하다. 대부분의 註解本에서는 이 '其'를 衍字로 보고 '其如是'를 '如是'로 고쳤으나, 이럴 경우 문장의 리듬이 어색하다. '蓋如是'가 적당하지 않은가 한다.

141) 連城壁: 천하에 으뜸가는 보배 또는 인재를 이름. 중국 전국시대에 秦나라 昭王이 趙나라 惠文王에게 열다섯 개의 城과 바꾸자고 했던 '和氏璧'의 故事에서 나왔다. 『史記』 권81, 「廉頗藺相如傳」 참조.

142) 稻麻: 稻麻竹葦의 준말. 논의 벼대, 밭의 삼대, 대밭의 대나무, 풀밭의 갈대와 같이 그 수가 많음을 이르는 말. 『維摩經』 「法供養品」 “甘蔗竹葦, 稻麻叢林.”

143) 母社: 어머니를 이름. 중국의 江淮 일대에서는 어머니를 '社'라 함. 『淮南子』 「說山訓」 “社何愛速死, 吾必悲哭社.”; 同注 “江淮一帶, 謂母爲社.”

144) 優曇之一顯: 『法華文句』 권4(上)에 보이는 말이다. 優曇은 優曇華·優曇跋(鉢)羅華의 준말.

145) 倚門之念: 어머니가 문에 기대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림. 『戰國策』 권13, 「齊策(二)」 “王孫賈之母, 謂賈曰: 女朝出而晚來, 則吾倚門而望, 女暮出而不還, 則吾倚閭而望.”

祖龍樹乙粲, 則師內外爲龍樹令孫, 眞瞠若不可及¹⁴⁹⁾者. 而¹⁵⁰⁾滄海外躡蕭¹⁵¹⁾湘故事, 則親舊緣固不淺. 有一寺在熊川州坤隅, 是吾祖臨海公(原註: 祖諱仁問, 唐酬伐獫狁功, 封爲臨海郡公), 受封之所. 間劫盡¹⁵²⁾流菑¹⁵³⁾, 金田半灰; 匪慈哲, 孰能興滅繼絕¹⁵⁴⁾? 可强爲朽夫住持乎?』大師答曰: 『有緣則住』

大中初, 始就居, 且盼飭¹⁵⁵⁾之, 俄而道大行, 寺大成. 繇是四遠問津¹⁵⁶⁾輩, 視千里猶跬步, 其麗不億¹⁵⁷⁾. 寔繁有徒¹⁵⁸⁾. 大師猶鍾待扣¹⁵⁹⁾, 而鏡忘罷¹⁶⁰⁾. 至者, 靡不以慧炤導其目, 法喜娛其腹; 誘憧憧¹⁶¹⁾之躅, 變蚩蚩¹⁶²⁾之俗.

文聖大王, 聆其運爲, 莫非裨王化, 甚□¹⁶³⁾之. 飛手教優勞, 且多¹⁶⁴⁾大師答山相之四言, 易寺

146) 懸車(현거) : 벼슬에서 물러남(致仕)을 이룸. 漢나라 薛廣德이 벼슬에서 물러난 뒤 沛로 돌아가 황제가 내려준 安車를 걸어 놓고 자손에게 전하여 幸榮을 보였다는 故事에서 나왔다. 『漢書』 권71, 「薛廣德傳」 참조.

147) 山中宰相 : 중국 梁나라 때 隱士 陶弘景의 故事. 『南史』 권75, 「陶弘景傳」 “…… 國家每有吉凶征討大事, 無不前以諮詢, 月中常有數信, 時謂爲山中宰相.”

148) 邂逅適願 : 우연히 만나 바라는 바가 합치됨. 『詩經』, 鄭風, 「野有蔓草」 “邂逅相遇, 適我願兮.”

149) 瞠若不可及 : 놀라서 눈을 부릅뜨고 따라가려 하나 뒤따를 수 없음.

150) 滄海外躡蕭湘故事 : 푸른 바다 밖에서 瀟湘의 故事를 행함. 즉 중국에서 서로 만났음을 이르는 말. 당나라 때 시인 柳惲의 「江南曲」에 “洞庭有歸客, 瀟湘逢故人”이란 句가 있는데, 이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이후 ‘아름다운 만남’을 묘사할 때 이 ‘瀟湘逢故人’의 故事가 많이 인용되었다.

151) 蕭 : ‘瀟’자를 줄여서 쓴 듯.

152) 劫盡 : 劫盡火의 준말.

153) 流菑(유재) : 流災. 저절로 일어난 재앙. 여기서는 天火를 말한다.

154) 興滅繼絕 : 없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끊어진 것을 다시 이음. 『論語』 「堯曰」 “周武王興滅國, 繼絕世, 舉逸民, 天下之民歸心焉”

155) 盼飾(힐식) : 모두다 말끔히 整齊하고 꾸밈. 『漢書』 권22, 「禮樂志」 “鸞路龍鱗, 罔不盼飾.”

156) 問津 : 나루가 있는 곳을 물음. 轉하여 학문하는 길을 묻는 뜻으로 쓰인다. 『論語』 「微子」 “張沮傑溺, 耦而耕, 孔子過之, 使子路問津焉.”

157) 其麗不億 :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음. 『詩經』, 大雅, 「文王之什」 “商之孫子, 其麗不億.” ; 集傳 “麗, 數也. 不億, 不止於億也.”

158) 寔繁有徒 : 무리가 많음을 이룸. 『書經』, 商書, 「仲虺之誥」 “簡賢附勢, 寔繁有徒.”

159) 鍾待扣 : 종이 쳐주기를 기다림. 『禮記』, 「學記」 “善待問者如撞鐘, 叩之以小者小鳴, 叩之以大者大鳴.”

160) 鏡忘罷(피) : 거울은 아무리 비추어도 고달픔을 잊는다는 말. 罷는 ‘疲’와 통용된다. 『世說新語』 권1, 「言語」 “袁羊曰: 何嘗見明鏡疲於屢照, 清流憚於惠風.”

161) 憧憧 :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 『易經釋文』 “憧憧, 劉云, 意未定也.”

162) 蚩蚩(치치) : 無知한 모양. 『詩經』, 衛風, 「氓」 “氓之蚩蚩, 抱布貿絲.” ; 集傳 “蚩蚩, 無知貌.”

163) □(가) : 加+心. 본받음.

勝爲聖住, 仍編錄大興輪寺. 大師酬使者曰: 『寺以聖住爲名, 招提¹⁶⁵⁾固所爲榮, 至寵庸僧, 濫吹¹⁶⁶⁾高藉¹⁶⁷⁾. 寔避風¹⁶⁸⁾斯媿¹⁶⁹⁾, 而隱霧¹⁷⁰⁾可慙矣』

時憲安大王, 與檀越¹⁷¹⁾季¹⁷²⁾舒發韓魏昕, 爲南北相(原註: 各居其官, 猶左右相). 遙展攝齋¹⁷³⁾禮, 贊以茗醇, 使無虛月, 至使名霑東國; 士流不識大師門, 爲一世差. 得禮足¹⁷⁴⁾者, 退必喟曰: 『面謁倍百乎耳聞, 口未出而心已入』 抑有猴虎而冠¹⁷⁵⁾者, 亦熄其趨, 諱其虺¹⁷⁶⁾, 而競犇馳善道.

暨憲王¹⁷⁷⁾嗣位, 賜書乞言, 大師答曰: 『周豐對魯公之語¹⁷⁸⁾, 有旨哉, 著在禮經, 請銘座側』 逮贈太師先大王卽位, 欽重如先朝志, 而日加厚焉. 取¹⁷⁹⁾所施爲, 必馳問然後舉.

咸通十二年秋, 飛鵠頭書, 以傳召¹⁸⁰⁾曰: 『山林何親, 城邑何疎?』 大師謂生徒曰: 『遽命伯

164) 多: 중히 여김. 『漢書』 권81, 「馬宮傳」 「朕甚多之.」: 同注 「師古曰: 多, 猶重也.」

165) 招提: 절을 달리 이르는 말. 범어로 '四方'을 의미한다. 본래는 '拓提'였는데, 北魏의 太武帝 始光 2년 (425)에 한 伽藍을 짓고 招提라고 이름한 뒤부터 招提가 사찰의 異名이 되었다.

166) 濫吹: 재능도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을 이룸. 南郭濫吹, 濫竽라고도 함. 『韓非子』 內儲說上篇, 「七術傳三, "齊宣王使人吹竽, 必三百人. 南郭處士請爲王吹竽, 宣王說之, 廩食以數百人. 宣王死, 湣王立, 好一一聽之, 處士逃."」

167) 高藉(고자): 높은 자리. 또는 높은 자리를 차지함. '高籍'으로 되어 있는 필사본이 많은데, 답본에는 분명 '高藉'로 되어 있다.

168) 避風: '海鳥避風'의 故事. 『文選』 권13, 張華, 「鶴鶴賦」 "海鳥鷓鴣, 避風而至, 條枝巨雀, 踰嶺自致."

169) 媿(비): 건주다. 『爾雅』 「釋詁」 "媿, 妃也, 配也."

170) 隱霧: 雲霧를 피해 산에 숨어 무너를 운택하게 했던 玄豹의 故事. '豹隱'은 山林에 은거하는 것의 비유. 『列仙傳』 권2, 「陶答子妻」 "妾聞南山有玄豹, 霧雨七日, 而不下食者, 何也? 欲以澤其貌, 而成文章."

171) 檀越: 범어 'Danapati'의 音譯. 布施를 행하는 사람으로, '施主' 또는 '化主'라 번역한다.

172) 季: 말째. '아우(弟)'를 뜻하는 것으로 보거나, '追序(追贈)'를 의미하는 '序'자의 잘못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나 다 근거가 부족하다.

173) 攝齋: 弟子禮를 말함. 攝齋라고도 쓴다. 건거나 계단을 올라 갈 때 옷자락을 밟고 땅에 넘어져 체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옷자락을 걷어올리는 것이니, 轉하여 '제자가 스승 앞에서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 『論語』 「鄉黨」 "攝齋升堂, 鞠躬如也."

174) 禮足: 佛家에서 가장 지극한 경례법의 하나. 부처의 발에 자신의 이마를 대는 것으로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상대방의 가장 천한 곳에 대는 인사법이다. 頂禮·接足禮·頭面禮라고도 한다.

175) 猴虎而冠: 원숭이나 호랑이가 관을 씌. 『史記』 권7, 「項羽本紀」 "楚人沐猴而冠耳."

176) 虺(포): 사나움. '暴'와 통용.

177) 憲王: 현안왕을 가리킴. 일명 情王. 『寶林寺石塔誌』에 "所由者, 憲王往生慶造之塔."이라고 한 대목이 보인다. 『韓國金石遺文』, 154·253쪽 참조.

178) 周豐對魯公之語: 『禮記』 「檀弓(下)」에 보인다. 종래 필사본에서는 周豐을 '周禮'라고 고쳐서 註를 달아 왔으나 이것은 잘못이다.

179) 取: '最'와 尠字. 대개(大凡).

180) 傳召: 傳驛(국가의 명령을 차례로 전하는 驛站)을 통해 부름. 『春秋左氏傳』 成公 5년 "晉侯以傳召伯宗."

宗, 深慙遠公¹⁸¹. 然道之將行也, 時乎不可失; 念付囑故, 吾其往矣』欸爾至轂下¹⁸², 及見; 先大王冕服拜爲師. 君夫人世子, 旣¹⁸³太弟相國(原註: 追奉尊諡惠成大王) · 群公子公孫, 環仰如一. 一如古伽藍續壁面, 寫出西方諸國長侍勃陁¹⁸⁴樣式.

上曰: 『弟子不佞¹⁸⁵, 小好屬文. 嘗覽劉勰文心, 有語云: 「滯有守無, 徒銳偏解. 欲詣眞源, 其般若之絕境!」, 則境之絕者, 或可聞乎?』大師對曰: 『境旣絕矣, 理無矣. 斯印¹⁸⁶也, 默行爾』上曰: 『寡人固請少進』爰命徒中錚錚者, 更手撞擊¹⁸⁷, 春容¹⁸⁸盡聲; 刮滯祛煩, 若商飈¹⁸⁹之劃陰靄然. 於是, 上大喜, 懊見大師晚, 曰: 『恭己南面¹⁹⁰, 司南¹⁹¹南宗; 舜何人哉, 余何人也¹⁹²?』旣出, 卿相延迓, 與謀不暇; 士庶趨承¹⁹³, 欲去不能. 自是, 國人皆認衣珠¹⁹⁴, 隣叟罷窺廡玉¹⁹⁵焉.

俄苦樊笱¹⁹⁶中, 卽亡去. 上知不可强, 迺降芝檢¹⁹⁷, 以尙州深妙寺不遠京, 請禪那¹⁹⁸別館. 辭

181) 遠公: 중국 東晉 때의 고승인 慧遠을 이름.

182) 轂下: 임금이 타는 수레의 밑이라는 뜻으로 '서울'을 이름.

183) 旣: ~ 및(及). '暨'와 통용. 『經傳衍釋』“旣通暨, 及也.”

184) 勃陁(발타): 梵語의 'Buddha'를 音譯한 것. '佛陀'와 같다.

185) 不佞(불녕): 재주가 없음. 轉하여 '자기'의 겸칭으로 쓰인다. '佞'은 '佞'의 俗字.

186) 印: 心印을 이름.

187) 更手撞擊: 손을 번갈아서 중을 짐.

188) 春容盡聲: 중을 치고 받으며 제 소리를 다함. 春(용)은 '치다(擊)', 容은 '받아들이다(受)'의 뜻으로 '從容'으로도 쓰는데, 一問一答을 비유한 말이다. 『禮記』「學記」“善待問者如撞鐘. …… 待其從容, 然後盡其聲.”

189) 商飈(상표): 가을바람. 飈는 '飄'와 全字. 『文選』권55, 陸機, 「演連珠」“商飈漂山, 不興盈尺之雲”; 同注“良曰, 商飈, 秋風也.”

190) 南面: 임금이 조정에서 신하에 대하여 남쪽으로 향해 앉는 자리. 轉하여 '임금의 지위'를 이른다. 『論語』「衛靈公」“無爲而治者, 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

191) 司南: 指南과 같은 말. 가르쳐 이끌어준다는 뜻.

192) 舜何人哉 予何人也: 孔門十哲의 한 사람인 顏淵의 말. 사람은 그 누구나 똑같은 존재이므로, 분발하면 순임금과 같은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孟子』「滕文公(上)」“舜何人也, 予何人也”

193) 趨承: 붙좃아 따르며 뜻을 이어받음. '趨'는 '趨'와 全字.

194) 衣珠: 法華七喻의 하나. 佛性을 옷속의 寶珠에 비유한 것. 『法華經』「五百弟子授記品」“不覺內衣裏, 有無價寶珠”

195) 廡玉: 괴석으로 의심을 받아 廡下에 버려진 徑尺玉. 자신에게 있는 佛性을 잊은 사람을 비유한 말. 『尹文子』「大道(上)」“魏叟得徑尺玉, 隣人曰: 「此怪石也」歸置廡下, 其玉明照一室, 大怖遽, 棄于野. 隣人取獻魏王, 賜千金, 長食上大夫祿.”

196) 樊笱(번노): 새(鳥)를 가두어 놓고 기르는 장. 자유롭지 못함의 비유.

197) 芝檢: 임금의 手書를 달리 일컫는 말. 李嶠, 「賀慶雲表」“芝檢初開, 扶光未從.”

不獲，往居之；一日必葺¹⁹⁹，儼若化城²⁰⁰。

乾符三年春，先大王不預。命近侍曰：『亟迎我大鑿王來！』使至，大師曰：『山僧足及王門，一之謂甚。知我者，謂聖住爲無住，不知我者，謂无染爲有染乎。然顧與吾君，有香火因緣²⁰¹，忉利之行²⁰²有期矣，盍就一訣』復步至王居，設藥言，施箴戒；覺中愈，舉國異之。

既踰月，獻康大王居翌室²⁰³。泣命王孫勛榮諭旨，曰：『孤幼遭閔凶²⁰⁴，未能知政；致君奉佛，誦²⁰⁵濟海人²⁰⁶，與獨善其身²⁰⁷，不同言也。幸大師無遠適，所居唯所擇』對曰：『古之師則六籍在，今之輔則三卿在；老山僧何爲者，坐蝗蠹²⁰⁸桂玉²⁰⁹哉？就有三言，庸可留獻，曰能官人²¹⁰』

翌日挈²¹¹山裝烏逝；自爾，騎置²¹²傳訊，影綴巖溪。遽人²¹³知往抵²¹⁴聖住，卽皆雀躍，叢手易轡²¹⁵，慮滯王程尺寸地²¹⁶。由是，騎常侍倫伍，得急宣²¹⁷爲輕舉²¹⁸。

198) 禪那：參禪 또는 禪定과 같은 말. '靜慮(靜心思慮)'라 번역된다.

199) 一日必葺：비록 하루를 머물더라도 반드시 집을 수리함. 『春秋左氏傳』昭公 3년 “叔孫所館者，雖一日，必葺其牆屋，去之如始至.”

200) 化城：절(寺)을 달리 이르는 말. 부처가 求道の 險路에서 지친 사람들을 위해 임시 쉬어 갈 수 있도록 신통력으로써 한 城을 열었다는 故事에서 비롯되었다. 『法華經』「化城喻品」“以方便力，於險道中，過三百由旬，化作一城.”

201) 香火因緣：옛사람들은 盟約을 때 향을 피우고 神佛에게 아뢰었는데, 佛家에서도 서로 맹세한 인연이 있는 것을 '香火因緣'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陸法和의 故事를 인용하였다. 『北齊書』권32, 『陸法和傳』“法和是求佛之人，尙不希釋梵天王坐處，豈規王位。但於空王佛所，與主上有香火因緣，且主上應有報至，故救援耳.”

202) 忉利之行：忉利天으로 가는 것. 곧 '죽음'을 이른다.

203) 翌室：翼室과 같은 말. 본래 임금이 執務하는 正殿의 좌우 편에 달려 있는 방을 이룸인데, 주로 居喪 때 사용하므로, '服喪'을 의미하기도 한다.

204) 閔凶：부모의 喪. 『春秋左氏傳』, 宣公 12년 “寡君少遭閔凶，不能文.”

205) 誦：도모함. 『集韻』“誦，謀也.”

206) 海人：많은 사람을 드넓은 바다에 비유한 말.

207) 獨善其身：자기 한 몸만 올바르게 잘하여 감. 『孟子』「盡心(上)」“君子窮則獨善其身，達則兼善天下.”

208) 蝗蠹(황두)：누리와 같이 ~을 좀먹음. 누리는 버를 해치는 벌레.

209) 桂玉：뿔나무와 식량(柴糧)을 이르는 말. 『戰國策』「楚策」“蘇秦曰：楚國之食貴于玉，薪貴于桂；今臣食玉炊桂，不亦難乎.”

210) 能官人：인재를 잘 살피서 관직에 등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 『書經』, 虞書, 『皋陶謨』“知人則哲，能官人.”

211) 挈(설)：이끌다.

212) 騎置：驛馬. 『漢書』권54, 『李廣傳附-李陵』：同注 “師古曰，騎置，謂驛騎也.”

213) 遽人：驛卒.

214) 抵：해당되다.

乾符帝錫命²¹⁹⁾之歲, 令國內舌杪有可道者²²⁰⁾, 貢興利除害策, 別用蠻牋²²¹⁾, 書言: 『荷天寵²²²⁾, 有所自』, 因垂益國之問. 大師引出何尚之獻替²²³⁾宋文帝心聲²²⁴⁾爲對. 太傅王覽²²⁵⁾, 謂介弟南宮相²²⁶⁾曰: 『三畏比三歸, 五常均五戒. 能踐王道, 是符佛心. 大師之言, 至矣哉! 吾與汝宜惓惓』

中和西狩之年秋, 上謂侍人曰: 『國有大寶珠, 畢世匱而藏之, 其可耶?』曰: 『不可! 不若時一出, 俾醒萬戶眼, 醉四隣心』曰: 『我有末尼²²⁷⁾上珍, 匿曜在崇巖山. 脫²²⁸⁾關秘藏, 宜照透三千界, 何十二乘²²⁹⁾足之²³⁰⁾道哉? 我文考懇迎, 嘗再顯矣. 昔鄼侯²³¹⁾譏漢王拜大將召小兒²³²⁾, 不能致商於²³³⁾四老人, 以此. 今聞天子蒙塵, 趣²³⁴⁾令奔問官守²³⁵⁾; 勤王加厚, 歸佛居先. 將邀大師, 必叶

215) 叢手易轡(총수역비): 손을 모아 말고삐를 고쳐 잡음.

216) 尺寸地: 얼마 안되는 것. 조그만큼. '地'는 무의미한 助辭.

217) 急宣: 임금의 급한 부름. 『文選』 권12, 木華, 「海賦」 “若乃偏荒速告, 王命急宣.”

218) 輕舉: 일을 쉽게 행함. 『韓非子』 「難四」 “輕舉以行計, 則人主危.”

219) 錫命:天子가 명령을 내림. 또는 그 명령.

220) 有可道者: 어떠한 方道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

221) 蠻牋(만전): 중국에서 우리 나라의 종이를 일컫던 말. 원래는 고구려에서 생산되는 종이를 지칭하였다. 陳耀文撰, 『天中記』 “唐中國紙未備, 多取于外夷. 故唐人詩中多用蠻牋字, 亦有謂也. 高麗歲貢蠻紙, 書卷多用爲縑.”

222) 荷天寵: 하늘의 은총을 받음. 『詩經』 商頌, 「長發」 “何(荷)天之寵(寵).”

223) 獻替: 獻可替否의 준말. 신하가 임금에게 정책에 대한 견해를 제출하면, 임금은 이를 받아 피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시행에 옮기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버린다는 데서 나온 말.

224) 心聲: 말(言). 『法言』 권4, 「問神」 “言, 心聲也. 書, 心畫也.”

225) 覽: [말을] 받음. 『戰國策』 「齊策」 “大王覽其說”; 同注 “覽, 受也.”

226) 南宮相: 禮部의 長官. '南宮'은 당나라 官制로 禮部를 이르는데, 신라에서는 禮部의 長을 슈이라고 하였다.

227) 末尼: 梵語 'mani'의 音譯. 摩尼.

228) 脫(태): 만약.

229) 十二乘: 중국 전국시대 魏나라 惠王(梁惠王)이 직경 1寸쯤되는 寶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珠光이 戰車 12대(乘) 前後를 두루 환하게 비추었다는 '昭乘寶'의 故事에서 나온 말. 『史記』 권46, 「田敬仲完世家」 “尚有徑寸之珠, 照車前後各十二乘者十枚.”

230) 足之: 문장 구조상 '之足'이 되어야 할 것이다.

231) 鄼侯: 前漢의 개국공신 蕭何(?~B.C. 193)를 말함. 張良·韓信과 함께 漢나라 '三絕' 중의 한 사람으로 鄼侯에 봉해졌다.

232) 拜大將召小兒: 漢高祖가 韓信을 대장으로 임명하면서 어린 아이 부르는 것처럼 하였다는 故事. 『史記』 권92, 「淮陰侯列傳」 “王素嫚無禮, 今拜大將, 如呼小兒耳.”

233) 商於: '商山'의 誤書.

234) 趣(촉): 빨리. '促'과 통용.

外議, 吾豈敢倚其一慢其二²³⁶⁾哉?』乃重其使, 卑其辭, 徵之. 大師云: 『孤雲出岫, 寧有心哉²³⁷⁾? 有緣乎大王之風, 無固乃上士²³⁸⁾之道』

遂來見, 見如先朝禮, 禮之加焯然. 可屈指者; 面供饌, 一也. 手傳香, 二也. 三禮²³⁹⁾者三, 三也. 秉鵠尾爐, 締生生世世緣, 四也. 加法稱曰廣宗, 五也. 翌日命振鷺²⁴⁰⁾, 趨鳳樹²⁴¹⁾雁列賀²⁴²⁾, 六也. 教國中磋磨六義²⁴³⁾者, 賦送歸之什, 在家弟子王孫蘇判嶷榮首唱, 斂成軸, 侍讀翰林才子朴邕爲引, 而贈行, 七也. 申命掌次²⁴⁴⁾, 張淨室, 要²⁴⁵⁾叙別, 八也.

臨告別, 求妙訣, 乃胸²⁴⁶⁾從者學眞要. 有若詢父·圓藏·虛源·玄影, 四禪²⁴⁷⁾中得清淨者, 緒抽²⁴⁸⁾其慧, 表纖旨²⁴⁹⁾; 注意無怠, 沃心有餘. 上甚悅, 饒拜²⁵⁰⁾曰: 『昔文考爲捨瑟之賢²⁵¹⁾, 今寡人

235) 奔問官守: 달려가 천자의 여러 신하에게 위문함. 『春秋左氏傳』僖公 24년 “天子蒙塵于外, 敢不問官守”; 同注 “官守, 王之群臣. 附註曰, 天子至尊, 不敢斥言, 故但曰奔問官守.”

236) 倚其一慢其二: 임금이라는 하나의 존귀함을 믿고 年齒와 德望의 두 가지 존귀를 겸한 사람에게 무례를 저지름. 『孟子』「公孫丑(下)」 “天下有達尊三, 爵一齒一德一. 朝廷莫如爵, 鄉黨莫如齒, 輔世長民莫如德. 惡得有其一以慢二哉.”

237) 孤雲出岫 寧有心哉: 외로운 구름이 산의 굴을 나와서 무심히 이리 저리 떠도는 것처럼, 자신의 出處進退를 자연에 맡겨 허심탄회하다는 말. 『文選』 권45, 陶潛, 「歸去來辭」 “雲無心而出岫, 鳥倦飛而知還.”

238) 上士: 보살의 異稱. 『釋氏要覽』, 卷上 “瑜伽論云, 有二利(自利·利他), 名上士.”

239) 三禮: 몸·입·뜻(三業)으로써 敬意를 표하여 세 번 절함.

240) 振鷺: 해오라기가 떼를 지어 난다는 뜻. 원래는 고결한 賢人을 비유하는 말이나, 여기서는 朝班(百官縉紳)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詩經』, 周頌, 「振鷺」 “振鷺于飛, 于彼西雝.”; 『文選』 권48, 揚雄, 「劇秦美新」 “振鷺之聲充庭, 鴻鸞之黨漸階.”; 同注 “善曰, 振鷺鴻鸞, 喻賢也.”

241) 鳳樹: 봉새가 머무는 나무. 오동나무가 아니면 봉새가 깃들지 않는다는 것처럼, 승려도 절이 아니면 머물지 않는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대사가 留宿하고 있는 절을 이른다. 『詩經』, 大雅, 「卷阿」 “鳳凰鳴矣, 于彼高岡. 梧桐生矣, 于彼朝陽.”; 同箋 “鳳凰之性, 非梧桐不棲.”

242) 雁列賀: 기러기처럼 열을 지어 하례함.

243) 六義: 시를 風·雅·頌·興·賦·比의 여섯 가지로 나눈 것. 여기서는 시의 汎稱으로 쓰였음.

244) 掌次: 임금의 행차에 관계된 일을 맡아보는 관직. 『周禮』, 天官, 「掌次」 “掌次, 掌王之法, 以待張事.”

245) 要: 구하다.

246) 胸(현): 눈짓으로 ~을 시킴.

247) 四禪: 四禪定の 약칭.

248) 緒抽: ~에서 실마리를 뽑아냄. 揚雄, 『太玄經』 “推之以刻, 參之以晷, 反覆其序, 軫轉其道, 以見不見之形, 抽不抽之緒, 與萬類相連也.”

249) 表纖旨: 앞의 ‘緒抽其慧’와 對를 이루는 것이므로, 마땅히 ‘表纖其旨’라야 할 것이다.

250) 饒拜(의배):拱手하고 절을 함. 또는 그 절.

251) 捨瑟之賢: 타던 비파를 그쳤던 賢人. 곧 曾點을 말한다. 『論語』「先進」 “子路曾皙冉有公西華侍坐. 子曰: 「以吾一日長乎爾, 毋吾以也!」…… 「點! 爾何如?」 鼓瑟希, 鏗爾舍瑟而作, 對曰: 「異乎三子者之撰, ……」”

忝避席之子²⁵²·繼體²⁵³得崆峒之請²⁵⁴，服膺²⁵⁵開混沌之源；則彼渭濱老翁²⁵⁶，眞鈞名者；圯上孺子²⁵⁷，蓋履迹焉。雖爲王者師，徒弄三寸舌²⁵⁸也；曷若吾師語，密傳一片心乎？奉以周旋，不敢失墜』太傅王雅善華言²⁵⁹，金玉音，不患衆咻聒，而能出口，成麗語，如宿構云。

大師既退，且往應王孫蘇判鑑。共言數返，卽歎曰：『昔人主有有遠體²⁶⁰而無遠神者，而吾君備，人臣有有公才²⁶¹而無公望者，而吾²⁶²全。國其庶乎，宜好德自愛！』及歸謝絕。於是，遣輜軒²⁶³，標放生場界，則鳥獸悅；紐²⁶⁴銀鈞²⁶⁵，扎聖住寺題，則龍蛇活。

盛事畢矣，昌期²⁶⁶忽兮。定康大王莅阡，兩朝寵遇，帥²⁶⁷而行之。使緇素²⁶⁸，重使迎之，辭以老

252) 避席之子：자리를 피한 아들. 곧 曾點의 아들인 曾子(이름은 參)를 지칭하니, 曾參이 弟子禮에 충실했던 것을 말한다. 『孝經』「開宗明義」"仲尼閒居，曾子侍坐，子曰：「參！先王有至德要道，以順天下，民用和睦，上下無怨，汝知之乎？」曾子辟席曰：「參不敏，何足以知之。」"

253) 繼體：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음. 『漢書』권79, 「外戚傳」"自古受命帝王，及繼體守文之君，非獨內德茂也，蓋亦有外戚之助焉."

254) 崆峒之請：黃帝가 崆峒山에 있는 廣成子를 찾아가 至道를 물었다는 故事. 『莊子』「在宥」"黃帝立爲天子十九年，令行天下。聞廣成子在於空同(崆峒)之上，故往見之。曰：「我聞吾子，達於至道，敢問至道之精，吾欲取天下之精，以佐五穀，以養民人。」"

255) 服膺：받들어 간직함. 『中庸』 제8장 "子曰，回之爲人也，擇乎中庸，得一善，則拳拳服膺而弗失之矣."

256) 渭濱老翁：渭水 가의 늙은이. 姜太公 呂尙을 이른다. 『史記』 권32, 「齊太公世家」"西伯(文王)獵，果遇太公於渭之陽。與語大說曰：「自吾先君太公曰，當有聖人適周，周以興；子真是邪？吾太公望子久矣。」故號之曰太公望。載與俱歸，立爲師."

257) 圯上孺子(이상유자)：흙다리 위의 어린 아이. 곧 漢나라 張良을 이른다. 張良이 어렸을 때, 어느 노인(黃石公)이 흙다리 밑에 신발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주어 오게 하자, 이내 주어다가 그에게 신도록 하고 兵書를 받았다는 故事에서 나왔다. 『史記』 권55, 「留侯世家」 참조.

258) 三寸舌：말에 능하거나 변론을 잘하는 것을 비유한 말. 『史記』 권55, 「留侯世家」"留侯乃稱曰：家世相韓，及韓滅，不愛萬金之資，爲韓報讎疆秦，天下振動，今以三寸舌爲帝者師，封萬戶，位列侯."

259) 華言：화려한 말, 또는 中華語(漢文)를 말한다. 여기서는 후자의 뜻. 최치원의 「謝賜詔書兩函表」에서는 '雅善秦言'이라 하였는데, 秦言과 華言은 같은 말이다.

260) 遠體：몸이 오래 보전됨. 즉 長壽함을 이른다. 『梁高僧傳』"支道林日會稽王，有遠體而無遠神"

261) 公才：정승이 될 만한 재능. 公望은 정승이 될 만한 人望. 『世說新語』 권4, 「品藻」"王丞相嘗曰：孔愉有公才而無公望，丁潭有公望而無公才"

262) 吾：부모의 잘못된 듯. 그대. 가까운 사이에 상대를 다정하게 일컫는 말.

263) 輜軒：가벼운 수레(輕車). 周·秦時代 이래 天子가 파견한 使臣이 이 수레를 탔으므로, 轉하여 임금의 使者를 이른다.

264) 紐(뉴)：맺다(結).

265) 銀鈞：잘 쓴 글씨(특히 草書)를 형용하는 말. '鈞'는 筆劃을 이른다. 『晉書』 권60, 「索靖傳」"靖又作草書狀，其辭曰：……蓋草書之爲狀也，婉若銀鈞，飄若驚鸞."

266) 昌期：한창 성한 때. 한창 때.

267) 帥(솔)：따르다(循).

且病. 太尉大王, 流恩²⁶⁸⁾表海²⁷⁰⁾, 仰德高山. 嗣位九旬, 馳訊十返. 俄聞縶腰之苦, 遽命國醫往爲之. 至則請苦狀, 大師微破顏, 曰: 『老病耳, 無煩治』. 糜殮二時, 必聞鍾後進, 其徒憂食力虧, 陰戒掌枹²⁷¹⁾者陽²⁷²⁾密擊, 乃目瞶²⁷³⁾而命撤.

將化往²⁷⁴⁾, 命旁侍, 警遣訓于介衆, 曰: 『已過中壽²⁷⁵⁾, 難逃大期²⁷⁶⁾. 我儂²⁷⁷⁾遠遊, 爾曹好住²⁷⁸⁾! 講若畫一, 守而勿失! 古之吏尙如是, 今之禪宜勉旃』. 告訣裁²⁷⁹⁾罷, 慙然²⁸⁰⁾而化.

大師性恭謹, 語不傷和氣. 禮所云 「中退然, 言呐呐然」²⁸¹⁾者乎! 龔侶²⁸²⁾必日以禪師, 接賓客, 未嘗殊敬乎尊卑. 故滿室慈悲, 烝徒悅隨. 五日爲期, 俾來求者質疑; 諭生徒則曰: 『心雖是身主, 身要作心師. 患不爾思, 道豈遠而²⁸³⁾? 設是田舍兒, 能擺脫塵羈. 我馳則必²⁸⁴⁾馳矣, 道師教父, 寧有種乎?』 又曰: 『彼所啜不濟我渴, 彼所噉不救我餒, 盍怒²⁸⁵⁾力自飲且食? 或謂教禪爲

268) 縶素: 黑衣와 白衣. 곧 승려와 속인을 말하며, ‘道俗’이라고도 한다.

269) 流恩: 恩澤을 베풀. 流澤. 『說苑』 권6, 「復恩, “恩流群生, 潤澤草木”

270) 表海: 東海(신라를 지칭)의 表式(師表)이 됨. 『春秋左氏傳』襄公 29년 “表東海者, 其太公乎! 國未可量”; 同注 “太公封齊, 爲東海之表式.”

271) 枹(부): 종채.

272) 陽: 거짓으로.

273) 目瞶(목유): 들창으로 바라보다.

274) 化往: 스님의 죽음을 이룸. 다른 세계를 교화하러 간다는 뜻.

275) 中壽: 사람의 수명을 상·중·하로 나눌 때, 80세가 된 나이를 이른다(異說이 있다). 『莊子』“盜跖, “人上壽百歲, 中壽八十, 下壽六十.”

276) 大期: 죽음을 이룸.

277) 我儂: 못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일컫던 말. 『廣韻』“儂, 我也. 吳人自稱曰我儂.”

278) 住: 正法에 安住하여 散失치 않는 것. 『六祖法寶壇經』「付囑品」“汝等好住!”

279) 裁: 겨우. ‘才’나 ‘纔’와 통용됨. 『說文通訓定聲』“裁, 段借爲才, 與用纔財同”

280) 慙然(집연): 안정된 모습. 『莊子』「田子方」“孔子見老聃, 老聃新沐, 方將被髮而乾, 慙然似非人”

281) 中退然 言呐呐然: 몸은 겸손하고 유순한 듯하며, 말은 나직하고 느린 듯함. 『禮記』「檀弓(下)」, “文中退然, 如不勝衣. 其言呐呐然, 如不出諸其口”; 同注 “中, 身也. 退然, 謙卑性弱之貌. 呐呐, 聲低而語緩也. 如不出諸其口, 似不能言者”

282) 龔侶(횡려): 學僧.

283) 道豈遠而: 도가 어찌 너희에게서 멀리 있겠느냐는 말. ‘而’는 ‘汝’의 뜻. 『中庸』 제13장 “子曰, 道不遠人, 人之爲道而遠人, 不可以爲道.”

金廷彦撰, 「海美普願寺法印國師塔碑文」에서도 “도가 어찌 너희에게서 멀리 있겠느냐? 바르게 행하면 일상생활이 바로 道이다(道豈遠而, 行之即是)”고 하였다.

284) 必: 답본에는 분명 ‘必’자로 되어 있는데, 李佑成 교수는 必字가 心字의 잘못이라고 하면서(『新羅四山碑銘』, 54쪽), 해당 부분을 “내가 달리면 곧 마음도 달릴 것이다”(앞의 책, 335쪽)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心’자로 번역할 경우 뒤에 오는 “道師教父, 寧有種乎”의 句와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본서에서는 답본을 그대로 따른다.

無同, 吾未見其宗. 語本顛頤²⁸⁵⁾, 非吾所知. 大較同弗與異弗非²⁸⁷⁾; 晏坐息機²⁸⁸⁾, 斯近縷褐被者²⁸⁹⁾歟. 其言顯而順, 其旨奧而信. 故能使尋相爲無相, 道者勤而行之²⁹⁰⁾, 不見有岐中之岐²⁹¹⁾.

始壯及衰, 自貶爲基. 食不異糧, 衣必均服. 凡所營葺, 役先衆人. 每言: 『祖師嘗踏泥²⁹²⁾, 吾豈甞安栖?』 至撻水負薪, 或躬親. 且曰: 『山爲我爲塵, 安我²⁹³⁾得安身?』 其剋己勵物皆是類. 大師少讀儒家書, 餘味在脣吻, 故酬對多韻語.

門弟子名可名者, 厘二千人; 索居²⁹⁴⁾而稱坐²⁹⁵⁾道場者, 曰僧亮, 曰普慎, 曰詢父, 曰心光. 諸孫誥誥²⁹⁶⁾, 厥衆濟濟²⁹⁷⁾; 實可謂馬祖毓龍子, 東海掩西河焉.

論曰:

麟史²⁹⁸⁾不云乎? 『公侯之子孫, 必復其始²⁹⁹⁾』, 則昔武烈大王爲乙粲時, 爲屠獫狁乞師計, 將³⁰⁰⁾眞德女君命, 陞觀³⁰¹⁾昭陵皇帝, 面陳願奉正朔易服章. 天子嘉許, 庭賜華裝, 受³⁰²⁾位特進. 一日

285) 怒: 힘쓸. '努와 통용. 『廣雅』「釋詁(一)」“怒, 勉也.”

286) 顛頤: 많아서驚歎하는 말. 『史記』 권48, 「陳涉世家」“楚人謂多爲顛”; 同注 “服虔曰, 頤者, 助聲之詞.”

287) 同弗與 異弗非: 같다 해도 허여할 만한 것은 아니요, 다르다 해도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 『禮記』「儒行」“治世不輕, 世亂不沮; 同弗與, 異弗非也”; 同注 “與其所可與, 不必同乎己也; 非其所可非, 不必異乎己也.”

288) 息機: 機心(교사한 마음)을 끊음.

289) 縷褐被者: 누더기 옷과 이불을 입고 덮는 사람. 곧 수행하는 승려를 이른다. 『老子』 제70장 “聖人被褐懷玉”

290) 勤而行之: 『老子』 제41장 “上士聞道, 勤而行之, 中士聞道, 若存若亡, 下士聞道, 大笑之”에서 나온 말.

291) 岐中之岐: 갈림길 속의 갈림길. 敎宗의 言說이 많음을 가리킨다. 『列子』「說符」“楊子之隣人亡羊, 旣率其黨, 又請楊子之豎追之. 楊子曰: 「噫! 亡一羊, 何追者衆?」 隣人曰: 「多岐路. 旣反, 問: 「獲羊乎?」 曰: 「亡之矣.」 曰: 「奚亡之?」 曰: 「岐路之中, 又有岐焉. 吾不知所之, 所以反也.”

292) 踏泥: 인도 선종의 初祖인 迦葉尊者在 祇園精舍를 짓기 위해 손수 진흙을 이겼다는 故事. 慧謨, 『禪門拈頌集』 권3 “迦葉一日踏泥次, 有一沙彌見, 乃問: 「尊者何得自爲?」 迦葉云: 「我若不爲, 誰爲何爲.”

293) 安我: 對偶로 보아 마땅히 ‘我安’으로 되어야 한다.

294) 索居(삭거): 무리와 떨어져서 따로 삼.

295) 坐: 거처함. 『說文 段注』 “古謂坐, 爲居爲處”

296) 誥誥: 많은 모양. 『詩經』, 周南, 「螽斯」 “螽斯羽誥誥兮!”

297) 厥衆濟濟: 앞의 ‘諸孫誥誥’과 對를 이루는 句이므로, 마땅히 ‘厥衆濟濟’가 되어야 할 것임. ‘濟濟’는 많고성한 모양. 『詩經』, 大雅, 「文王」 “濟濟多士, 文王以寧.”

298) 麟史: 『春秋』의 별칭. ‘西狩獲麟’(哀公 14년)을 끝으로 擱筆하였기 때문에 이르는 말. 麟經.

299) 公侯 ~: 『春秋左氏傳』 閔公 元年條에 나옴.

300) 將: ~으로써(以).

301) 陞觀: 대궐의 섬돌 아래서 天子를 알현한다는 말. 天子는 至尊이기 때문에 직접 지칭하는 것을 피하고 섬돌 아래 선 후위병을 불러 아뢰게 했던 데서 비롯되었다. 秦始皇 이후 천자의 존칭으로 사용되어 왔

召諸番³⁰³王子宴, 大置酒, 堆寶貨, 俾恣滿所欲. 王乃杯觴, 則禮以防亂, 繪綵則智以獲多. 泉³⁰⁴辭出, 文皇目送³⁰⁵而歎, 曰: 『國器』及其行也, 以御製并書溫湯晉祠二碑, 暨御撰晉書一部賚之, 時蓬閣³⁰⁶寫是書, 裁竟³⁰⁷二本, 上一錫儲君, 一爲我賜. 復命華資官, 祖道青門外; 則寵之優, 禮之厚, 設瞽盲乎智者, 亦足駭耳目. 自茲吾土一變至於魯³⁰⁸, 八世之後, 大師西學而東化, 加一變至於道; 則莫之與京³⁰⁹, 捨我誰謂? 偉矣哉! 先祖平二敵國, 俾人變外飾, 大師降六魔賊³¹⁰, 俾人修內德. 故得千乘主兩朝拜起, 四方民萬里奔趨; 動必頤使之, 靜無腹非者; 庸詎非應半千³¹¹而顯大千者歟. 復其始之說, 亦何慊乎哉?

彼文成侯爲師漢祖, 大誇封萬戶位列侯, 爲韓相子孫之極, 則□³¹²矣. 假學仙有終始, 果能白日上昇去? 於中止得, 爲鶴背上一幻軀爾; 又焉玼³¹³我大師拔俗於始, 濟衆於中, 潔己於終矣乎?

美盛德之形容, 古尙乎頌, 偈頌類也. 扣寂爲銘, 其詞曰:

可道³¹⁴爲常道 如穿草上露 卽佛爲眞佛 如攬水中月 道常得佛眞 海東金上人 本枝根聖骨 瑞蓮資報身 五百年擇地 十三歲離塵 雜花引鵬路 窾木³¹⁵浮鯨津 【其一】

던 '陛下'는 이로부터 생겨났다고 한다.

302) 受: 문맥상 '授'의 誤書인 듯.

303) 番: 藩國, 藩邦. 番은 '藩'과 통용.

304) 泉(기): 미치다(及). '洎'와 全字.

305) 目送: 이별할 때 떠나가는 사람이 멀리 갈 때까지 바라보며 보내는 것을 말함.

306) 蓬閣: 당나라 때 秘書監(秘監)을 달리 일컫던 말. 국가의 귀중한 문서와 도서를 보관하던 관서.

307) 裁竟: 裁冊하여 마침. 金廷彦撰, 『海美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文』에도, “惠宗嗣位, 寫花嚴經, 三本裁竟”이라 하여, ‘裁竟’이란 말이 보인다.

308) 吾土一變至於魯: 우리 나라(신라)가 一變하여 禮敎 있는 魯나라처럼 되었다는 말. 『論語』「雍也」“子曰, 齊一變, 至於魯, 魯一變, 至於道.”

309) 莫之與京: 비교될 데가 없음. 『春秋左氏傳』莊公 22년 “八世之後, 莫之與京”; 同注 “京, 大也”

310) 六魔賊: 불교에서 이른바 사람의 心性을 더럽히는 六識의 對象界(色·聲·香·味·觸·法)를 六賊(또는 六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六賊’보다 ‘六天魔軍’(佛道を 방해하는 모든 惡事を 비유한 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을 듯하다.

311) 半千: 오백년마다 賢人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룸. 『舊唐書』권190, 『員半千傳』“王義方嘗謂之曰, 五百年一賢, 足下當之矣”

312) □(곡): 人+曲. 작고 보잘 것 없음.

313) 玼(축): 동등함. 『集韻』“玼, 等齊也”

314) 可道: ‘道’라고 할 만한 것. 『老子』제1장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315) 窾木(관목): 속을 파낸 빈 나무. 곧 배를 뜻함.

觀光³¹⁶⁾堯日下³¹⁷⁾ 巨筏悉能捨 先達皆歎云 苦行無及者 沙之復汰之³¹⁸⁾ 東流是天假 心
珠瑩麻谷 目鏡燭桃野³¹⁹⁾ 【其二】

既得鳳來儀³²⁰⁾ 衆翼爭追隨 試覩龍變化 凡情那測知 仁方³²¹⁾示方便 聖住強住持 松
門³²²⁾遍掛錫³²³⁾ 巖徑難容錐 【其三】

我非待三顧³²⁴⁾ 我非迎七步³²⁵⁾ 時行則且行 爲緣付囑故 二王拜下風³²⁶⁾ 一國滋甘露³²⁷⁾
鶴出洞天秋 雲歸海山暮 【其四】

來貴乎葉龍³²⁸⁾ 去高乎冥鴻 渡水陘³²⁹⁾巢父 入谷超朗公³³⁰⁾ 一從歸島外³³¹⁾ 三返遊壺中³³²⁾

316) 觀光 : 다른 나라의 문물 제도를 두루 살펴봄. 『周易』 「觀卦」 “觀國之光, 利用賓于王.”

317) 堯日下 : ‘높이 떠 빛나는 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중국의 넓은 땅을 가리킨다.

318) 沙之復汰之 : 필요하지 않거나 적당하지 않은 것을 줄여 없앴. 沙汰. 淘汰. 『晉書』 권56, 「孫綽傳」 “沙之汰之, 瓦礫在後.”

319) 桃野 : 우리 나라를 지칭한 말. 東方에 桃都山이 있고, 그 산위에 ‘桃都’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삼천리에 뻗었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우리 나라를 ‘桃野’라고 한다. 郭璞, 『玄中記』 “東方有桃都山, 山上有一大樹, 名曰桃都, 枝相去三千里, 上有天雞, 日初出時照此木 : 天雞即鳴, 天下雞皆隨之”

320) 鳳來儀 : 훌륭한 모습을 하고 오는 것의 비유. 『書經』, 虞書, 「益稷」 “籥韶九成, 鳳凰來儀.”

321) 仁方 : 仁은 방위상 東方에 해당되므로, 곧 東方인 신라를 이르는 말. 仁域.

322) 松門 : 소나무로 문을 삼은 집. 곧 절을 이른다.

323) 掛錫 : 錫杖을 걸어두다. 스님이 어느 일정한 곳에 머무름을 이른다. ↔ 巡錫.

324) 三顧 : 三顧草廬의 故事. 인재를 얻기 위하여 끈기 있게 노력하는 임금의 정성을 이른다. 諸葛亮, 「出師表」 “先帝不以臣卑鄙, 猥自枉屈, 三顧臣於草廬之中.”

325) 迎七步 : 옛날에 賓頭盧 尊者가 ‘沙門不敬王者’의 도리를 저버리고 임금을 영접하기 위해 七步를 나아갔다가 七年의 失國을 가져오게 했다는 故事. 여기서는 임금의 뜻에 영합하는 것을 이른다. 『續高僧傳』 권16, 「僧稠傳」 “(北帝文宣帝謁僧稠) 稠處小房, 宴坐都不迎送. 弟子諫曰, 皇帝降駕, 今據道不迎, 衆情或阻. 稠曰, 昔賓頭盧迎王七步, 致七年失國. 吾誠德之不逮, 未敢自欺, 形相冀獲福於帝耳.”

326) 下風 : 아랫 바람. 흔히 신하를 비유할 때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무염국사를 지칭한다. 『春秋左氏傳』 僖公 15년 “晉大夫三拜稽首曰, 君履后土, 而戴皇天. 皇天后土, 實聞君之言. 群臣敢在下風.”

327) 甘露 : 범어 ‘Amrta’를 번역한 말. 切利天에 있다는 단 靈液으로, 한 방울만 먹어도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살아 있는 사람은 長壽할 수 있으며, 죽은 이는 昇天한다고 한다. 대개 부처의 敎法을 비유할 때 자주 쓰인다.

328) 葉龍(섭룡) : 葉公好龍의 故事.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는 似而非를 이른다. 『新序』 권5, 「雜事五」 “君之好士也, 有似葉公子高之好龍也. 葉公子高好龍, 鈎以寫龍, 鑿以寫龍, 屋室雕文以寫龍. 於是夫龍聞而下之, 窺頭於牖, 拖尾於堂. 葉公見之, 棄而還走, 失其魂魄, 五色無主, 是葉公非好龍也”

329) 陘(협) : 비루함. 또는 비루하게 여김.

330) 朗公 : 중국 前秦 때의 고승인 僧朗을 지칭. 『梁高僧傳』 권5, 「竺僧朗傳」 “竺僧朗, 京兆人也. 朗常蔬食布衣, 志耽人外. 以僞秦符健皇始元年, 移卜泰山, 與隱士張忠爲林下之契. 忠後爲符堅所徵, 朗乃於金輿谷崑崙山中, 別立精舍, 猶是泰山西北之一巖也. 聞風而造者百有餘人. 朗孜孜訓誘, 勞不告倦. 秦主苻堅欽其德, 素遣使徵請, 朗同辭老疾乃止. 堅後沙汰衆僧, 乃別詔曰 : 「朗法師, 戒德冰霜, 學徒清秀, 崑崙一山, 不在搜例」 此谷中舊多虎災, 及朗居之, 猛獸歸伏, 晨行夜往, 道俗無滯. 百姓咨嗟, 稱善無極. 故奉高人至今, 猶呼

群迷漫滅否 至極何異同 【其五】

是道澹無味 然須強飲食 他酌不吾醉 他飧不吾飽 誠衆黜心何 糠名復糶利 勸俗飭身何 甲仁復胄義 【其六】

汲引無棄遺 其實天人師 昔在世間時 舉國成瑠璃 自寂滅歸後 觸地生蒺藜³³³⁾ 泥洹³³⁴⁾ 一何³³⁵⁾ 早 今古所共悲 【其七】

甃石復刊石 藏形且顯跡 鵠塔點青山 龜碑撐翠壁 是豈向來心 徒勞文字視 欲使後知今 猶如今示昔³³⁶⁾ 【其八】

君恩千載深 師化萬代欽 誰持有柯斧 誰倚無絃琴³³⁷⁾ 禪境雖沒守 客塵³³⁸⁾ 寧許侵 雞峯待彌勒 將在東雞林 【其九】

從弟朝請大夫前守執事侍郎賜紫金魚袋 臣崔仁浣奉教書

[번역문]

회남(淮南)¹⁾에서 본국(신라)으로 들어와 국신(國信)²⁾ 조서(詔書) 등을 바친 사신으로, 전에 동면도통순관(東面都統巡官)³⁾ 승무랑(承務郎)⁴⁾ 시어사(侍御史)⁵⁾ 내공봉(內供奉)⁶⁾을

金興谷爲朗公谷也.”

331) 島外 : 半島(신라)의 바깥. 곧 중국을 이르는 말.

332) 壺中(호중) : 神仙 壺公의 '壺中別有天地' 故事에서 나온 말로, 別世界를 이른다. 여기서는 임금이 있는 대궐을 지칭. 『後漢書』 권82(下), 「費長房傳」, 「費長房者, 汝南人也. 曾爲市掾, 市中有老翁賣藥, 懸一壺於肆頭, 及市罷, 輒跳入壺中. 市人莫之見, 唯長房於樓上觀之, 異焉, 因往再拜 奉酒脯. 翁知長房之意其神也, 謂之曰: 「子明日可更來」 長房且日復詣翁. 翁乃與俱入壺中, 唯見玉堂殿麗, 旨酒甘肴, 盈衍其中, 共飲畢而出”

333) 蒺藜(질리) : 蒺藜와 茉莉. 모두 가시 돋친 풀이다.

334) 泥洹 : 涅槃과 같은 뜻. 『南史』 권75, 「顧歡傳」 “泥洹仙化, 各是一術”; 同注 “按, 佛書以涅槃爲泥洹”

335) 一何 : 어찌. ‘一’은 語勢를 강하게 하는 助辭. 『梁高僧傳』 권1, 「釋摩難提」 “…… 因作頌曰, 我生何以晚, 泥洹一何早.”

336) 欲使後知今 猶如今示昔 : 『世說新語』 권4, 「規箴」 “京房稽首曰: 將恐今之視古, 亦猶後之視今也.”; 王羲之, 「蘭亭記」 “後之視今, 亦猶今之示昔.”

337) 無絃琴 : 줄없는 거문고. 陶淵明의 故事에서 나온 말로, 비록 줄이 없어도 자기가 나타내려는 소리를 상대방의 마음 속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의 비유. 『宋書』 권93, 「陶潛傳」 “潛不解音聲, 而畜素琴一張無絃. 每有酒適, 輒撫弄以寄其意.”

338) 客塵 : 번뇌를 이룸. 『維摩經』 「問疾品」 “菩薩斷除客塵煩惱.”

1) 鎮 이름. 지금의 江蘇省과 安徽省 부근. 당나라 至德(756~758) 연간에 淮南節度使를 두었다.

2) 두 나라 사이에 사신을 통할 때 징표로 삼는 符節이나 문서.

3) ‘都統’은 唐末 黃巢의 亂 때 叛賊을 치기 위하여 두었던 諸道行營都統을 이르고, ‘巡官’은 節度使觀察使 團練使 防禦使 등의 屬官으로 서열은 判官 推官의 다음이었다. 당시 회남절도사 高駘(821~887)이

지냈으며, 자금어대(紫金魚袋)⁷⁾를 하사 받은, 신(臣) 최치원 왕명을 받들어 찬술함.

당나라가 무력(武功)으로써 [黃巢의] 반란을 평정하고 연호를 ‘문덕(文德)’으로 고치던 해(888), 11월(暢月) 22일(月缺之七日) 해가 함지(咸池)에 잠길 무렵, 우리 나라 두 조정⁸⁾의 국사(國師) 선화상(禪和尚)이 목욕을 마치고 가부좌(跏趺坐)를 한 채 세상을 떠났다. 온 나라 백성이 두 눈을 잃은 것처럼 했거늘,⁹⁾ 하물며 문하의 여러 제자들이야.

아아! 이 땅에 사신 것이 89년이요, 불계(佛戒)를 좇으신 것이 65년이다. 세상을 떠난 지 사흘이 되었음에도 승좌(繩座)¹⁰⁾에 의지하여 위(威儀)가 장엄하시며, 얼굴이 산 사람과 같았다. 문인 순예(詢父) 등이 소리내어 울면서 유체(遺體)를 받들어 선실(禪室) 안에 임시로 모셨다. 임금(진성여왕)께서 들으시고 크게 슬퍼하시며, 과발꾼(馱)을 보내 글월로 조상(弔喪)하시고 곡식으로 부의(賻儀)하셨으니, 청정(淸淨)한 공양에 이바지하여 돌아가신 이의 현복(玄福: 冥福)이 넉넉하도록 한 것이다. 2년이 지난 뒤, 돌을 다듬어 층층의 무덤[浮屠]을 높이 쌓았는데, 소문이 옥경(玉京: 王京=慶州)에까지 알려질 정도였다.

보살계를 받은 불제자로서 무주도독(武州都督)이며 소판(蘇判: 迺浪)인 일(鎰)¹¹⁾과, 집사

諸道行營兵馬都統에 임명되었다.

- 4) 隋唐時代 六部에 소속되었던 郎官의 하나로 나중에는 員外郎(候補郎官)으로 불렸다.
- 5) 당나라 때 御史臺에 소속된 벼슬. 御史大夫·御史中丞·侍御史·殿中侍御史의 順으로 되어 있다. 최치원이 귀국할 당시 嶠山의 神에게 올린 제문에서 “維年月日, 淮南入新羅兼送國信等使, 前都統巡官承務郎殿中侍御史內供奉賜緋(銀)魚袋崔致遠等”(『桂苑筆耕集』, 卷20) 운운한 것을 보면 殿中侍御史를 가리킨 듯하다.
- 6) 大殿의 道場에 물품을 조달하는 벼슬.
- 7) 당나라 때 5품 이상 高官에게 내리던 魚袋(허리에 차던 裝飾具)의 하나. 붕어모양으로 만든 붉은 금빛의 주머니로, 3품 이상의 품계(5품 이상은 緋銀魚袋)를 가지거나 特賜를 받은 사람만이 찼으며, 그 속에는 성명을 적은 표신을 넣었다. 당시 신라에서 당나라로부터 이 魚袋制度를 받아들인 사실이 금석문 등 여러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개 경문왕 13년(873) 이후 헌강왕 10년(884) 이전에 魚袋制가 성립하였으며, 고려 光宗 11년(960) 3월 百官의 公服制가 개정될 때까지 행해졌다. 『계원필경집』 卷20, 「祭嶠山神文」에서,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신라로 귀국할 당시에 緋銀魚袋를 佩用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점으로 미루면, 이 紫金魚袋는 신라 조정에서 下賜한 것으로 보인다.
- 8) 景文王과 獻康王朝.
- 9) 백성들이 마치 一朝에 광명을 잃고 암흑세계에 빠진 것처럼 여겼다는 말. 또는 아들을 잃고 슬퍼한 나머지 失明했던 子夏의 ‘喪明之痛」(『禮記』, 「檀弓 上) 故事와 같이 몹시 슬퍼했다는 말로 볼 수도 있다.
- 10) 승려가 앉거나 눕는 데 편리하도록 접었다 폈다 하는 牀의 하나. 의자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交椅라고도 한다. 윗부분을 노끈으로 엮어매었다.
- 11) 金鎰의 傳記는 자세하지 않으나, 「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에 ‘松岳郡太守大奈麻 臣金鎰’이라는 名記가 보이고, 또 「大朗慧和尚塔碑」에 ‘菩薩戒弟子武州都督 蘇判鎰’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진골 귀족으로서, 송악군 태수와 무주도독을 역임했음을 알 수 있다.

시랑(執事侍郎)인 관유(寬柔), 패강도호(溟江都護)인 함웅(咸雄), 전주별가(全州別駕)인 영웅(英雄)은 모두 왕족 자손이다. 왕족답게 임금의 덕을 보좌하면서도, 험난한 세상 [險道]에서 대사의 은혜에 힘입었으니, 어찌 꼭 출가한 뒤라야 입실(入室)¹²⁾할 수 있다고 하겠는가. 그들이 마침내 문인인 소현정서(昭玄精署)¹³⁾의 대덕(大德) 석 통현(釋通賢), 그리고 사천왕사(四天王寺)¹⁴⁾의 상좌(上座)인 석 신부(釋愼符)¹⁵⁾와 더불어 상의하기를 “대사께서 돌아가시니 임금께서도 쉽게 여기셨거늘, 어찌하여 우리들은 풀죽은 마음으로 입을 다물고 스승에게 은혜를 갚을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그제야 승속(僧俗)이 서로 호응하여, 시호를 내려 줄 것과 탐비에 [행적을] 새길 것을 청하였는데, 임금께서 이를 승낙하시고, 잠시 후 병부시랑(兵部侍郎)인 우규(禹珪)에게, 계원(桂苑: 중국)의 사신으로 시어사인 최치원을 불러오게 하였다. 최치원이 봉래궁(蓬萊宮)에 이르러 옥수(玉樹) 같은 사람들을 따라 옥계(玉階)를 오른 뒤, 주렴(珠簾) 밖에 꿇어앉아 명령을 기다렸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인이 된 성주대사(聖住大師)는 참으로 한 부처가 세상에 나오신 것이다. 옛날에 선고(先考) 경문왕과 헌강왕께서 모두 스승으로 섬겨, 오랫동안 국가에 복이 되도록 하셨도다. 나도 처음에 [왕위를] 잘 이어받아 선대의 뜻을 계승하고자 했으나, 하늘은 노성(老成)한 인물을 억지로라도 남겨 두지 않았으니, 더욱 나의 마음을 애석하게 한다. 나로서는 큰 행실이 있는 사람에게 큰 칭호를 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대낭혜(大朗慧: 크게 밝은 지혜라는 뜻)’라는 시호를 추증(追贈)하고, 탐을 ‘백월보광(白月葆光)’¹⁶⁾이라 하노라. 그대는 일찍이 중국에서 벼슬하여 빛나게 귀국한 사람이다. 돌이켜 보건대, 선고 경문왕께서는 국자(國子: 公卿大夫의子弟)들을 뽑아 그들에게 학문을 하도록 명하셨고, 헌강왕께서는 국사(國士: 나라 안에서 뛰어난 선비)들을 돌보시고 예로써 대접하셨으니, 그대는 마땅히 국사의 명(銘)을 지음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라!

12) 禪宗에서 제자가 師僧에게 法門義를 전해 받음을 말하는 것으로 가까운 제자를 비유한 말. 開室이라고도 한다.

13) 僧尼를 總管하던 官署. 持律院이라고도 한다. 중국 北魏의 昭玄寺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신라 때 수용되어 고려 초까지도 계속되었다. 『隋書』卷27, 「百官(中)」에 의하면, “昭玄寺는 불교를 관장한다. 大統 1인과 統 1인, 維那 3인을 임명하고, 功曹(工曹)에 主簿員 1인을 두어 모든 州와 郡縣의 沙門을 관할하게 한다”고 하였다.

14) 지금의 경주시 排盤洞에 있었던 절. 문무왕 19년(679)에 창건되었으며, 四天王寺成典이 설치되었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위치가 높은 사찰이었다.

15) 『深源寺秀澈和尚碑』에 나오는 ‘愼孚’와 같은 인물로 추정된다.

16) 白月葆光: 밝은 달이 그 빛을 감추어 드러내지 않음. 곧 덕망과 지혜를 숨겨서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이른다. 『莊子』「齊物論」 “注焉而不滿, 酌焉而不竭, 而不知其所由來, 此之謂葆光.”

고 하였다. 치원이 사양하여 말하기를

황공하옵니다. 전하께서 실속이 없는 이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글솜씨가 화려하리랴 생각하시어, 글로써 은덕에 보답하라 하시니, 진실로 뜻밖의 천행(天幸)이옵니다. 다만 대사께서는 유위(有爲)의 말세[澆世]에서 무인무과(無因無果)의 신비한 종지¹⁷⁾를 널리 펴서 알리셨는지라, 소신(小臣)의 한도 있는 하찮은 재주로 끝이 없는 큰 행실을 기록하려니, 약한 수레에다 무거운 짐을 싣고, 짧은 줄의 두레박으로 깊은 우물의 물을 퍼내려는 것 같나이다. 혹여 돌이 특이한 말을 한다거나, 또는 거북이 돌아다보는 신조(神助)가 없다면, 결코 산이 빛나고 시내가 아름답도록 할 수 없을 것이며, 도리어 숲이 부끄러워하고 간수(澗水)가 수치스러워 하게 될 것이오니, 글짓는 것을 피하고자 하옵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양을 좋아하는 것은 대개 우리 나라의 풍도¹⁸⁾라서 좋기는 하나, 진실로 비문 짓는 일을 해낼 수 없다면, 과거에 급제한 것(黃金榜)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대는 힘쓸 지어다!

하시고, 갑자기 크기가 방망이 만한 두루말이 한 편을 내어 주시며, 내시(內侍)를 시켜 주고받게 하였다. 그것은 문제자(門弟子)가 올린 행장(行狀)이었다.

다시 생각해 보건대, 중국에 들어가 배운 것은 대사나 내가 피차 다름이 없건만, 스승으로 추앙받는 이는 누구이며, 일꾼 노릇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찌하여 심학자(心學者)는 높고 구학자(口學者)는 수고롭단 말인가. 그러므로 옛날의 군자는 학문하는 것을 삼가서 하였다. 그러나 심학자가 덕을 세웠다면 구학자는 말을 남겼을 것이니, 저 ‘덕’이란 것도 혹 ‘말’에 의지하고서야 일컬어질 것이요, 이 ‘말’이란 것도 혹 ‘덕’에 기대어야 썩지 않고 오래도록 전할 것이다. 일컬어질 수 있다면, ‘마음’이 능히 먼 후래자(後來者)에게 알려질 것이요, 썩지 않는다면 ‘말’ 또한 옛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할 만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게 되었으니, 다시금 어찌 감히 실속 없는 글이라고 굳게 사양만 하겠는가.

비로소 방망이 같은 행장을 뒤적이니, 대사께서 중국에 유학한 해와 신라로 돌아온 해, 불계(佛戒)를 받음과 선리(禪理)를 깨달은 인연, 공경(公卿)과 관리들이 귀의하여 앙모(仰慕)하였던 일, 불전(佛殿)과 영당(影堂)을 개창(開創)했던 일 등은 고 한림랑(翰林郎)¹⁹⁾

17) 無爲法을 말한다. 無爲法은 生住離滅(四相)의 變化가 없는 진리로서 모든 법의 眞實體를 말함이다. 곧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서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존재이다.

18) 『山海經』「海外東經」“君子國，在其北，衣冠帶劍，食獸，使二大虎在旁，其人互讓不爭。”

19) 신라 下代 文翰機構의 하나인 翰林臺의 벼슬 이름. 한림대는 당나라 翰林院에 해당하는 기구인데, 聖

김입지(金立之)²⁰⁾가 지은 성주사비(聖住寺碑)에 자세히 서술되었으며, 부처를 위하고 불손(佛孫)을 위하는 덕화, 임금을 위하고 스승을 위했던 성가(聲價: 평판), 세속을 진정 시키고 불도를 방해하는 마적(魔賊)을 항복시킨 위력, 봉새같이 [수천리를 날아 西國에] 몸을 나타냈다가 [丁令威가] 학이 되어 돌아 온 것과 같은 출처(出處) 등은 태부(太傅)²¹⁾에 추증된 현강대왕께서 손수 지으신 심묘사(深妙寺)²²⁾비에 갖추어 기록되어 있음이 나타나 있었다. 그러므로 부유(腐儒)가 이제 지음에, 마땅히 우리 대사께서 반열반(般涅槃)의 대기(大期: 入寂)에 드신 것과, 우리 임금께서 탐(宰堵波)의 이름을 존송하신 것을 나타내는 데 그칠 따름이다.

입과 손이 이 일을 의논하여 나의 취향에 맞도록 하려 했는데, 그 사이 수제자인 비구(比丘) 스님이 와서 글[齏臼]을 재촉하기에, 나의 이러한 뜻을 말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김입지가 지은 비(聖住寺碑)는 세운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태까지 대사께서 수십 년 동안 남기신 아름다운 행적이 빠져 있으며, 태부왕(太傅王: 현강왕)께서 신묘한 필치로 기록한 것은, 대개 특별한 대우를 나타내 보여준 것일 뿐입니다. 그대의 경우, 입으로는 옛 선현의 글을 완미하였고, 면전에서는 금상(今上)의 명을 받았으며, 귀로는 국사의 행적을 실컷 들었고, 눈으로는 문학생들이 지은 행장을 취하도록 보았을 것이니, 마땅히 널리 기록하고 갖추어 말하여, 반드시 그것을 후생에게 남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일의 시초를 캐내고 종말을 살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을 사모[西笑]하는 사람이 혹 비문을 소매 속에 넣어 가지고 떠나, 중국 사람들의 비웃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매우 다행일까 합니다. 내가 감히 그 이상의 것을 더 구하겠습니까? 그대는 귀찮음을 꺼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였다. [이에] 광노(狂奴)²³⁾와 같은 태도로 얼른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는 초가

德大王神鐘의 銘文 등 금석문 자료에 의하면, 관원으로 郎(후일의 學士)·待詔·書生 등이 있었다. 880년 경 瑞書院으로 개칭하고 學士·直學士制를 둬으로써 문한기구의 중추적인 구실을 하였다.

20) 9세기 무렵에 신라 문한기구에서 활약했던 학자. 헌덕왕 17년(825) 入朝使 金昕을 따라 당나라에 들어간 宿衛學生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그가 빈공과에 급제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신라로 돌아온 뒤 문성왕 17년(855) 한림랑으로서 秋城郡太守를 역임하였고, 『昌林寺無垢淨塔願記』(855)와 현재 碑片이 약간 전하는 「성주사비문」을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日人 大江維時(편), 『千載佳句』에 그의 시 6聯이 실려 있다.

21) 중국 周나라 때 三公(太師·太傅·太保)의 하나. 天子를 도와 德으로 인도한다는 뜻의 벼슬이름이다. 신라 후기의 임금들은 형식상 당나라 황제로부터 太師·太傅·太尉 등으로 책봉되었다.

22) 지금의 충청북도 永同(신라 때는 경상도 尙州에 속함) 白華山에 있었던 절.

23) 중국 後漢 때의 隱士 嚴光을 지칭한 말. 후한의 光武帝(劉秀)가 자신의 즉위 후, 성명을 바꾸고 숨어 지내던 옛 친구 嚴光(자는 子陵)에게 세 번이나 使人을 보내 조정에 나오도록 청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자, 웃으면서 “미친 이의 옛모습”이라 말하고는, 그 날로 친히 嚴光을 찾아가 나오게 하였다고

지붕을 새끼로 졸라매듯이 하려는데,²⁴⁾ 사(師: 上足苾芻)께서는 채소를 파는 사람처럼 하시겠습니까?”²⁵⁾”라고 하였다.

마침내 갈팡질팡한 마음[猿心]을 붙들고 억지로 붓을 움직이니, 『한서(漢書)』 「유후전(留侯傳)」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끝부분에 이르기를 “장량(張良)이 임금과 더불어 조용하게 천하의 일을 말한 것이 매우 많았으나, 천하의 존망에 관계되지 않은지라,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대사께서 [이 세상에] 왔다가 가신 동안의 뛰어난 자취들이 별처럼 많으나, 후학들을 일깨우는 것이 아닌 사실은 역시 쓰지 않나니, 내 스스로 반사(班史)²⁶⁾에서 무늬 한 점이나마 엿보았다고 믿으면서 이에 관견(管見)으로 서술한다.

빛이 왕성하고 충실(充實)하여 온 누리[八紘]를 비출 바탕이 있는 것으로는 새벽해보다 고른 것이 없고, 기가 온화하고 무르녹아 만물을 기르는 데 공효(功效)가 있는 것으로는 봄바람보다 넓은 것이 없다. 생각건대 큰바람과 아침해는 모두 동방으로부터 나온 것인즉, 하늘이 이 두 가지 여경(餘慶)을 모으고, 산악이 영성(靈性: 신령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을 내리어, 그로 하여금 군자국(君子國: 신라)에 빼어나 불가에 우뚝 서도록 하였으니, 우리 대사께서 바로 그 분이시다.

대사는 범호가 무염(無染)이며 원각조사(圓覺祖師)²⁷⁾에게 10세 범손²⁸⁾이 된다. 속성은 김씨이며 무열대왕이 8대조이다. 할아버지 주천(周川)은 진골 출신으로 관둥이 한찬(韓粦: 大阿浪)이었으며, 고조와 증조는 나아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을 지냄으로써 다 ‘장상호(將相戶)’로 알려졌다. 아버지의 이름은 범청(範淸)인데, 일족(一族)들이 진골에서 한 등급을 내려 깎았으니²⁹⁾ ‘득난(得難)’이라 한다[原註: 우리 나라에

한다. 『후한서』 卷83, 「嚴光傳」 참조.

24) 글을 간결하게 짓고자 한다는 뜻.

25) 채소를 파는 사람이 이익의 많고 적음을 따지듯 ‘글의 분량이 길고 짧음을 논하려느냐’는 뜻.

26) 『漢書』의 별칭. 『漢書』가 班氏(彪·固·昭)의 所撰이므로 후세에 ‘班史’라고 일컬어졌다.

27) 중국 禪宗의 開祖인 達磨大師(?~528)를 말함. 본래 南天竺 香至國의 제3왕자로서, 梁武帝 때 金陵에 갔다가 뒤에 嵩山의 少林寺에서 9년 동안 面壁坐禪한 끝에 悟道하여 禪宗을 열었는데, 뒤에 당나라 代宗이 ‘圓覺’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28) 十世 法系를 차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達磨 (2) 慧可 (3) 僧璨 (4) 道信 (5) 黃梅弘忍 (6) 六祖慧能 (7) 南嶽懷讓 (8) 馬祖道一 (9) 馬谷寶徹 (10) 聖住無染

29) 골품을 무엇보다도 중시했던 신라 사회에서도 귀족 계급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길이 없어, 부득이 지배계급 내에서 자기도태를 한 예로 보인다. 신라에 의한 統三 이후 중앙 정계를 주도했던 무열왕 계열에서도 특히 金憲昌의 난(822)을 계기로 골품이 강등되거나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세력들이 상당수 있어, 자기 도태가 적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5품이 있다. 성이(聖而)³⁰⁾ · 진골 · 득난은 귀성(貴姓)의 얻기 어려움을 말한다. 「문부(文賦)」(陸機撰)에 말하기를 “혹 쉬운 데서 구하여 마침내 어렵게 여기는 것을 얻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육두품이 수가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³¹⁾은 마치 일명(一命)으로부터 구명(九命)에 이르는 것과 같다. 그 나머지 사품 · 오품이야 말할 것이 없다. 만년에는 검술을 좋아했던 조(趙)나라 문왕(文王)의 옛 일을 따랐다.

어머니 화씨(華氏)가 꿈속에서 긴팔을 지닌 수비천인(脩臂天人)³²⁾이 연꽃을 내려 주는 것을 보고 이내 임신하였다. 얼마가 지난 뒤 거듭 꿈에 호도인(胡道人)³³⁾이 나타나 ‘법장(法藏)³⁴⁾이라고 자칭하면서 십계(十戒)를 주기에 태교(胎敎)로 행하였는데, 열 석 달째 되면서 대사가 태어났다.

[대사] 아해(阿孩)[原註: 방언으로 아이를 이르니 중국말과 다음이 없다] 적에 걷거나 앉을 때에는, 반드시 두 손을 합장하거나 가부좌의 자세를 취하였으며, 여러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모래를 쌓을 때에도, 반드시 불상을 그리거나 탑을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차마 부모님의 슬하에서 하루도 떠나지 못하였다. 아홉 살에 비로소 취학(就學)하였는데, 눈으로 본 것이면 반드시 입으로 외우니, 사람들이 ‘해동의 신동’이라고 일컬었다.

열 두 살을 넘기고 나면서(13세), 구류(九流)³⁵⁾를 비속하게 여기고 불도에 입문하고자 뜻을 두었다. 먼저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 하고는, 울면서 “그렇게 해라!”(原註: ‘예’는 우리말로 허락함이다)고 하였으며, 나중에 아버지를 뵈었더니,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늦게 깨달은 것을 뉘우치고, 웃으며 “좋다!”고 하였다.

드디어 설악산 오색석사(五色石寺)³⁶⁾에서 머리를 깎고 갯빛 옷을 입었으니, 입은 경의

30) 聖骨을 가리킨 듯함. 今西龍, 「新羅骨品聖而考」 『新羅史研究』(1970) 참조.

31) 신라의 귀족은 골품제도에 따른 것인데, 일방 骨로써 구별되고 다른 일방 品(頭品)으로써 구별된다. 『新唐書』 「東夷傳」 <新羅>條에 보이는 ‘第一骨’과 ‘第二骨’은 각각 聖骨과 眞骨을 가리키는데, 骨은 品과 달리 왕족 내지 고위 귀족만이 소유할 수 있었으며, 또 귀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는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귀하였다. 이에 대하여 品은 수가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귀하였으니, 이는 周代에 관작을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최고급을 九命, 최하급을 一命이라 하였던 것과 비슷하다.

32) 三頭와 六臂를 가진 護法天을 말함. 李智冠(편역),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新羅篇』(서울: 伽山文庫, 1994), 179쪽.

33) 서역의 외국 스님을 말함.

34) 阿彌陀佛이 成佛하기 이전의 이름. 法藏菩薩.

35) 중국 漢代에 학술·사상을 아홉 가지로 나누어 일컫던 말. 儒家·道家·陰陽家·法家·名家·墨家·縱橫家·雜家·農家.

(經義)를 해석하는 데 정통했고, 힘은 [불교의] 세운(世運)을 만회하는 데 날랐다. 이 절에 법성선사(法性禪師)³⁷⁾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일찍이 중국에 가서 능가선(楞伽禪)³⁸⁾의 문을 두드렸던 분이였다. 대사께서 수년간 사사(師事)하되, 탐색(探索)함에 조금도 남김이 없으므로, 법성선사가 감탄하여 말하기를

빠른 발로 달린다면, 뒤에 출발하더라도 앞서 도착한다는 것을, 내가 그대에게서 경험했노라. 나는 만족하다. 그대에게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으니, 그대와 같은 사람은 서국(중국)으로 가야 될 것이다!

고 하였다. 그러자 대사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다.

밤중에 새끼줄은 뱀으로 현혹되기 쉽고,³⁹⁾ 허공의 배울[布縷]은 분간하기 어렵다.⁴⁰⁾ 물고기는 나무에 올라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⁴¹⁾ 토끼는 그루터기만 지킨다고 해서 기대되는 것이 아니다.⁴²⁾ 그러므로 스승이 가르친 바와 자기가 깨달은 것에는 서로 뛰어난 것이 있는 법이다. 진실로 구슬이나 불을 얻었다면, 구슬을 머금고 있던 조개나 불을 일으키는 부싯돌쪼미야 버릴 수 있다.⁴³⁾ 무릇 도에 뜻을 둔 사람에게 어찌 정해진 스승이 있겠는가.

36) 지금의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 있었던 절. 寒溪嶺 너머 五色溫泉으로부터 溪流를 따라 위로 약 2km 지점에 그 遺址가 있다. 迦智山派의 開山祖인 道義禪師가 세웠다고 하며, 절 부근에 다섯 빛깔이 나는 돌이 많아서 ‘五色石寺’라고 하였다 한다. 현존하는 유물로는 보물 제497호로 지정된 3층석탑이 있으며, 이 밖에 石獅子와 法堂階段石, 臺石塔材 등이 산재한다.

37)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다. 다만 李能和의 『朝鮮佛敎通史』 上篇, 138쪽에 인용된 「大朗慧和尚碑文」 洪居士註에 의하면, “法性於中夏黃屋山, 學看心法”이라 하여, 그의 禪의 계열에 대해 약간의 시사를 주고 있다. 또 고려 때 天頤은 『禪門寶藏錄』 第22則에서 『無染國師別集』에 실린 「無舌土論」을 轉載하였고, 또 第23則에서 「無染國師行狀」 가운데 “무염국사가 법성선사에게 敎禪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이 이(無舌土論)와 같았다”는 대목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로써 볼 때 무염국사가 법성선사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음을 엿볼 수 있다(李能和, 같은 책 下篇, 14쪽).

38) 초기의 禪이 『楞伽經』을 所依로 한 데서 붙여진 이름. 『능가경』을 所依로 하여 연구와 실천을 전개한 중국 최초의 禪宗을 楞伽宗이라고 한다.

39) 小乘法은 大乘法에 비하여 그 이치나 경지가 卑近하므로 비교적 이해가 빠르지만, 흔히 卑近함에 집착되어 소승법을 佛法의 전부인 양 착각하기 쉽다는 뜻. ‘夜繩’은 소승법을 비유한 것. 法相宗인 唯識家에서는 徧計所執性(제6식), 依他起性(제7식), 圓成實性(제8식) 중 제3인 圓成實性을 轉識得智의 과정에서 大圓鏡智인 최고 지혜를 얻는다고 하며, 識을 三界唯識이라 하여 우주의 주체로 여긴다. 그런데 性宗에서는 徧計를 삼(麻), 依他를 뱀(蛇), 圓成을 노끈(繩) 등의 각각 차별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중생은 노끈을 뱀으로 착각하듯 實相을 두루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李智冠, 앞의 책, 255쪽.

40) 大乘法은 그 이치나 경지가 高尚深遠하여 체득하기가 어렵다는 뜻. ‘空縷’는 대승법의 비유이다.

41) 도란 언어문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

42) 진리란 어느 한 가지 이론을 墨守하여 배움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

43) 조개와 부싯돌은 스승에 비유되었으니, 곧 師弟關係를 말한다.

이윽고, 그 곳을 떠나 부석산(浮石山)의 석등대덕(釋燈大德)에게 화엄(華嚴)을 배웠는데, 하루에 서른 사람이 외울 분량을 감당해 낼 실력이었으니,⁴⁴⁾ 쪽빛풀(藍草)과 쪽두서니풀(茜草)이 제 빛깔을 저상(沮喪)한 것 같았다.⁴⁵⁾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소기(所期)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요당(坳堂)과 배수(盃水)의 비유를 돌이켜 보고 말하기를 “동쪽으로만 머리를 두르고 바라보다가는, 서쪽의 중국(西牆)은 보지 못할 것이다. 바다 건너 중국(彼岸)이 멀지 않은데, 어찌 고토(故土)만을 생각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대사는 선뜻 산에서 나와 바다에 의지하여 중국에 들어갈 기회를 노렸다. 때마침 국사(國使)가 서절(瑞節)⁴⁶⁾을 가지고 천자가 계신 궁궐로 가 뵈올 일이 있게 되자, 그 배에 발을 붙이고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배가 큰 바다 북편에 이르자, 갑자기 풍랑이 일어 성난 듯 뒤집히니, 큰 배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 대사는 심우(心友)인 도량(道亮)과 함께 외쪽 널빤지를 걸터타고 업보의 바람[業風]에 모든 것을 맡겼다. 밤낮없이 반 달 남짓 떠다니다가 검산도(劍山島)⁴⁷⁾에 표착(漂着)하였다. 무릎걸음으로 굽이진 안두(岸頭)에 올라 한참이나 실의에 빠져 한탄하다가 물고기 배속에서 다행히 몸을 벗어났으니, 용의 턱밑에다 거의 손을 들이밀 수 있게 되었다. 내 마음이 구르는 돌과 같지 않거늘, 물러나 다른 것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장경(長慶: 821~824) 초에 이르러, 조정사(朝正使)로 당나라에 들어가는 왕자 혼(昕)⁴⁸⁾이 당은포(唐恩浦)⁴⁹⁾에 배를 댔다. 덧붙여 타고 가기를 청했더니 허락하였다.

44) 覺賢三藏인 佛陀跋陀羅의 고사에서 나온 말. 佛陀跋陀羅는 천재의 기질을 가진 스님으로, 일찍이 17세 때 동학들과 經을 習誦할 때 다른 사람이 한 달에 걸쳐 습송할 것을 하루에 다 習誦하여, 그 스승(鳩婆利)으로부터 “覺賢은 하루에 30명의 몫을 감당해 냈다”는 歎賞을 받았다고 한다. 『梁高僧傳』 卷2, 「佛陀跋陀羅傳」 참조.

45)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남을 비유한 말.

46) 옥으로 만든 符節. 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 信標로 주는 것인데, 제후가 천자에게 직접 朝會하거나 사신을 통해 뵈올 적에는 지참하여야 했다.

47) 黑山島의 별칭. 섬의 모양이 칼처럼 생겼다는 데서 연유한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48) 신라의 정치가(803~849). 성은 金, 자는 泰. 무열왕의 9세손으로, 侍中을 지낸 波珍浪 璋如의 아들이며, 金陽(자는 魏昕)의 從兄이다. 헌덕왕 14년(822)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宿衛하고 그 이듬해 귀국하였다. 귀국 직후 使命을 잘 수행한 공으로 南原太守가 되었고, 그 뒤 여러 번 遷任되어 康州大都督에 이르렀으며, 얼마 안 있어 伊滄에 올라 相國을 겸임하였다. 민애왕 2년(839) 金祐徵(神武王)을 추대한 金陽張保臯의 叛軍이 達句伐에 침입하자, 대장군이 되어 군사 10만 명으로 이를 맞아 싸웠으나 패하였으며, 이후 倭寇에 대한 자책감으로 벼슬을 버리고 小白山에 들어가 승려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여생을 마쳤다. 『삼국사기』 卷44, 「金陽傳附」 참조.

49) 통일신라시대의 지명으로, 지금의 경기도 華城郡 南陽面に 있었던 浦口. 『삼국사기』 卷35, 「地理(二)」 참조.

지부산(之罘山)⁵⁰⁾ 기슭에 도착하고 나서, 먼지의 어려웠던 것⁵¹⁾과 나중의 수월했던 것을 생각해 보고는, 해신(海神)에게 토읍(土揖)⁵²⁾하며 말하기를 “큰 파도 속에서 몸을 자중(自重)하였고, 풍마(風魔)와 잘 싸웠습니다”고 하였다.

출행하여 대흥성(大興城) 남산(南山)의 지상사(至相寺)⁵³⁾에 이르렀는데, 화엄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부석산에 있었을 때와 같았다. 얼굴이 검은 미석(美石)처럼 생긴 노인이 말을 걸고는 “멀리 외계(外界)에서 도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그대에게 있는 부처(佛性)를 체인(體認)하는 것에 비하겠는가?”라고 했는데, 대사는 말이 끝나자마자 크게 깨쳤다.

이로부터 필묵(筆墨)을 버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불광사(佛光寺)에서 여만(如滿)⁵⁴⁾에게 도를 물었다. 여만은 강서마조(江西馬祖)⁵⁵⁾에게 심인(心印)을 받고, 향산(香山) 백상서 낙천(白尙書樂天)⁵⁶⁾의 불문(佛門)의 벗이 된 사람인데도,⁵⁷⁾ 응대(應對)할 때 부끄러운 기색을 띠면서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많이 겪어 보았지만, 이와 같은 신라 분[子]이 있기는 드물었다. 다른 날 중국에서 선(禪)을 잃어버렸을 때 장차 그것을 동이(東夷)에게 묻게 될 것인가”라고 하였다.

50) 중국 山東省 福山縣 동북쪽 바다 가운데 之罘半島에 있는 산. 芝罘山이라고도 쓴다.

51) 제1차로 渡唐遊學을 시도했다가 劍山島에 표류함으로써 실패로 끝났던 일을 말함.

52) 경례법의 일종. 손을 앞으로 내밀되 조금 아래로 내리는 인사법인데, 신에게도 土揖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周制에 의하면 諸侯가 임금에게 揖을 할 때, 王姓과의 同異 및 친척관계의 有無에 따라 각각 달리하는데, 同姓(同姓有親)·異姓(異姓有親)·庶姓(異姓無親)의 세 가지로 구별된다. 그러므로 揖하는 것만 보고도 제후가 왕과 同姓인지, 그리고 친척관계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

53) 중국 陝西省(섬서성) 長安의 終南山에 있는 화엄 계통의 名刹. 신라 문무왕 때 高僧 義相大師(625~702)가 이 절에 있는 智儼大師(606~668, 華嚴宗의 第二祖)를 찾아가 그의 문하에서 화엄학을 공부하였다.

54) 馬祖道一 문하의 傑僧. 洛陽의 嵩山 佛光寺에 주석했다. 그 밖의 행적과 사상 등은 자세히 알 수 없다.

55) 당나라 때의 선승 馬祖 道一(709~788)을 이룸. 속성은 馬. 법명은 道一. 세칭 ‘馬大師’ 또는 ‘馬祖’라 하였다. 漢州 사람으로 선종의 第七祖인 南嶽懷讓에게 心印을 전해 받고, 江西에서 교화활동에 종사하여 ‘江西의 馬祖’라 불렸다. 현종 때 ‘大寂禪師’라는 시호가 내렸다. 중국 선종을 祖師禪으로 대성시켰으며, 선의 일상생활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능가경』과 『화엄경』의 一心思想에 깊은 영향을 받아 ‘卽心卽佛’을 주장하였는데, 이 계통의 선을 洪州宗 또는 江西宗이라고도 한다. 신라말로부터 고려 초에 걸쳐 성립한 九山禪門 가운데 단 하나를 제외한 모든 山門이 마조 도일 계통이다. 『宋高僧傳』 卷 10 참조.

56) 중국 中唐時代의 대표적 시인(772~846). 이름은 居易, 자는 樂天, 호는 香山居士. 벼슬은 刑部尙書에 이르렀다. 문장이 精切하고 시가 平淡하여, 元稹과 이름을 나란히 하였으므로, 세상에서 ‘元白’이라 일컬었다. 대표 작품으로는 長恨歌와 琵琶行 등이 있다. 시문집으로 『白氏長慶集』 50권이 전한다.

57) 『白居易集』 卷70, 「醉吟先生傳」에 “如嵩山僧如滿, 爲空門之友”라는 말이 보인다.

그곳을 떠나 마곡사(麻谷寺)의 보철(寶徹)⁵⁸⁾ 화상도 찾아뵈었다. 힘든 일에 부지런히 종사하여 가리는 바가 없었고, 남들이 어렵게 여기는 것을 자기는 반드시 쉽게 해내니, 못사람들이 그를 눈여겨보고 말하기를 “선문(禪門)에서의 유검루(庾黔屨)⁵⁹⁾와 같은 남다른 행실이다!”고 하였다. 철공(徹公)이 대사의 고절(苦節)을 어질게 여기고는, 일찍이 하루는 대사에게 일러 말하기를

옛날 나의 스승인 마화상(馬和尚: 馬祖道一)께서 돌아가실(訣別) 때 말씀하시기를, “봄꽃만 번성하고 가을에 열매가 적은 것은, 보리수(菩提樹: 道樹)를 오르려는 사람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바이다. 이제 너에게 인가(印可)하니, 다른 날 제자들 가운데 기이한 공로가 있어 봉(封)할 만한 사람이거든 봉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으며, 다시 이르기를 “대법(大法)이 동쪽으로 흐른다는 말⁶⁰⁾은 대개 구참(鉤識: 예언)에서 나왔다. 저 해뜨는 곳 선남자(善男子)의 근성(根性)이 거의 무르익었을 것이니, 네가 만약 동방 사람으로서 눈으로 말할 만한 사람을 얻거든, 잘 이끌도록 하라! 지혜의 물[慧水]로 하여금 바다 건너 구석진 곳(신라)에서 크게 뒤덮이도록 하면, 그 공덕이 알지는 않으리라”고 하셨다. 스승의 말씀이 귀에 쟁쟁한데, 나는 네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 심인(心印)을 주어 동국(東國)에서 선후(禪侯)⁶¹⁾로 으뜸가게 하니, 가거든 조심하고 경건히 행동하라! 나는 지금엔 강서마조(江西馬祖)의 대아(大兒)이나, 후세엔 해동의 대부(大父)가 될 것이므로 선사(先師)에게 부끄러울 것은 없으리라.

고 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안되어 보철화상이 세상을 떠났다. 묵건(墨巾: 黑巾)⁶²⁾을 머리에 쓰고

58) 중국 당나라 때의 禪僧(?~?). 속성은 미상. 출가한 뒤 馬祖道一에게 배워 그의 법을 이었으며, 山西省 蕭州 麻谷寺에 머물면서 禪風을 널리 떨쳤다. 『祖堂集』 卷15, 「麻谷寶徹傳」 참조.

59) 중국 南朝 때 南齊와 梁나라에 출사했던 명신. 자는 子貞이며 벼슬은 散騎常侍를 지냈다. 지극한 효도로 유명하였다. 부친이 병이 드니, “똥맛이 달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의원의 말을 듣고 부친의 똥맛을 보았으며, 그 맛이 달자 깊이 근심한 나머지 북두칠성에게 제 목숨과 바꿔지기를 빌었고,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廬墓를 하면서 過禮할만큼 居喪하였다고 한다.

60) 구체적으로 六祖 慧能(638~713)의 예언을 가리킨다. 예언의 내용은 宋僧 道源이撰한 『景德傳燈錄』 「慧能傳」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혜능이 입적하기 전에 두 가지 예언을 남겼는데, 그 하나는 자신의 死後 5, 6년을 지나 ‘滿’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나이가 자신의 頭骨을 훔쳐 가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시 죽은 뒤 70년을 지나 東方으로부터 두 보살이 와서 자기의 法統을 계승하리라는 것이었다. 馬和尚의 이른바 ‘東流之說’이란 바로 두 번째의 예언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예언은 비록 혜능이 예언한 시기와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나라 불교인이 대부분 직증하였다고 믿어 왔다. 먼저 두골을 훔쳐 가리라는 예언대로 지금의 河東 雙溪寺 六祖頂相塔에 그의 두골이 奉安되었고, 또한 동방의 두 보살로 짐작되는 스님, 즉 無染(800~888)과 梵日(810~889)이 혜능의 법통을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六祖壇經』 「付囑品」 참조.

61) 중국의 禪을 禪의 황제에 비하고, 중국으로부터 신라에 전래된 禪을 ‘선의 제후’에 비유한 것.

이내 말하기를 “뗏목⁶³도 이미 버렸거늘, 배[舟]⁶⁴가 어찌 매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유량함이 바람에 나부끼듯 하였는데, 기세를 막을 수 없었고 뜻을 빼앗을 수도 없었다. 분수(汾水)⁶⁵를 건너고 광산(崞山)⁶⁶을 올랐는데, 고적(古跡)이라면 반드시 찾아 보고, 진승(眞僧)이라면 반드시 만나 보았다. 대저 그가 머물러 있는 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멀리하였는데, 대략은 위험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괴로움을 달게 여김에 있었으니, 사체(四體)를 종[奴虜]처럼 부리되, 일심(一心)만은 임금같이 받든다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오로지 위독한 병든 사람을 돌보며, 고아와 자식 없는 늙은이를 구휼하는 것으로 자기의 임무를 삼았다. 지독한 추위나 더위가 닥쳐,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혹은 손이 트고 발에 얼음이 박히더라도, 게으른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으니, 그의 이름을 들은 사람이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서도 예경(禮敬)을 표하였다. 떠들썩하게 동방의 큰 보살이 되었으니, 그가 30여 년 동안 행한 일이 대개 이러했다.

회창(會昌) 5년(845, 문성왕 7)에 귀국하니, 당나라 황제의 명령⁶⁷에 의한 것이었다.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며 말하기를, “연성벽(連城壁)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실로 하늘이 한 일이니, 이 땅의 행복이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청익(請益)⁶⁸을 하는 사람이, 이르는 곳마다 벼와 삼대가 뻗뻗하게 들어선 것 같았다.

왕성에 들어가 어머니를 뵈오니, 어머니께서 크게 기뻐하며 말씀하시기를

돌이켜 보면, 내가 전일에 꾸 꿈은 곧 우담바라꽃(優曇華)⁶⁹이 한 번 나타난 것이

62) 불가에서居喪할 때 사용하는市. 평상시에는白市.

63)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적 敎說을 비유한 말. 저 언덕을 향하여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준다는 뜻에서 사용되었다. 『金剛經』에서는 “그대들 비구여! 나의 說法이 뗏목의 비유와 같다고 아는 자는 法까지도 마땅히 버릴지어다. 향차 법이 아닌 것에 있어서라(汝等比丘, 知我說法如筏喻者, 法尚應捨, 何況非法)”라고 하였다.

64) 禪宗을 가리킨 듯. ‘筏’와 ‘舟’의 비교를 통해 교종에 대한 선종의 비교 우위를 엿볼 수 있겠다.

65) 중국 山西省에서 발원하여 黃河로 들어가는 汾河를 지칭.

66) 중국 山西省 崞縣의 서남쪽에 있는 산.

67) ‘會昌의 法難’을 말한다. ‘會昌’은 당나라 武宗의 연호(841~846)이다. 武宗은 도교를 惑信한 임금이였다. 그는 측근 道士들의 선동에 의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철저하고 규모가 큰 廢佛을 단행하였는데, 이 폐불사건으로 인해 불교계가 입은 타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비록 폐불을 단행한 그 이듬해 무종이 죽고 선종이 즉위하면서 폐불이 바로 중지되기는 했지만, 이후로는 이전과 같은 불교의 번성을 다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舊唐書』 卷18, 「武宗本紀」에 의하면, “(會昌의 破佛 당시) 파괴된 사원 등이 4,600개사, 이름 없는 사원은 4만여 곳, 환속시킨 僧尼의 숫자는 26만 5천여 명, 몰수된 전답은 수천만 頃, 그리고 사원에 소속된 노비 15만 명이 일반인의 노비로 바뀌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68) 佛家에서 師家에게 특별히 의식을 갖춘 뒤 法益을 청하는 것.

아닐까. 부디 내세(來世)를 제도(濟度)하기 바라며, 내 다시는 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고 하였다.

이내 북쪽으로 떠나 헤아리고 눈여겨보아, 종생토록 몸 붙일 곳(終焉之所)을 골랐다. 때마침 왕자 혼(昕)이 벼슬을 그만두고 산중재상(山中宰相)⁷⁰⁾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나 바라는 바가 합치되었다. 왕자 혼이 이르기를

대사와 저는 함께 용수(龍樹)⁷¹⁾ 을찬(乙粲: 伊漉)을 조상으로 하는데, 대사께서는 안팎으로 용수의 후손이 되시니,⁷²⁾ 참으로 놀라와 저로서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푸른 바다 밖에서 소상(瀟湘)⁷³⁾의 고사를 행하였으니,⁷⁴⁾ 친구(親舊)의 인연치고는 진실로 알지는 않을 것입니다. 웅천주(熊川州: 公州) 서남쪽 모퉁이[坤隅]⁷⁵⁾에 한 절이 있는데, 이는 나의 선조이신 임해공(臨海公)[原註: 先祖의諱는 仁問⁷⁶⁾이다. 당나라에서 獬豸, 즉 고구려를 정벌한 공의 대가로 臨海郡公에 봉하였다]께서 봉지(封地)로 받은 곳⁷⁷⁾입니다.

69) 범어 'Udambara'. 優曇·優曇鉢華·優曇跋羅華 등으로 音譯하는데, 靈瑞 또는 瑞應이란 의미이다. 인도의 전설 가운데 나오는 상징적인 꽃으로 3천년만에 한 번 씩 피며, 이 꽃이 피면 轉輪聖王이 나타난다고 한다. 극히 드물고 좋은 일의 비유이다.

70) 陶弘景의 故事에서 나온 말. 중국 梁나라 때 도홍경이 久容의 句曲山에 은거하면서 自號를 '華陽隱居'라고 하였는데, 조정에서 누차 禮聘하였음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梁武帝가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고 하며, 이로 인해 당시에 도홍경을 일러 '陶隱居' 또는 '산중재상'이라고 하였다 한다.

71) 신라 眞智王의 아들이며, 太宗武烈王의 아버지. 일명 龍春. 伊漉을 지냈다. 진평왕 51년(629)에 대장군으로서 副將인 김유신과 함께 고구려의 娘臂城(지금의 淸州)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바 있다. 皇龍寺九層木塔을 조성할 때 監君이 되어 이 일을 주관하였다. 무열왕이 즉위한 뒤 文興大王에 추봉되었다.

72) 家系로 龍樹(龍春)의 10세손인 동시에 法系로도 龍樹(Nagarjuna, B.C. ?~234)의 후손이 된다는 말이다. 대승불교를 확립한 論師인 龍樹는 『中論』 『大智度論』 등을 저술하고 中道 空思想을 확립하여 보살로 불려졌으며, 선종에서는 西天 二十八祖 가운데 第十三祖로 받아들여진다.

73) 강 이름. 湖南省 洞庭湖 남쪽 零陵 부근의 瀟水와 湘水가 합류하는 곳. 三湘의 하나로 그 부근은 풍경이 빼어나 八景 등 명승이 있다.

74) 해외(중국)에서 소상강을 구경하면서 우연히 서로 만났었다는 말. 또 왕자 昕이 朝正使로 중국에 들어갈 때 무염국사가 같은 배편으로 入唐遊學한 것을 지칭한다고 하는 이도 있다.

75) 藍浦(지금의 保寧市 聖住面)를 가리킴.

76) 무열왕의 次子이며 문무왕의 母弟(629~694). 자는 仁壽. 유능한 외교가로서 羅唐 연합군의 조직을 성공시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668년 고구려를 멸한 공으로 大塚角干에 봉해졌다. 694년 唐高宗이 문무왕의 왕위를 박탈한 뒤, 그를 鷄林州大都督開府儀同三司에 임명하고 신라왕에 봉하였으나, 고종이 곧 취소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唐京에 머물다가 곧 병사하였다. 『삼국사기』 卷44, 「金仁問傳」 참조.

77) 『삼국사기』, 「金仁問傳」에 의하면, 김인문은 무열왕 3년(656) 중국으로부터 돌아와 押督州援(摠)管이 되어 獐山城을 쌓는 등 공을 세웠으며, 그 공으로 무열왕으로부터 食邑三百戶를 하사 받았다고 한다. 또 「金仁問墓碑」에서도 “…… □以千□之雉堞, 高塘似錦越, 夫□ …… 太宗大王, 歡美其功, 特授食邑三百戶”

중간에 겁진화(劫盡火)⁷⁸⁾로 인한 천재(天災)를 입어 절이 반쯤 재가 되어 버렸는데, 어질고 명철한 분이 아니고는 누가 능히 없어진 것을 일으키고 끊어진 것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까. 내키지 않더라도 이 늙은이[朽夫]를 위해 머물러 주실 수 있겠는지요? 라고 하였다. 대사가 대답하기를, “인연이 있으면 머물게 되겠지요”(有緣則住)라고 하였다. 대중(大中: 847~859) 초에 비로소 나아가 거주하고, 또 말끔히 정제하여 그것을 꾸렸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불도가 크게 행해지고, 절은 크게 이루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사방 먼 곳에서 학문하는 길을 묻는 무리들이, 천릿길을 반걸음으로 여기고 찾아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이처럼 문도(門徒)가 번성하게 된 것은 대사께서 마치 종이 처주기를 기다리고,⁷⁹⁾ 거울이 고달픈 줄을 모르는⁸⁰⁾ 것처럼 하였기 때문이다. 온 사람이면 혜소(慧炤)로써 그들의 눈을 이끌어 주고, 법열(法悅)로써 그들의 배를 채워 주지 않음이 없었으며, 굳은 의지 없이 머뭇거리는 것을 깨우쳐 주고, 무지한 습속을 변화시켰다.

문성대왕께서 그가 해 나가는 것이 임금의 덕화(德化)에 유익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듣고는 크게 본받으시었다. 수교(手敎)를 급히 보내 대사를 흠뻑 위로하였으며, 또 대사께서 산중재상(金旰)에게 대답한 네 글자⁸¹⁾를 중히 여기고, 절의 이름⁸²⁾을 ‘성주(聖住)’라고 바꾸어, 이에 대흥륜사(大興輪寺)에 편입, 등록시켰다.⁸³⁾ 대사가 사자(使者)에게 말하기를

절을 ‘성주’라고 이름하셨으니, 절로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용렬한 중을 지극히 총애하시니, 재능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흥을 내어(濫吹) 높은 자리를

라고 하였다. 聖住寺 일대 역시 이 때 食邑으로 받은 곳이라 생각된다.

78) 인간세계를 태워 재로 만들어 버리는 큰 불. 세계가 멸망할 때에는 劫火·劫風·劫水の 三災가 일어난다고 한다.

79) 훌륭한 스승이 제자들의 질문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르치는 것을 비유한 말. 큰 것으로 치면 큰 소리가 나고, 작은 것으로 치면 작은 소리가 난다는 데서 이르는 말이다.

80) 제자들의 질의가 있으면 스승이 반드시 이에 응하여 막힘 없이 풀어 주는 것을 비유한 말. 거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상 그대로를 비춰 주지 않음이 없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81) ‘有緣則住’라고 한 말을 지칭.

82) 성주사의 본래 이름은 ‘烏舍寺’로서 백제 武王 16년(615, 乙亥)에 창건되었다. 1960년부터 ‘烏舍寺’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는 기와 조각이 수합되어 烏舍寺가 聖住寺의 전신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절 부근에 까마귀가 많이 모여들어 ‘烏舍寺’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문헌에 따라 烏舍寺 또는 烏谷寺라고 기록되기도 한 것은 아마도 筆寫 과정에서 ‘舍’자와 비슷한 ‘舍’자나 ‘谷’자로 잘못 쓰여졌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三國遺事』紀異篇, 太宗春秋公條 참조.

83) 신라 때의 巨刹 대흥륜사는 大皇龍寺 등과 함께 成典이 설치되었던 중추적인 寺院으로서, 官寺의 기능을 가지고 불교 교단을 통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眞鑑禪師를 大皇龍寺에 編錄하였던 사실도 이와 비슷한 예라 하겠다.

차지한 느낌입니다. 이는 해조(海鳥)인 원거(鷓鴣)가 바람을 피해 물으로 오자, 봉황새로 잘못 안 참새가 날아들었다는 것에 해당될 만하니, 날씨가 궂을 때 산 속에 숨어 무늬를 운택하게 한다는 표범의 고사(故事)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 때 [즉위 전의] 현안대왕⁸⁴⁾께서 단월(檀越: 施主)이며 말재⁸⁵⁾ 서발한(舒發韓)⁸⁶⁾인 위흔(魏昕)⁸⁷⁾과 더불어 남북상(南北相)[原註: 각각 그 직에 있는 것이 左·右相과 같다]이 되었는데, 멀리서 제자로서의 예를 펴고, 향과 차[茶]를 폐백으로 보내 와, 그것을 받지 않은 달이 없게 하여, [대사의] 명성이 동국에 젖도록 하는 데 이르렀으니, 사류(士流)들은 대사의 선문(禪門)을 모르는 것에 대하여 일세(一世)의 수치로 여길 정도였다.

대사의 발 아래 예를 올렸던[禮足] 사람이면, 물러 나와 반드시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직접 찾아 뵙는 것이 귀로 듣는 것보다 백 배나 낫다. 입에서 말씀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마음에 와 닿았다”고 했는데, 문득 조급하고 사나운 사람들 또한 그 경솔한 버릇을 떨쳐 버리고, 그 사나움을 고치어 착한 도리로 다투어 빨리 달렸다.

현안왕께서 왕위를 이어 받음에 이르러, 교서를 내려 한 말씀 해주실 것을 청하였다. 이에 대사가 대답하기를 “주풍(周豐)이 노공(魯公)에게 대답한 말⁸⁸⁾에 뜻이 담겼습니다. 예경(禮經)에 나타나 있사오니, 청컨대 좌우명으로 삼으소서!”라고 하였다.

태사(太師)에 추증된 선대왕⁸⁹⁾께서 즉위함에 미쳐, 공경하고 중히 여기심이 선조(先朝)

84) 신라 제47대 왕(재위: 857~860). 성은 金, 이름은 誼靖(또는 友靖). 神武王의 異母弟요 문성왕의 숙부로서, 문성왕이 後嗣없이 세상을 떠나자 顧命에 따라 즉위했다. 비문의 내용으로 보아, 현안왕이 등극하기 이전에 오랫동안 서발한의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魏昕과 함께 左·右相처럼 문성왕을 보필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85) 서발한에 대해서 문헌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이 ‘말재’라는 말로 미루어 볼 때, 그 정원이 적어도 1명 이상의 일정한 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똑같은 제1위라 하더라도 次序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것은 마치 제6위의 阿湊이 重阿湊으로부터 四重阿湊까지 次序가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이 점은 大奈麻와 奈麻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86) 신라 17官等 가운데 제1위의 최고 직위. 眞骨만이 오를 수 있었다. 伊伐滄·角干·角榮·舒弗邯·舒發翰 등으로도 쓴다.

87) 신라의 왕족·정치가인 金陽(808~857)의 字. 무열왕의 9대손으로 波珍滄 眞茹의 아들이다. 839년 민애왕을 축출하고 神武王을 추대하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그해 문성왕이 즉위하자 反正의 공로를 인정받아 蘇判으로 倉部令에 임명되고, 이어 딸이 문성왕의 妃(昭明王后)에 봉해졌다. 이후 줄곧 문성왕에게 중용되었으며, 847년 伊滄으로 侍中 겸 兵部令에 이르렀다. 죽은 뒤 舒發翰에 추증되고 태종무열왕의 陵에 陪葬되었다. 『삼국사기』 卷44, 「金陽傳」 참조.

88) 임금에게 禮義·忠信·誠實함이 있어야 백성이 믿고 따른다는 내용의 말. 周豐은 춘추시대 魯나라 哀公 때의 隱士. 『禮記』 「檀弓(下)」, “魯人有周豐也者, 哀公執贄請見之, 而曰不可. 公曰: 『我其已夫使人問焉, 曰: 『有虞氏未施信於民而民信之, 夏后氏未施敬於民而民敬之, 何施而得斯於民也?』 對曰: 『墟墓之間, 未施哀於民而民哀, 社稷宗廟之中, 未施敬於民而民敬. 殷人作誓而民始畔, 周人作會而民始疑. 苟無禮義忠信誠懇之心, 以涖之, 雖固結之, 民其不解乎?』”

에서 뜻함과 같으면서도 날로 더욱 두텁게 하셨으니, 대개 시행할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급히 보내 자문을 구한 뒤에 행하였다.

함통(咸通) 12년(871, 경문왕 11) 가을, 대사에게 곡두서(鵠頭書: 교서)를 급히 보냈다. 전역(傳驛)⁹⁰을 통해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산림(山林)은 어찌 가깝게 하시며, 도성(都城)은 왜 소원(疎遠)히 하십니까?”라고 하였다. 대사께서 생도들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갑자기 진후(晉侯)가 백종(伯宗)⁹¹을 부르듯 하시니, [30여 년간廬山을 나오지 않았던] 원공(遠公)⁹²에게 매우 부끄러운 노릇이다. 그러나 앞으로 도가 행해지게 하려면 좋은 때를 잃어서는 안 되나니, 불타의 부촉(付囑)⁹³을 생각한 까닭에 나는 임금에게 갈 것이다. 고 하였다. 홀연히 일어나 서울[靛下]에 이르러 알현하시니, 선대왕께서 면복(冕服)⁹⁴ 차림으로 경의를 표시하며 왕사(王師)로 삼으셨다. 군부인(君夫人)⁹⁵과 세자 및 태계(太弟)인 상국(相國)[原註: 追奉尊諡하여 惠成大王⁹⁶이라 하였다], 그리고 여러 왕자·왕손들이 둘러싸고 우러르기를 한결같이 하였는데, 옛 가람(伽藍)의 그림 벽에서 서방의 여러 국장(國長: 임금)들이 불타를 모시는 것을 그려낸 형상과 같았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89) 경문왕을 가리킨다. 세상을 떠난 뒤 당나라 황제로부터 太師에 추증되었으며, 일명 '凝王'이라고도 한다 (『韓國金石遺文』, 154쪽). 진성여왕 때 왕명으로 본 비문을 찬술하였기 때문에 진성왕의 선왕인 경문왕을 '선대왕'이라고 한 것이다.

90) 문서를 전달하는 驛站. 宿驛 또는 驛次라고 한다.

91) 중국 춘추시대 쫓나라 大夫. 진나라 梁山이 무너지는 사변이 일어나자, 晉侯가 백종을 불러 사태를 수습코자 하였는데, 이에 백종이 나아가 의견을 개진하니, 晉侯가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春秋左氏傳』 成公 5年條 참조.

92) 東晉 때의 고승 慧遠을 이름. 『梁高僧傳』 卷6, 『釋慧遠傳』에 의하면, “혜원은 廬山에 머물러 있는 30여 년 동안 그의 그림자가 산 밖을 나간 일이 없고, 그의 발자취를 세속에 들여놓은 일이 없었다. 손님을 배웅하기 위해 걸어나올 때에도 언제나 虎溪를 넘은 일이 없었다”고 하였다.

93) 석가는 설법을 끝마친 뒤 청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가려내어 그 법의 유통을 부탁하여 위촉하는 것이 常例였다. 이것을 付囑 또는 囑累, 累教라고 한다. 경문 중에서 付囑하는 일을 말한 부분을 '囑累品' 또는 '付囑段'이라 하는데, 대부분 經의 말미에 있다.

94) 冕旒冠(면류관)과 그 禮服.

95) 백성들이 임금의 아내(王妃)를 일컫는 말. 『論語』 「季氏」 “邦君之妻, 君稱之曰夫人, 夫人自稱曰小童, 邦人稱之曰君夫人”

96) 경문왕의 아우인 金魏弘을 지칭. 『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에 의하면, “今上(景文王-附註)即位十一年(871), 咸通辛卯歲, …… 乃命親弟上宰相伊干魏弘(황수영, 『韓國金石遺文』, 160쪽)이라고 되어 있어, 太弟가 바로 金魏弘임을 알 수 있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진성여왕 2년(888)에 위홍이 죽자 왕이 혜성대왕에 追諡하였다고 했다. 김위홍은 경문왕대부터 진성여왕 초까지 요직을 역임하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나중에는 조카인 진성여왕의 情夫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大矩和尚과 함께 『三代目』이라는 鄉歌集을 엮기도 하였다. 본 碑와 大崇福寺碑에서 김위홍의 존재를 특기한 것은 이 두 비문이 모두 진성여왕의 명에 따라 찬술되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제자가 재주는 없습디만, 글짓기를 조금 좋아합니다. 일찍이 유험(劉勰)의 『문심조룡(文心雕龍)』⁹⁷⁾을 보니 “유(有)에만 머물거나 무(無)만을 지키면, 한갓 편벽된 해석에만 날카롭게 된다. 그러므로 진리의 본원(本源)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은 곧 반야(般若)의 ‘경계(境界)가 끊어진 것’⁹⁸⁾이리라”고 한 말이 있었는데, 그 ‘경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대사께서 대답하시기를 “경계가 이미 끊어져 있다면, 조리(條理) 또한 없을 것입니다.”⁹⁹⁾ 이는 심인(心印)이니 말없이 행할 따름입니다”고 하였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인(寡人)은 진실로 조금 더 배우기를 청합니다”고 하니, 이에 문도(門徒) 중에서 쟁쟁한 사람에게 명하여, 여러 가지를 묻게 하되(更手撞擊), 한 가지씩 차근차근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했는데(春容盡聲), 막힌 것을 해결하고 번거로움을 떨쳐 버리기를, 마치 가을 바람이 어둡침침한 노을을 베어 없애듯 하였다. 이에 임금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대사를 보게 된 것이 늦음을 한탄하며 말씀하시기를 “몸을 공손히 하고 남면(南面)한 사람에게 남종(南宗)¹⁰⁰⁾을 가르쳐 이끌어 주시니, 순(舜)은 어떠한 사람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¹⁰¹⁾”라고 하였다.

이미 궁궐에서 나왔는데도, 경상(卿相)들이 늘어서서 마중하니, 사람들과 말을 나누려 해도 틈이 없었으며, 사서(士庶)들이 붙좃아 따르며 떠받드니, 떠나고자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로부터 온 나라 사람들이 불성(佛性)을 인식하게 되었으니, 이웃의 장로(長老)들도 [寶珠를] 엿보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다.¹⁰²⁾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대사는 새장 안에 갇혀 지내는 것처럼 여기고 바로 도망하 다시피 나왔다. 임금께서도 억지로 머물게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이에 교서를 내렸는데, 상주(尙州)의 심묘사가 서울로부터 멀지 않다 하여 참선하는 별관(別館)으로 할 것을 청하였다. 사양해도 임금께서 들어주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가서 거처하였는데, 비록

97) 중국 南朝 梁나라 때의 학자 劉勰(465~520)이 撰한 문학개론서. 10권 50편. 문장의 體裁와 巧拙을 논했다. 佛家語가 단 두 마디 들어 있을 뿐인데, 이처럼 佛家語가 全無하다시피 한 것은 『文心雕龍』의 不可思議한 것이다.

98) 眞如의 경지는 言說을 떠나 있으니, 言說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境界라는 말.

99) 말이나 글로써 설명할 수 없다는 뜻.

100) 중국 禪宗의 일파. 시조 達磨가 禪思想을 전한 이후, 南北二派로 갈라졌는데, 嶺南의 慧能이 南宗의 開祖이고 嶺北의 神秀가 北宗의 개조이다.

101) 순임금이나 내가 다같은 사람이므로, 분발하고 노력하면 순임금과 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 『孟子』「滕文公(上)」, “舜何人也, 予何人也.”

102) 중생들이 自性의 寶珠를 미처 알지 못했는데, 무염화상이 깨우쳐 알게 되었으므로, 이웃의 長老들이 알려 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 李智冠(편역), 앞의 책, 193쪽.

잠시 머물더라도 반드시 집을 수리하여 엄연하게 절[化城]의 모습을 갖추게 하였다. 건부(乾符) 3년(876, 헌강왕 2) 봄, 선대왕(경문왕)께서 옥체가 편치 않으셨다.¹⁰³⁾ 근시(近侍)에게 명하되 “빨리 우리 대의왕(大醫王)¹⁰⁴⁾을 맞아 오라!”고 하였다. 사자(使者)가 이르자, 대사께서 말하기를

산승(山僧)의 발이 왕문(王門)에 닿는 것은 한 번이라도 심하다 할 것이니, 나를 아는 이는 ‘성주(聖住)’를 ‘무주(無住)’라고 할 것이요, 나를 모르는 이는 ‘무염(無染)’을 ‘유염(有染)’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우리 임금님과과는 향화(香火)로써 맹세한 인연이 있고, 또 [앞으로] 도리천(忉利天)¹⁰⁵⁾으로 갈 날이 정해져 있으니, 어찌 한 번의 작별이야 나누지 않으랴.

라 하고는, 다시 걸어서 왕궁에 이르렀다. 약언(藥言)과 잠계(箴戒)를 베풀었더니, 깨어난 가운데 환후(患候)가 나아 온 나라에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달을 넘기고는 헌강대왕께서 익실(翼室)에 거처¹⁰⁶⁾하시게 되었다. 우시면서 왕손 훈영(勳榮)¹⁰⁷⁾을 통해 대사에게 뜻을 알리시되

고(孤)¹⁰⁸⁾가 어려서 부왕의 상을 당하여 정치는 능히 주재할 수 없습디만, 임금께 충성을 다하고 부처를 받들어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자 도모하는 것과, 자기 한 몸만 올바르게 하는 것은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대사께서는 멀리 가지지는 말고, 계실 곳은 오로지 고르신 대로 정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대사가 대답하기를

옛 스승으로는 육경(六經)¹⁰⁹⁾이 있고, 오늘의 보신(輔臣)¹¹⁰⁾으로는 삼경(三卿)이 있습니다.

103) 『삼국사기』 新羅本紀에 의하면, 先大王인 경문왕이 同王 15년(乾符 2년, 875) 7월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世子인 헌강왕이 그 뒤를 이어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비문에서는 건부 3년 봄, 즉 공식적으로 헌강왕 2년임에도 경문왕이 아직 在世하였다가, 그해 병으로 세상을 떠남에 따라 비로소 헌강왕이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삼국사기』와 이 비문 가운데 어느 하나는 분명히 착오가 있다.

104) 佛菩薩은 有情한 마음의 병을 잘 다스리는 名醫라고 하여, 비유적으로 존칭하여 醫王이라고 함. 여기서는 무염대사를 가리킨다.

105) 불교에서 말하는 欲界六天의 둘째 하늘. 三十三天이라는 뜻이다. 중앙에 帝釋天이 있고 사방에 각기 8명의 신(八天)이 있어서 모두 三十三天이 된다고 한다.

106) 경문왕이 세상을 떠나 嗣子인 헌강왕이 服喪하는 것을 말함.

107) 일명 勳榮. 문성왕의 從叔. 『國主慶膺造無垢淨塔願記』에 의하면, “監修造使從叔新授康州泗水縣令 金勳榮”이라고 되어 있다(黃壽永, 『韓國金石遺文』, 149쪽).

108) 王侯 자신의 겸칭. 『禮記』 「玉藻」 “凡自稱, 小國之君曰孤”

109) 유교에서 말하는 여섯 가지 경전. 시경·서경·역경·예기·춘추·樂經.

110) 중국 周代의 세 執政大臣. 곧 司徒·司馬·司空을 이룸.

늪은 산승이 무얼 하는 사람이라고, 앉아서 누리[蝗蟲]처럼 땀나무와 쌀을 좀먹겠습니까. 가령 세 글자로 이에 남겨 드릴 만한 말이 있다면, 바로 ‘능관인(能官人)¹¹¹⁾’이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 이튿날, 등산 복장을 차리고 새처럼 떠나가고 말았는데, 이로부터 역마(驛馬)가 소식을 전하느라고 산중에 그림자를 이었다. 역졸(驛卒)들은 가야 할 곳이 성주사에 해당된 것을 알면, 금새 모두들 떨 듯이 기뻐하며, 손을 모아 말고삐를 고쳐 잡고 왕명을 받고 가는 길이 조그만큼이라도 지체될까 염려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기상시(騎常侍)¹¹²⁾의 동료(同類)들은 임금님의 급한 부름을 받아도 일을 쉽게 행할 것으로 여겼다.

당나라 희종 건부제(乾符帝)가 [현강대왕의] 즉위를 승인하던 해(878), 임금께서는 나라 안의 진언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흥리제해(興利除害)’의 정책을 바치도록 하는 한편, 각별히 우리 나라의 종이(蠻牋)¹¹³⁾를 사용하여 글로써 말씀하시되, “하늘의 은총(天寵)¹¹⁴⁾을 받은 것은 비롯되는 바가 있는 법이다”¹¹⁵⁾고 하였다. 나라에 보탬이 되는 질문을 내리신 데 대하여, 대사는 하상지(何尙之)¹¹⁶⁾가 송(宋)나라 문제(文帝)에게 좋은 일을 하도록 권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간했던 말¹¹⁷⁾을 이끌어 대답하였다. 태부왕(현강왕)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개제(介弟)¹¹⁸⁾이신 남궁상(南宮相: 禮部尙)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삼외(三畏)¹¹⁹⁾는 삼귀(三歸)¹²⁰⁾와 비길 만하고, 오상(五常)¹²¹⁾은 오계(五戒)¹²²⁾와 알맞게

111) 능력 있는 인재를 잘 살펴서 관직에 등용해야 한다는 말. 과거제의 실시를 통해 골품제의 사슬에서 탈피하고자 애썼던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의 주장과 상통하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112) 임금을 侍從하는 벼슬 이름. 후대의 宣傳官과 같은 직책으로, 散騎常侍·武騎常侍·郎騎常侍 등의 관명이 있었던 데서 비롯한다.

113) 우리 나라의 종이는 질이 좋아 삼국시대부터 ‘蠻紙’ 또는 ‘蠻牋’이라고 일컬어졌다. 특히 중국의 서화가들은 고구려에서 생산된 繭紙(견지)를 애호하였다. 王羲之의 蘭亭序는 바로 이 견지에 쓴 것이다. 이로써 보아 晉代에 이미 중국에서 고구려산 종이를 인정했음이 증명된다(彭國棟, 『中韓詩史』 卷3).

114) 원문 ‘天寵’을 당나라 황제의 은총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15)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의미의 말.

116) 중국 南朝時代 송나라 사람. 자는 彥德, 시호는 簡穆. 벼슬은 尙書尙, 開府儀同三司에 올랐으며, 節操와 諫諍으로 명성이 있었다. 『宋書』 및 『南史』 卷30, 「何尙之傳」 참조.

117) 『文昌集』, 『桂苑遺香』 등 일부 주해본에서는 『弘明集』 등을 인용하여, 何尙之가 劉宋(南朝)의 文帝에게 獻可替否했던 말을 摘示하고 있다. 본 비문에서는 何尙之가 한 말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摘示한 말이 그와 符合되는지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단 소개하기로 한다. 원문은 『弘明集』 「何尙之答宋皇帝讚揚佛教事」條와 『梁高僧傳』 卷7, 「釋慧嚴傳」에 보인다.

118) 남의 아우를 높여 부르는 말. ‘介’는 ‘大’의 뜻.

어울리느니라. 능히 왕도를 실천하는 일, 이것이 불심(佛心)에 부합되는 것이니, 대사의 말씀이 지극하도다. 나와 네가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건부제가 서방으로 순수(巡狩)¹²³⁾하던 해(中和元年, 881) 가을, 임금께서 시인(侍人)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라 안에 큰 보주(寶珠)가 있는데, 평생토록 궤(匱)에다 감추어 둔다면 그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하니, 근시가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때로 한 번씩 내어서 그 보배로운 구슬이 많은 백성의 눈을 뜨게 하고, 사방 이웃의 마음을 폭 취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마니(摩尼)¹²⁴⁾’라는 가장 좋은 보배가 있다. 송엄산(崇嚴山)¹²⁵⁾에 빛을 감추고 있으나, 만약 숨겨 둔 것을 열어 놓기만 한다면, 의당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비추어 환하게 할 것이니, 어찌 십이승(十二乘)을 비친 것쯤이야 말할 게 있겠는가. 나의 부왕(父王)께서 간곡하게 맞이하시니, 일찍이 두 번이나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옛날에 소하(蕭何)는 한고조(漢高祖)가 대장(大將)을 임명하면서 어린 아이를 부르는 듯한 처사를 간하였거니와, 한고조가 상산(商山)의 네 노인¹²⁶⁾을 불러들일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제 듣건대, 천자께서 몽진(蒙塵)¹²⁷⁾하셨다 하니, 달려가서 천자의 여러 신하들에게 위문[奔問]¹²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 천자의 재난을 구하는 데 더욱 정성스러운

119) 『論語』 「季氏」편에 나오는, 세 가지 두려워 할 일. 畏天命·畏大人·畏聖人之言을 말한다.

120) 三寶에 돌아가 의지한다는 ‘三歸依’의 준말. 歸依佛·歸依法·歸依僧을 말한다.

121) 유교에서 말하는, 사람의 다섯 가지 기본 도리. 곧 仁·義·禮·智·信을 말한다.

122) 불교에서 지키는 다섯 가지 계율. 一不殺生, 二不偷盜, 三不邪淫, 四不妄語, 五不飲酒를 말한다.

123) 당나라 僖宗이 黃巢의 난(875~884)을 피해, 수도인 長安에서 西蜀으로 蒙塵한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124) 龍王의 腦에서 나왔다고 하는 寶珠. 온갖 재액과 고난을 없애고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한다. 如意珠. 摩尼寶珠.

125) 金立之가 지은 「聖住寺碑片」에서는 ‘崇嚴山’이라 하였고, 崔彦搆가 지은 「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碑文」에서 역시 ‘崇嚴山’이라 하였다. 「성주사사적기」 이외의 거의 모든 자료에서 ‘崇嚴’이라고 한 것을 보면, ‘崇嚴’이 아닌 ‘崇嚴山’이 맞는 듯하다.

126) 商山四皓. 秦漢 교체기에 전란을 피해 商山에 은거한 네 사람의 노인. 곧 東園公·夏黃公·甬里(녹리)先生·綺里季로서, 후일 漢나라 惠帝의 師傅가 되었다. 모두 백발이어서 ‘四皓’로 불려졌으며, 뒷날 隱士를 비유할 때 자주 사용되는 대명사의 하나가 되었다.

127) 임금의 피난을 이룸. 임금이 행차할 때는 도로를 말끔히 청소한 다음에 거동하는데, 난리 통에는 그렇지 못하고 먼지를 뒤집어쓰며 간다는 말이다. 당나라 僖宗이 黃巢의 亂을 피해 西蜀으로 피난을 떠났던 것을 이른다.

것은 부처에게 귀의함이 우선일 것이다. 이제 대사를 맞음에 반드시 세상의 평판에 따를 것이다. 내 어찌 임금이라는 하나의 존귀함을 믿고 연치(年齒)와 덕망의 두 가지 존귀를 겸한 대사에게 거만하겠느냐.

라고 하였다. 이에 사자를 정중히 하고 말씀도 겸손히 하여 부르시니, 대사가 이르기를 외로운 구름이 산의 암굴(巖窟)을 나오는 것이, 어찌 무슨 생각이 있어서이리오. 대왕의 풍덕(風德)에 인연이 있고 보면, ‘고집(집착)함이 없는 것’은 곧 상사(上士)¹²⁹⁾의 도리일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와서 알현하시니, 임금께서 인견(引見)하심은 선조(先朝: 경문왕)의 예와 같았으나, 예에서 한층 빛이 났다.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것으로는

첫째, 임금께서 친히 공양을 올리신 것이요,

둘째, 손수 향을 전하신 것이요,

셋째, 몸·입·뜻의 삼업(三業)으로 세 번이나 경의를 표하신 것이요,

넷째, 작미로(鵲尾爐)¹³⁰⁾를 잡고 생생세세(生生世世)의 인연을 맺으신 것이요,

다섯째, 법호를 더하여 ‘광종(廣宗)’이라 하신 것이요,

여섯째, 그 이튿날 조반(朝班)들에게 명하여 대사께서 머무시는 절[鳳樹]에 나아가 기러기처럼 열을 지어 하례토록 하신 것이요,

일곱째, 나라 안의 시를 연마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사의 귀산(歸山)을 전송하는 시를 짓게 하였는 바, 재가제자(在家弟子)로서 왕손인 소판(蘇判) 역영(嶷榮)이 가장 먼저 시를 지었는데, 거두어 두루말이로 만들고 시독(侍讀)¹³¹⁾이며 한림(翰林: 翰林臺)의 재자(才子)인 박옹(朴邕)¹³²⁾이 인(引)¹³³⁾을 지어 증행(贈行)한 것이요,

128) 奔問이란 당시 신라가 당나라에 대하여 事大外交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대개는 시행해야 했다. 최치원이撰한『桂苑筆耕集』卷10에「新羅探候使朴仁範員外」라는 서한이 있는데, 이는 唐帝가 西蜀으로 피난했을 때, 신라에서 탐후사로 온 박인범 등이 長安으로 가서 公文만 올리고 귀국하려 하자, 당시 唐에 머물고 있던 최치원이 그들에게 西蜀에 있는 唐帝를 뵈고 가라고 권하는 내용이다. 이로 미루어 당시 신라에서 사신을 보내 唐帝를 위문하였음이 분명하다.

129) 보살을 달리 이르는 말. 자기만 해탈코자 하고 남을 해탈시키려 생각하지 않는 이를 中士, 두 가지 모두 생각이 없는 이를 下士라 하며, 自他를 함께 해탈시키고자 생각하는 보살을 上士라 한다.

130) 긴 자루(손잡이)에 까치의 꼬리를 새겨서 만든 향로(柄香爐). 승려가 부처 등에게 예를 올릴 때 사용한다.

131) 신라 때의 벼슬. 唐制와 마찬가지로 임금이나 세자에게 經書 등을 강의하는 직책인 듯함.

132) 여러 註解本에서는, 朴의 직함을 ‘侍讀翰林郎 瑞書院直學士 薩滄(沙滄)’으로 적고 있으며, 또『無染國師年譜』에 의거, 朴이撰한 ‘引’을 실고 있다.

133) 文體의 하나. 성격은 대략 序와 같지만 짧고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여덟째, 거듭 장차(掌次)¹³⁴⁾에게 명하여 정결한 방을 마련토록 하시고 작별을 나누신 것이다.

고별에 임하여 임금께서 묘결(妙訣)을 구하시니, 이에 종자(從者)에게 눈짓하여 진요(眞要)를 들려주라고 하였다. 순예(詢父)·원장(圓藏)·허원(虛源)·현영(玄影)과 같은 이는 사선(四禪)¹³⁵⁾ 중에서 청정(淸淨)¹³⁶⁾을 얻은 자로서, 자기의 지혜를 실에서 뽑듯이 하여 그 종지를 섬밀하게 나타냈는데, 뜻을 기울여 소홀함이 없었고, 임금의 마음을 계발함에 여유가 있었다. 임금께서 매우 즐거워하시며 두 손을 마주잡고 경의를 표하여 말씀하시기를

옛 부왕(父王)께서 증점(曾點)과 같은 현인(賢人)이셨다면, 지금의 과인은 증참(曾參)과 같은 아들이 되기에 부끄럽습니다.¹³⁷⁾ 그러나 임금의 자리를 이어 받아 덕 있는 사람에게 지도(至道)를 얻고, 그것을 받들어 간직함으로써 혼돈세계(混沌世界)의 근본을 열었습니다. 저 위수(渭水) 가의 태공망(太公望)¹³⁸⁾은 참으로 명예를 닦으려는 사람이었으며, 훗다리 위의 장량(張良)¹³⁹⁾도 대개 그러한 자취를 밟았다고 하겠습니까. 비록 임금된 자의 스승이 되었어도, 한갓 세 치의 혀만 놀린 것이니, 어찌 우리 대사께서 말씀하실 때 일편심(一片心)을 은밀하게 전한 것과 같겠습니까. 받들어 주선(周旋)할 것이며 감히 실추(失墜)하지 않겠습니다.¹⁴⁰⁾

고 하였다. 태부왕(현강왕)께서는 평소 중국말[華言]을 잘하시는 터라, 금옥 같은 소리로 여러 사람들이 지껄이며 시끄럽게 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말씀을 하시기만 하면 짝맞

134) 임금의 행차에 관계된 일을 맡아보는 관직.

135) 色界의 天人들이 修行하는 네 가지 禪定. 四精慮라고도 한다. 色界는 欲界를 초월한 淸淨한 세계이지만 아직 물질적 성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세계로 無色界의 아래이다. 선정에 의하여 도달하는 과정으로서, 初禪·第二禪·第三禪·第四禪의 단계로 나눈다. 가장 높은 단계인 第四禪에서는 樂을 느끼는 단계에서도 벗어나 苦와 樂을 초월하게 된다.

136) 第四禪의 '念淸淨' 상태를 가리킴. 정신의 淸淨한 순수성을 얻어 최고의 直觀을 인도케 하는 최고의 선정 상태를 말한다.

137) 스승에게 제자로서의 예를 극진히 했던 曾參의 경우에 비추어 弟子禮를 소홀히 한 임금 자신이 부끄럽다는 말.

138) 周初의 賢相 呂尙을 이름. 姓은 姜, 姜太公이라고도 한다. 문왕이 渭水 가에서 처음 만나 스승으로 섬겼으며, 뒤에 무왕을 도와 殷나라를 滅하고 천하를 평정하여 그 공으로 齊나라에 봉함을 받아 그 시조가 되었다. 저술로 『六韜』가 있다.

139) 중국 前漢의 건국공신(B.C. ?~168) 자는 子房. 韓나라의 世族으로 劉邦의 謀臣이 되어 큰 공을 세웠으며, 한나라 통일 후에 留侯에 봉해졌다. 蕭何·韓信과 함께 漢나라 창업의 삼걸로 일컬어진다.

140) 석가모니가 大涅槃에 들러 할 때, 가섭 등에게 諸法藏(부처의 여러 가르침)의 住持, 弘布를 付囑하면서 결코 실추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한 故事에서 나왔다. 『大唐西域記』卷9, “如來化緣斯畢, 垂將涅槃, 告迦葉波曰: 「…… 我今將欲入大涅槃, 以諸法藏, 囑累於汝, 住持宜布, 勿有失墜。」”

추는 말[儷語]을 이루었는데, 평소에 오랫동안 구상한 것 같았다.

대사께서 왕궁에서 물러 나온 뒤에, 또 왕손인 소판 일(鎰)에게 가서 청함에 응하였다. 함께 이야기하며 몇 차례 말을 주고 받았는데, 대사께서 곧 감탄하고 말하기를

옛날 임금으로서 원체(遠體)¹⁴¹⁾는 있으나 원신(遠神)¹⁴²⁾이 없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 임금께서는 둘 다 갖추시었고, 신하로서 재상이 될 만한 재주[公才]는 있으나 그만한 인망[公望]이 없는 이가 있었는데, 그대는 둘 다 온전하구려. 이 나라는 잘 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마땅히 덕을 좋아하고 자중자애하시구려.

하고는, 산으로 돌아가자마자 곧 세상과의 인연을 끊었다. 이에 임금께서 사자를 보내 ‘방생장(放生場)¹⁴³⁾의 경계를 표시하니, 새와 짐승들이 즐거워하였고, 뛰어난 글씨로 ‘성주사’라는 제액(題額)을 쓰니, 용과 뱀이 살아 움직이듯 하였다.¹⁴⁴⁾

성대한 일이 끝나고는 좋은 시절도 덧없이 되었다.¹⁴⁵⁾ 정강대왕께서 즉위하시자, 두 조정에서 총우(寵遇)한 것을 좇아서 행하였다. 승려와 속인을 거듭 사신으로 보내 맞아 오도록 하였으나, 대사는 늙고 병들었다며 사양하였다.

태위대왕(太尉大王)¹⁴⁶⁾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해동의 사표(師表)가 되시고, 덕 있는 사람을 높은 산처럼 우러러 보셨으니, 임금이 되신 지 석 달 동안에 안부를 묻는 사자가 열 번이나 대사에게 다녀갔다. 얼마 되지 않아 대사께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급히 국의(國醫)를 보내 치료하도록 하였는데, 국의가 당도하여 고통의 증상을 물으니, 대사는 슬며시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고 웃으며 “노병(老病)일 뿐이니 번거롭게 치료할 것은 없다”고 하였으며, 조식으로 하루 두 때 죽과 밥[糜糲]¹⁴⁷⁾을 들이되, 꼭 공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린 뒤에 올리도록 했다. 스님들이 대사께서 식력(食力)을 잃을까 염려하여 종채를 맡은 사람에게 살그머니 당부하여 거짓으로 몰래 치도록 하였는데,

141) 遠대한 體度. 곧 長壽함을 이르는 말.

142) 深遠한 정신. 또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神智. 遠體와 遠神은 「大崇福寺碑」에 나오는 ‘神清遠體’의 句와 직결된다. 이는 곧 신라인의 ‘靈肉雙全’ 사상과도 상통한다고 하겠다.

143) 放生하는 장소. 수림금지구역이다. 당시 왕명으로 사찰의 사방에 禁幢, 또는 長生石標 같은 것을 세워 사찰의 경계를 설정함과 동시에, 獵師들의 출입을 막은 예가 많이 있었다.

144) 筆勢가 좋은 草書를 비유한 말.

145) 현강왕의 승하를 말함.

146) 진성여왕. 즉위 후 唐帝가 檢校太尉의 벼슬을 내리고 신라왕에 봉했는데, 「秀澈和尚碑文」에서는 ‘太尉讓王’이라고 하였다.

147) 宋僧 贊寧의 『大宋僧史略』에서는 禪僧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적고 있는데, 식사와 아침에는 죽, 낮에는 밥으로 하루 두 끼만을 먹는 등 절약과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는 修行者의 여러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대사께서는 들창 밖으로 바라보며 그만두도록 명하였다.

장차 열반에 들려고 할 때, 곁에서 시중드는 이에게 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훈(遺訓)을 일깨우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내 나이 이미 팔십을 넘었으니, 죽음[大期]에서 도망하기 어렵다. 나는 멀리 떠나니 너희들은 [禪道]에 잘 안주(安住)하도록 하라! 강(講)하기를 한결같이 하며, [마음을] 지켜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¹⁴⁸⁾ 옛적 [曹參과 같은] 관리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거늘, 오늘의 선(禪)하는 사람들이야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다.

고 하였으며, 영결의 말을 겨우 마치고는 편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대사는 성품이 공손하면서 말을 삼가하여 좋은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하였다. 『예기』에 이른바, “몸[中]은 겸손하고 유순한 듯하며, 말은 나직하고 느린 듯하였다”는 것일진저! 학승(學僧)들에게는 언제나 ‘선사’라고 불렀으며, 손님을 접대할 때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공경을 달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방에 가득한 자비(慈悲)에 못 스님들이 즐거이 따랐다. 닳새를 주기로 하여, 배우러 온 사람에게 의심난 것을 묻도록 하였고, 생도를 깨우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마음이 비록 몸의 주인이기는 하나, 몸은 반드시 마음의 사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음이 걱정일 뿐이다. 도가 어찌 너희에게서 멀리 있겠느냐.¹⁴⁹⁾ 설령 배움 없는 시골뜨기라 하더라도 능히 속세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내가 달리면 [저들도] 반드시 달리게 될 것이니,¹⁵⁰⁾ 어찌 도사(導師)와 교부(敎父)¹⁵¹⁾에 씨 [種]가 있겠느냐.

148) ‘講若畫一 守而勿失’이란 말은 『史記』 권54, 「曹相國世家」에서 나왔다. 조참은 韓信과 함께 漢高祖 劉邦 휘하에서 野戰의 공로가 많았으며, 나중에 재상이 된 뒤에는 秦나라의 잔혹한 통치를 겪었던 백성에게 ‘淸靜無爲’를 골자로 하는 無爲而治의 정치를 펴는 데 힘써, 천하 사람들이 그의 공덕을 칭송하였다고 한다. 당시 백성들이 그의 덕을 기리기 위해 지어 불렀다고 하는 노래는 다음과 같다. “소하가 제정한 법(蕭何爲法) / 밝고 곧기가 한 줄과 같았네(顯若畫一) / 조참이 대를 이어(曹參代之) / 지켜가며 잃지 않았네(守而勿失) / 淸淨無爲의 정책을 펼치니(載其淸淨) / 온 백성이 한결같이 편안하네(民以寧一)” 한편, ‘守而勿失’이라는 말은 道信의 ‘守一不移’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도신의 禪思想은 한 마디로 ‘守一不移’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마음을 하나의 사물에 집중시켜 觀照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도신의 ‘守一不移’의 실천법은 그의 제자인 弘忍의 守心說로 계승되어 한층 더 발전된다. 鄭性本, 『禪의 歷史와 禪思想』, 201~204쪽 참조.

149) ‘道不遠人’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 平常心이 곧 道임에도, 道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馬祖의 이른바 ‘平常心是道’라는 祖師禪의 정의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주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각적인 삶을 영위하라는 메시지라 하겠다.

150) 내가 술선수범하면 아무리 무지몽매한 시골뜨기라 하더라도 결국은 감화를 입어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151) 덕행이 뛰어나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人師. 『老子』 제42장 “吾將以爲敎父” ; 全解 “敎父, 爲師也. 吾將以此爲人師, 以敎天下後世矣.”

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저 사람의 마신 바가 나의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저 사람의 먹은 바가 나의 굶주림을 구원하지 못하는 법이다. 어찌 힘을 다하여 스스로 마시고 먹지 않으랴.¹⁵²⁾ 어떤 이는 교(敎)와 선(禪)을 일러 다르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다르다는] 그 종지를 보지 못했다. 말은 본래 많은 법이니,¹⁵³⁾ 내가 알 바 아니다. 대략 같다 해도 허여할 만한 것은 아니요, 다르다 해도 그른 것은 아닌데, ‘편안히 앉아서 교사(巧詐)한 마음[機心]을 삭히는 것’ 이것은 도를 닦는 사람의 행동에 가까울 것이다.

고 하였다. 그 말씀은 분명하고 도리에 맞으며, 그 뜻은 오묘하면서도 믿음직스러우므로, 능히 심상(尋相)¹⁵⁴⁾을 무상(無相)¹⁵⁵⁾이라 여기게 하고, 도자(道者)¹⁵⁶⁾에게 부지런히 그것(無相의 法)을 행하도록 하여, 갈림길 속의 갈림길¹⁵⁷⁾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대사는 장년(壯年)으로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스스로 낮추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먹는 것은 양식을 달리하지 않았으며, 입는 것은 반드시 균일한 복장이었다. 대개 어떠한 것을 짓거나 수리할 때에는 못 사람보다 앞장서서 일을 하였는데,¹⁵⁸⁾ 매양 말하기를 “가섭조사(迦葉祖師)께서도 일찍이 [祇園精舍를 지을 때] 진흙을 이기신 일이 있거늘, 내 어찌 잠깐이라도 편안히 있겠는가”라고 했으며, 먹을 물을 길어 나르거나, 쉼나무를 지는 일도 더러는 몸소 하였다. 또 말하기를, “산이 나를 위하느라 더럽혀졌는데, 어찌 내가 몸을 편안히 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그가 자기 몸을 다스리고 사물에 힘쓰기 모두 이러한 것들인데, 대사가 어렸을 때 유가(儒家)의 서적을 읽어 남은 맛이 입가에 잠겨 있었으므로, 남과 말을 주고 받을 때 때 운(韻)이 있는 말¹⁵⁹⁾을 많이 썼던 것이다.

152) 실천을 중시하는 선불교에다 경전에 의한 전통적 권위를 배격하지 않는, 禪敎合一의 사상적 일몰을 보인 말이라 하겠다.

153) 원문 語本顯頤를 “(敎宗의) 말이 본래 많지만”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154) 제한된 差別相을 찾는 것. 곧 有相을 가리킨다.

155) 『金剛經』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敎說. 모든 差別相을 여원 無限絶對한 자리이니, 空이나 眞如 등을 형용하는 말이다. 『금강경』 序文에서는 “『금강경』은 無相을 宗으로 하고 無住를 體로 하며, 妙有를 用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無相과 無住는 空觀思想의 실천이다.

156) 佛家에서 출가하여 佛道를 修行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157) 온갖 異說과 대립적인 견해를 말함.

158) 중국 불교에서 출가승이 노동에 힘쓴 예는 道安(312~385)을 비롯하여 역대 『고승전』에 많이 보이고 있다. 불교사를 통관할 때 출가교단에서 노동이 집단적으로 거행된 일은 道信→弘忍으로 이어지는 東山法門이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후일 祖師禪에서는 좌선과 노동이 동일시되어 노동이 정신생활의 실행이자 수행의 하나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는 동산법문으로부터 연원한다고 할 것이다. 鄭性本, 『禪의 역사와 禪思想』, 220쪽 참조.

159) 본문에 나오는 “祖師嘗踏泥, 吾豈暫安栖”에서 ‘泥’와 ‘栖’는 齊韻(上平)이고, “山爲我爲塵, 安我得安身”에

문제자(門弟子)로 이름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2천 명인데,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도량(道場)에 거처한다’고 일컫는 사람¹⁶⁰⁾은 승량(僧亮)·보신(普愼)·순예(詢父)·심광(心光)¹⁶¹⁾이다. 여러 불손(佛孫)이 많고 그 무리가 번성하니, 실로 마조도일이 용의 새끼¹⁶²⁾를 길러서 동해(東海)가 서하(西河)를 덮었다고 이를 만하다.¹⁶³⁾

논(論)하여 말한다. 『춘추』에 이르지 않았던가. “공후(公侯)의 자손은 반드시 그 처음으로 돌아갈 것이라”¹⁶⁴⁾고. 옛날에 무열대왕께서 을찬(乙粲: 伊漑)으로 계실 때, 예맥(獺狃)¹⁶⁵⁾을 무찌르기 위해 군사를 빌릴 계책을 가지고, 진덕여왕의 명령으로 소릉황제(昭陵皇帝: 당태종)를 폐근(陞觀)하였다. 정삭(正朔)을 받들고¹⁶⁶⁾ 복장(服章)을 바꿀 수 있도록 먼전에서 진원(陳願)하였는데, 천자께서 가상히 여겨 허락하시고, 궁정에서 중국식 복장¹⁶⁷⁾을 내리셨으며, ‘특진(特進)¹⁶⁸⁾’이라는 작호(爵號)를 주셨다. 하루는 [황제께서] 모든 번국(藩國)의 왕자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는데, 크게 술자리를 베풀고 온갖 보화를 쌓아 놓은 뒤, 그들에게 마음껏 마시고 가지라고 하셨다. 왕(무열왕)께서는 이에 술드는 것은 예의를 지켜 난망(亂妄)함을 방지하셨고, 화려한 비단을 지혜를 써서 많이 얻으셨다. 하직하고 나오기에 이르러 문황(文皇: 당태종)께서는 눈길 주어 바라보면서 탄복하여 말씀하시기를

서 ‘塵’과 ‘身’은 眞韻(上平)임.

160) 별도로 독립된 道場을 열었던 제자들을 말한다.

161) 崔彦擣 所撰 『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碑文』,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文』에 나오는 ‘深光和尚’과 동일한 인물. 大鏡大師 麗嚴과 法鏡大師 玄暉의 스승. 그의 法脈은 馬祖道一→ 麻谷寶徹→ 聖住無染→ 靈覺深光→ 菩提麗嚴·淨土玄暉의 순이다.

162) 무염대사를 가리킴. 그의 師資傳承의 계통은 馬祖道一→ 麻谷寶徹→ 聖住無染의 순이다.

163) ‘河’는 물의 發源이요 ‘海’는 모든 물이 합치는 곳이니, 곧 佛法이 西河(중국)로부터 전해져 東海(신라)로 모이게 되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164) 공후의 자손은 언젠가는 다시 공후가 된다는 말. 顯祖 뒤에는 반드시 그와 같은 자손이 나오게 되기 마련이라는 뜻이다.

165) 당나라에서 고구려를 일컫던 말.

166) 正은 正月이고 朔은 초하루라는 뜻. 고대 중국에서는 帝王이 새로 건국하면 반드시 曆法을 고쳐 천하에 반포하였는데, 그 曆法이 통치영역에 사용되므로, ‘正朔을 받든다’고 함은 곧 臣民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167) 김춘추가 신라의 衣冠制度를 중국식으로 고치려 한 것을 말하는데, 김춘추는 진덕왕 2년(648)에 당태종으로부터 중국의 官服을 하사받고 돌아와 이듬해부터 중국식 관복을 입게 하였다. 『金仁問墓碑』에서는 “用儀左貂右蟬. 定中國之行禮. 奏聞”운운하여, 담비의 꼬리와 매미의 날개로 장식한 高官의 冠을 중국식 대로 착용하게 하였다고 했다.

168) 원래 漢代에 祭후, 王公, 장군 중 나라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爵號로서,三公의 아래에 해당하였다. 魏晉時代에도 이것을 계승하였으며, 隋唐代에는 散官의 官階로 삼았다. 唐代의 特進은 정2품에 해당한다. 『삼국사기』에는 김춘추가 진덕여왕 2년(金仁問碑에는 진덕여왕 1년, A.D. 647)에 당나라에 들어가 조공을 바치자, 당태종이 特進의 관작을 내렸다고 한다.

“국기(國器)로다!”고 했으며, 신라로 돌아감에 미처서는, 친히 짓고 글씨까지 쓰신 온탕(溫湯)¹⁶⁹⁾과 진사(晉祠)¹⁷⁰⁾의 두 비(碑) 및 어찬(御撰)인 『진서(晉書)』¹⁷¹⁾ 한 벌을 내려 주시니, 그 때 비서감(秘書監)에서 이 글들을 베껴 두 개의 서첩으로 만들어 올렸는데, 하나는 태자(儲君)께 주시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위해 내리셨다. 다시 화자관(華資官)¹⁷²⁾에게 명하여 청문(靑門)¹⁷³⁾ 밖에서 조도(祖道)¹⁷⁴⁾하게 하시니, 각별한 은총과 두터운 예우에는 설령 지혜에 귀먹고 눈먼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한 죽히 듣고 보는 데 놀랄 정도일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가 일변(一變)하여 노(魯)나라처럼 되었고, 팔세(八世) 뒤로 대사가 중국에서 배우고 돌아와 교화하여 더욱 일변함으로써 도에 이르게 되었으니, 비교될 데가 없도다. [우리가] 우리를 버리고 누구를 이르랴.

위대하도다! 선조¹⁷⁵⁾께서 두 적국(敵國)을 평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외면의 복장을 바꾸게 하셨다면,¹⁷⁶⁾ 대사께서는 육마적(六魔賊)¹⁷⁷⁾을 물리쳐 악의 무리로 하여금 내면의 덕을 닦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천승(千乘)의 임금¹⁷⁸⁾께서도 두 조정에 걸쳐 예우하셨고, 사방의 백성들도 만리를 멀다 하지 않고 분추(奔趨)하였다. 움직이면 반드시 그들을 마음대로 부리다시피 하였고, 가만히 있을 때에도 속으로 비방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어찌 오백년마다 현인이 태어난다는 말대로, [대사께서] 대천세계(大千世界)에 몸을 나타냄이 아니겠으며, 앞에서 이른바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한 말 또한 어찌 마음에 차지 않으랴.

169) 溫泉. 陝西省(섬서성) 驪山에 세운 溫泉宮을 가리킨다.

170) 山西省 太原縣의 서남방 懸壺山 기슭에 있는 祠堂. 晉水가 발원하는 곳으로 唐叔虞를 享祀하였다. 唐高祖가 起兵한 뒤 여기서 成事를 기원한 바 있으며, 당태종 貞觀 2년(628)에 碑를 세웠다.

171) 西晉과 東晉의 역사를 기록한 紀傳體의 史書. 모두 130권이며, 唐太宗이 房玄齡·李延壽 등에게 명하여 편찬하도록 했다.

172) 높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顯貴한 벼슬아치.

173) 중국 漢나라 때 세운 長安城 東門(霸城門)을 지칭. 문의 빛이 푸른 데서 연유한다.

174) 여행할 때 길을 떠나기 전에 旅行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로, 이 제사를 지내면 다른 귀신이 범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黃帝의 아들 纁祖(누조)가 여행하기를 좋아하다가 길에서 죽었으므로 후세 사람이 그를 行路神으로 모셨다고 한다.

175)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을 지칭.

176) 선진문명에 접하게 했다는 말.

177) 六天魔軍, 곧 佛道를 방해하는 모든 惡事를 비유한 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당시 藍浦에 들끓었던 群盜를 가리킨다. 「崇巖山聖住寺事蹟記文」을 보면, 藍浦에 들끓었던 도적떼가 무열국사의 문하에 輻輳, 請益하였는데, 마침내 改過遷善하여 出家得道한 사람이 1백여 사람이나 되었다고 한다.

178) 큰 제후국의 임금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경문왕과 헌강왕을 가리킨다.

저 장량(張良)은 한고조(漢高祖)의 군사(軍師)가 되어, [食邑이] 만호(萬戶)에 봉해지고 지위가 열후(列侯)의 반열에 오른 것을 크게 자랑하여, 이를 한(韓)나라 승상의 자손으로서 더없는 일이라고 여겼으나, 이것은 [소인배의] 소루(小陋)한 것이리라. 가령 그가 선도(仙道)를 배움이 시종일관했다라도 과연 능히 대낮에 승천했겠는가. 도중에서 그만 두고 말았으니,¹⁷⁹⁾ 얻은 것이라고는 학의 등 위에 하나의 허망한 몸일 뿐이다. 어찌 우리 대사께서 처음부터 범속(凡俗)에서 벗어났고, 도중에 대중을 제도하며, 마지막까지 자기 몸을 고결하게 한 것과 같겠는가.

성덕(盛德)을 아름답게 형용하는 것을 예로부터 ‘송(頌)’에서 숭상하였는데, 계송(偈頌)¹⁸⁰⁾의 유(類)이다. 적묵(寂默)을 깨고 명(銘)을 짓나니, 그 글은 다음과 같다.

도라고 할 만한 것이 ‘상도(常道)’로 되는 것은
 풀 위 이슬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고
 불도에 나아가 진불(眞佛)이 되는 것은
 물 속에 비친 달을 잡는 것과 같도다.
 도가 뗏뗏한 데다 불교의 진수(眞髓)를 얻은 이는
 해동의 김상인(金上人: 무염)인데
 본 가지는 성골(聖骨)에 뿌리 박았고
 상서로운 연꽃은 태어날 몸에 의뢰하였네.¹⁸¹⁾
 오백년만에 땅을 골라 태어나
 십삼세에 진세(塵世)를 떠나니
 화엄이 불법의 거대한 길로 이끌어
 배를 타고 큰 바다에 뗏다네. [其一]

179) 留侯 張良은 천성적으로 병이 많았기 때문에, 평소 辟穀을 배워 오곡을 먹지 않았고 道引을 행하여 몸을 가벼이 하였다. 그는 늘 公言하기를, “우리 집안은 대대로 韓나라 재상을 지냈는데, …… 지금은 세치의 허로 황제의 軍師가 되어 食邑이 萬戶에 이르고 지위가 제후의 반열에 올랐으니, 이는 평민으로서 는 최고의 지위이다. 나 장량으로서는 매우 만족스럽다. 그러므로 세속의 일일랑 떨쳐 버리고 赤松子(전설 속의 신선)를 따라 고고히 노닐고자 한다”고 하면서 仙道에 침잠하였는데, 高帝가 세상을 떠나고 태자(惠帝)의 母后인 呂后가 억지로 음식을 들도록 권하자 하는 수 없이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참조.

180) 부처 또는 불교의 덕을 찬양하거나 教義를 설명하는 글로서, 두 마디가 한 덩이로 짝을 이루도록 짓는다. 약칭 ‘偈’라고도 한다.

181) 무염대사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가 꿈속에서 긴팔을 지닌 天人으로부터 연꽃을 받았던 사실을 이룸.

중원(中原)을 두루 살펴보고 나서
 큰 방편[巨筏]을 죄다 버릴 수 있었네.¹⁸²⁾
 선달(先達: 高僧)들이 모두 감탄하면서
 고행으로는 따를 사람이 없다고 하였네.
 불교가 도태(淘汰)를 당하게 되어
 신라로 돌아올 기회를 하늘이 주시었네.
 마음의 구슬은 마곡(麻谷: 寶徹)에서 밝았고
 혜안(慧眼)의 거울은 우리 나라를 비추었네. [其二]

이미 봉새가 훌륭한 모습을 하고 오니
 못 새들이 다투어 뒤따랐네.
 시험삼아 용이 변화하는 것¹⁸³⁾을 보라!
 어찌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려 알 것인가.
 우리 나라(仁方)에 방편을 보이시고
 성주사에 힘써 주지(住持)하시었네.
 여러 절(松門)에 두루 석장(錫杖)을 걸어 두심에
 바윗길엔 입추(立錐)의 여지가 없었네. [其三]

나는 임금의 우대를 기대했거나
 임금의 뜻에 영합했던 사람이 아니라네.
 때가 도를 행할 만하면 또한 나가게 되는 것이니
 부처의 부촉(付囑)에 따르기 위한 까닭이라.
 두 임금께서 대사(下風)를 존경하시어
 온 나라가 부처의 교법(教法)에 젖어 들었네.
 학이 [세상에] 나오니 동천(洞天)이 가을이요
 구름이 돌아가니 바다 저편의 산이 저물었어라.¹⁸⁴⁾ [其四]

182) 善知識을 두루 찾아보고 教外別傳을 心得하였음을 가리킨 말. 여기서는 화엄을 버리고 禪에 들었음을 가리킨다.

183) 무염국사가 남긴 여러 異蹟과 說法教化를 용이 千變萬化하는 것에 비유한 말.

184) 학이 나오니 ~ : 무염국사의 出山과 入山이 제때에 이루어졌음을 비유한 말.

나와서는 섭룡(葉龍)¹⁸⁵⁾ 보다 고귀하였고
 돌아가서는 명홍(冥鴻)¹⁸⁶⁾ 보다 고상하였네.
 물을 건너니¹⁸⁷⁾ 소보(巢父)¹⁸⁸⁾ 를 비루하게 여김이요
 골짜기에 들어오니 승랑(僧朗)¹⁸⁹⁾ 을 초월함일세.
 마침내 중국(島外)에서 돌아온 뒤
 세 번이나 궁중에서 놀고 왔다네.
 여러 미혹한 이들은 어지럽게 옳으니 그르니 말하지만
 종극에 이르면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¹⁹⁰⁾ [其五]

이 도(禪道)는 담백하여 맛이 없으나
 모름지기 힘써 마시고 먹어야 하리니
 남이 마신 술에 내가 취하지 못하고
 남이 먹은 밥에 내가 배부르지는 않네.
 대중에게 마음 속의 사특함을 쫓아내도록 깨우치고
 명예와 이욕(利慾)을 거나 쪽정이처럼 여겨야 한다 하였고
 속인에게 ‘몸가짐의 정제’를 어떻게 할지 권면하되
 인(仁)과 의(義)를 갑옷과 투구같이 여겨야 한다고 하였도다. [其六]

185) 葉公好龍의 준말. 섭공이라는 사람이 용을 몹시 좋아하여 집안에다 용을 그려 붙였는데, 막상 용이 내러오자 달아났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름만 좋아하고 실질에 힘쓰지 않는 似而非의 비유이다.

186) 하늘을 높이 나는 기러기. 속세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뜻을 고상하게 갖으면서 모든 危害로부터 멀리 피하는 것의 비유.

187) 대사가 세상에 나음을 비유한 말.

188) 요임금 때의 隱士. 요임금이 許由에게 천하를 禪讓하고자 했는데, 허유는 이를 거절할 뿐 아니라,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潁水에서 자기의 귀를 씻었다. 이 때 소보는 자기의 송아지에게 물을 먹이려 하였는데, 그 물이 허유가 귀를 씻은 물임을 알고는 ‘송아지의 입을 더럽힌다’고 하여, 상류로 끌고 올라가 물을 먹였다고 한다. 『高士傳』, 卷上.

189) 前秦 때의 고승. 京兆 사람으로 일찍이 出家하여 泰山 서북쪽 一隅 崑崙山의 金興谷에 은거하면서, 엄격한 僧規를 가진 僧團을 조직하여 이끌었다. 前秦의 임금 苻堅이 僧團의 부패와 승려의 타락을 막기 위해 沙門을 沙汰시킬 때에도 별도의 조칙을 내려, “승랑법사는 戒德이 얼음과 이슬처럼 淸淨하고, 그 제자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제외한다”고 할 정도였으며, 後秦의 姚興, 燕主 慕容德, 晉孝武帝, 魏主 拓跋珪 등으로부터 所重을 받았다. 이후 은거하는 수도승의 典範이 되었고, 사람들이 그가 머물던 金興谷을 ‘朗公谷’이라고 불렀다 한다.

190) 무염국사 자신이 생각하는 出處進退의 원칙에 결코 조금의 다름도 없었다는 말.

이끌고 지도함에 버리거나 빠트림이 없었으니
 기실은 천인사(天人師)¹⁹¹⁾ 이시라.
 옛날 세간에 계실 적에는
 온 나라가 유리세계(琉璃世界)를 이루더니
 적멸(寂滅)하여 돌아가신 뒤부터는
 발길 닿는 곳마다 가시풀만 돋았구나!
 열반은 어찌 그리 빠르신고.
 지금 사람과 옛사람이 함께 슬퍼하는 바일세. [其七]

탑을 꾸미고 비문을 새겨
 형백(形魄)은 감추고 자취는 드러냈으니
 곡탑(鶴塔)¹⁹²⁾은 푸른 산 속에 한 점 자리하고
 거북이 엮은 비석은 푸른 바위벽처럼 버티고 섰네.
 이것이 어찌 여태까지의 마음이리요?
 부질없이 문자로나마 살피는 데 수고롭지만
 후인들에게 오늘을 알도록 하는 것은
 오늘에서 옛날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라. [其八]

임금의 은혜는 천년토록 깊을 것이요
 대사의 덕화는 만대토록 흠양할 것이라.
 누가 ‘자루있는 도끼’¹⁹³⁾를 잡을 것이며
 누가 ‘줄없는 거문고 소리’¹⁹⁴⁾에 맞출 것인가.
 선(禪)의 경역(境域)은 비록 지킬 것이 없다 하나¹⁹⁵⁾
 어찌 객진번뇌(客塵煩惱)야 침노하게 하리요.
 계족산(雞足山) 봉우리에서 미륵불을 기다렸으니¹⁹⁶⁾

191) 인간과 天界를 인도하는 스승. 부처의 十號 가운데 하나.

192) 鶴塔(곡탑) : 고니처럼 흰 빛을 띤 탑, 또는 鶴林(鶴林: 식가가 入滅한 沙羅雙樹의 숲을 이름)에 세운 탑을 말함. 곧 舍利塔을 이른다.

193) 棟樑이 될 만한 재목을 찍어내는 것.

194) 무염국사의 無生說法을 말함.

195) 禪의 境域이 無染하기 때문에 이르는 말. 無染한 禪의 境域과 무염국사의 범호를 서로 연결시키려는 뜻이 담겨 있다.

장차 동쪽 나라 계림에 길이 계시기를. [其九]

종제(從弟)¹⁹⁷⁾로서 조청대부(朝請大夫)¹⁹⁸⁾ 전 수(守)¹⁹⁹⁾ 집사시랑(執事侍郎)이며 자금어대를 하사받은 신 최인연(崔仁浣)²⁰⁰⁾ 왕명을 받들어 글씨를 쓰다.

6) 5층석탑

- 지정번호 ; 보물 제19호(1963년 1월 21일)
- 위치 :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2 성주사지 내

성주사지의 중심지인 금당지(金堂址)의 불대좌(佛臺座) 중심점에서 앞쪽으로 약 18m 정도 떨어져 있는 5층석탑은 「성주사사적기」의 내용대로 석가여래사리탑(釋迦如來舍利塔)으로 추정되는 탑이다. 성주사지 금당지 뒤의 삼층석탑 3기와 함께 1971년 12월 23일에서 31일까지 단국대 박물관장 정영호 교수와, 문화재 전문위원 홍사준 씨의 주도로 해체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화강암으로 된 이 5층석탑은 전체 높이가 634cm인데, 그 결구(結構) 상황을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단부는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인 높은 2중기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대석(地臺石)은 4각의 각 면이 1개의 장대석(長大石)으로 이루어졌고, 동쪽 부분은 결실되어 해체·복원시

196)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 때, 후계자 迦葉에게 佛法의 弘通을 부촉하면서, 아울러 자기가 입고 있던 金襴袈裟를 티룩보살(慈氏)이 출현할 때까지 지니고 있다가 전해 줄 것을 유언하였다는 故事. 가섭은 이후 계족산에서 줄곧 수도하다가 入滅하였다. 『大唐西域記』 권9, “如來化緣斯畢, 垂將涅槃, 告迦葉波曰: 「我於曠劫, 勤修苦行, 爲諸衆生, 求無上法, 昔所願期, 今已果滿. 我今將欲入大涅槃, 以諸法藏, 囑累於汝, 住持宜布, 勿有失墜. 姨母所獻金縷袈裟, 慈氏成佛, 留以傳付.”

197) 무염의 從弟. 현재 학계에서는 비문의 撰者인 최치원의 從弟로 보는 것이 거의 통설로 되어 있으나, 비문의 성격상 주인공이 아닌 撰者와의 관계를 나타냈을 리는 없다. 朴邕이 撰한 「送無染國師詩集引」(附錄 所收)에서도, 말미에 ‘從弟朝請大夫 前守執事侍郎 賜紫金魚袋 臣 崔仁浣奉詔書’라고 하여, 무염대사의 종제임을 밝히고 있다.

198) 신라 때 사용된 중국식 文散階.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품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199) 품계와 관직이 相應하지 않을 때, 官階와 官職 사이에 붙여 부르는 호칭. 곧 小官으로서 大官을 겸임하거나, 품계가 낮는데 관직이 높을 경우 ‘守’라 칭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는 ‘行’이라고 한다.

200) 崔彦擣(868~944)를 이룸. 慶州 사람으로 初名이 慎之이며, 18세 때 渡唐遊學하여 빈공과에 급제하고, 벼슬을 지내다가 42세 때 귀국했다. 신라에서도 執事侍郎과 瑞書院學士 등을 역임했으나, 신라가 망하자 이름을 ‘彦擣’라고 고친 뒤, 고려에 들어가 太子師傅 등의 벼슬을 지냈으며, 文翰을 담당하였다. 卒後에 文英이라는 시호가 내리고 政臣에 추증되었다. 崔致遠·崔承祐와 함께 신라 말 ‘一代三崔’의 한 사람으로 꼽혔으며, 당시의 대표적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다. 『삼국사기』 卷46과 『高麗史』 卷92의 列傳 참조.

3개의 돌을 깎아 맞추어 만들어 탑의 기울어짐을 방지하였다. 이 지대석 위에 각 면 1~2개의 돌로 하층기단의 대석(臺石), 즉 하대석(下臺石)을 구성했고, 하층기단 면석(面石)은 모두 5개의 돌로 이루어졌는데, 가운데에 탱주(撐柱) 1개, 그 좌우에 우주(隅柱)를 각 1개씩 모각(模刻)하였다.

하층기단의 갑석(甲石)은 4개의 판석(板石)으로 구성되었고, 이 갑석의 상면(上面)에는 각형(角形)-호형(弧形)-각형(角形)의 받침이 모각되어 있고 상층기단의 면석을 받고 있다. 또한 이 갑석은 낙수면이 약간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상층기단의 면석은 4매의 판석으로 되어 있으며, 가운데 탱주 1개, 좌우에



성주사지5층석탑

우주가 각 1개씩 모각 되어있으며, 상층기단 갑석에도 각형과 호형을 안배한 받침을 모각하여 1층 탑신부를 받고 있으며, 갑석의 상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다른 보통의 석탑에서는 상층기단 갑석 받침 위에 1층 탑신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곳 성주사지의 5층석탑 및 3층석탑 3기는 모두 상층기단 갑석과 1층 탑신석 사이에 별도의 판석으로 각형-호형-각형의 3단의 받침을 모각한 받침석을 만들어 끼워 넣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이곳 성주사지의 석탑에서 처음으로 나타나서 통일신라고려시대에 걸쳐 백제지역의 석탑에서 주로 나타나는 백제계 석탑의 한 형식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다.

탑신부는 탑신석(屋身)과 옥개석이 각각 1개의 석재로 구성되어 있다. 1층 탑신석은 좌우에 우주가 모각되어 있고, 옥개석은 하단에 4단의 층급받침이 모각되어 있으며, 상단에는 2단의 받침이 모각되어 있다. 또한 옥개석 낙수면의 가장자리는 직선이지만 양 끝 모서리가 날카롭게 위쪽으로 반전(反轉)되었다. 1층 탑신석의 상면에는 사리장치를 했던 사리공(舍利孔)이 있는데 54cm×55cm×12.5cm의 방형 사리공의 내부는 직경 38cm의 원형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사리장치는 도난당한 상태였다.

상륜부(相輪部)는 현재 노반(露盤)만 남아 있다. 그러나 1914년 찍은 『朝鮮古蹟圖報』에는 복발(覆鉢)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복발은 그 뒤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래 석탑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가 모두 갖추어져 만들어졌으나 현존하는 우리나라 석탑의 대부

분이 상륜부가 결실된 상태이다. 성주사지의 4기의 석탑도 현재 일부 노반만 있고 나머지 상륜부는 모두 결실되어서 상륜부를 포함한 탑의 전체 원형을 알기가 어렵다. 상륜부는 노반, 복발, 양화, 보륜, 보개, 수연, 용차, 보주로 구성되고 찰주에 의해 지탱된다.

이 탑은 높은 2중기단 위에 만들어진 5층석탑인 바 기단부와 그에 이은 옥개석과 탑신석이 완만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체감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우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륜부까지 갖추어졌을 때는 경쾌한 상승감을 엿볼 수 있는 탑이다.

이 탑은 통일신라의 석탑이 3층인 점과 비교하여 백제의 고토(古土)에 세워진 탑이기 때문에 백제탑(정림사지 5층석탑)의 영향으로 5층탑이 되었다고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형식상의 다양성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통일신라가 무너진 뒤 고려시대에는 백제의 고토 지역에 백제의 향수를 달래는 백제계의 석탑이 세워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주사의 중창 시기, 2중기단 양식 등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석탑으로 추정된다.

7) 중앙3층석탑

- 지정번호 : 보물 제20호(1963년 1월 21일)
- 위 치 :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2 성주사지 내

신라는 삼국통일을 달성하고 강력한 국가의 상징으로 튼튼하고 높은 2중기단을 가진 거대한 3층석탑을 탄생시켰다. 통일 초에 거대한 감은사지 3층석탑에서 신라 3층석탑의 정형을 이루었고 불국사 3층석탑에 이르러 3층석탑의 수준이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나 신라 하대에 이르러서도 규모면과 형식면에서 약간의 축소가 있었을 뿐 3층석탑의 기본 양식은 그대로 이어졌다.

성주사지 금당지 뒤의 석탑 3기가 모두 신라 하대 3층석탑인 바 그 중앙에 자리잡은 것이 성주사지 중앙3층석탑이다. 이 탑은 화강암으로 되었고 높이는 현재 410cm인데 결구방식을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단부의 지대석(地臺石)은 여러 개의 장대석(長大石)으로 구성하고 그 상면(上面)에 각형-호형-각형의 3단받침을 모각하여 하대석(下臺石)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성주사지의 다른 탑들은 지대석의 상면에 받침 모각이 없는데, 이 탑에서 가장 특징 있게 표현된 부분이다. 4개의 판석으로 이루어진 하층기단 면석에는 가운데에 1개의 탕주와 좌우에 각 1개씩의 우주가 모각되어 있고 그 위에 경사가 완만한 갑석이 놓여 있다.

이 하층기단의 갑석 상면에도 받침이 모각되어 상층기단 면석을 받고 있다. 상층기단 면석에도 탕주1개 우주 2개가 모각되어 있으며, 그 위의 상층기단 갑석에도 탑신부를 받기 위한 3단의 받침이 모각되었고 완만한 경사가 이루어진 모양이다. 상층기단 갑석과 1층 탑신석 사이에는 이곳의 다른 탑들과 마찬가지로 별석(別石)으로 된, 3단의 받침이 모각된 1매의 받침돌이 끼워져 있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1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개석 하단의 층급 받침도 4단으로 모각되어 있다. 1층 탑신석의 서북쪽 모서리가 파손되었고 남면과 북면에 양각(陽刻)된 문비(門扉-문짝)에 잠금형 및 문



성주사지중앙3층석탑

고리형이 있고 상하좌우에 작은 구슬이 중횡의 일정 간격으로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는 조각이 특이하다. 1층 탑신석 윗면 상부 직경이 22cm, 하부 직경이 12cm, 깊이 12cm의 원구형의 사리공(舍利孔)이 있으나, 사리장치는 도괴된 상태이다.

옥개석의 처마 선은 가운데는 직선으로 되어 있으나 양 끝 모서리에서 날카롭게 위쪽으로 반전하고 낙수면도 호형(弧形)으로 급하게 반전하여 전체적 윤곽이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며, 옥개석 상면에는 1단의 받침이 모각되어 상층 탑신석을 받고 있다. 1층 옥개석과 2층 탑신석의 결구방식이 다른 탑에서는 옥개석 위에 탑신석을 올려놓는 방식인데 이 탑은 1층 옥개석의 상부를 파고 2층 탑신석을 깎아 끼워 맞추어 이동이 되지 않도록 접착시키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상륜부는 원래 아무 것도 없었으나 현재 노반이 1개 있는데 이는 해체 복원시 서탑에 2중으로 올려져 있던 노반 1개를 옮겨 놓은 것이다. 3층 옥개석 위에 한 변이 5cm 깊이 5.5cm의 방형 찰주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실상사 동·서 3층석탑, 봉암사 3층석탑, 보림사 3층석탑 등의 상륜부와 비교해 볼 때 노반, 복발, 양화, 보륜, 보개, 용차, 수연, 보주의 상륜부가 갖추어져 있어 장중한 안정감이 있으면서 경쾌한 상승감이 있는 형태의 탑을 구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석탑은 성주사지의 4기 석탑 중 가장 튼튼하고 안정감 있는 기단부에 날카롭게 반전하는 처마 모서리로 날카로운 윤곽을 가진 옥개석으로 되어 있어 통일신라 석탑의

가장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8) 서3층석탑

- 지정번호 : 보물 제 47호(1963년 1월 21일)
- 위 치 :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2 성주사지 내

성주사지 금당지 뒤의 3기의 석탑 중 서쪽에 있는 탑으로 통일신라 말기의 3층석탑이다.

재료는 화강암이고, 높이는 443cm이며, 비교적 완전하게 남아 있다.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나누어 결구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단부는 여러 개의 장대석으로 이루어진 지대석 위에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의 2중기단이 있다. 하층기단 면석에는 가운데 탕주 1개, 좌우에는 우주가 각 1개씩 모각되어 있으며, 하층기단 갑석은 4매의 판석으로 되어 상면에는 호형과 각형의 받침이 모각되어 상층기단 면석을 받고 있으며, 약간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4매 판석으로 된 상층기단 면석에도 탕주 1개 우주 1개가 모각되어 있으며 상층기단



성주사지서3층석탑

갑석도 상면에 호형 각형의 받침이 모각되고 경사가 완만하게 처리되었다. 이 탑도 상층 갑석과 1층 탑신석 사이에 별석(別石)으로 된 받침돌을 넣었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1개로 되어 있으며, 탑신석에는 양쪽 모서리에 우주가 모각되었고, 1층 탑신부 남북 양측에 문틀이 새겨져 있고, 문에는 자물통이 가운데에 있고 그 아래 좌우에도 자물통이 양각(陽刻)되어 있다. 옥개석의 하단에는 4단의 층급 받침이 모각되고 상단에는 2단의 받침이 모각되어 상층의 탑신석을 받고 있다. 옥개석의 처마 양끝이 반전하고 있다. 1층 탑신석 상면에는 31cm×30.5cm×10cm의 방형 사리공이 있으나 사리장치는 도괴되었다.

상륜부는 노반만 남아 있으나 원형의 찰주공이 직경 8cm, 깊이 15cm로 파여 있고, 노반에도 동일 직경의 구멍이 있는 것을 보면 앞의 중앙 3층석탑등과 유사한 찰주로 지탱되는 상륜부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탑의 특징은 옥개석이나 탑신석 등에 작은 못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탑신부를 조각장식이 있는 금동판으로 덮었던 흔적으로, 통일신라시대 초기 석탑에서는 볼 수 없는 찬란한 수식(修飾)이었고, 탑 장식적인 면에서의 급속한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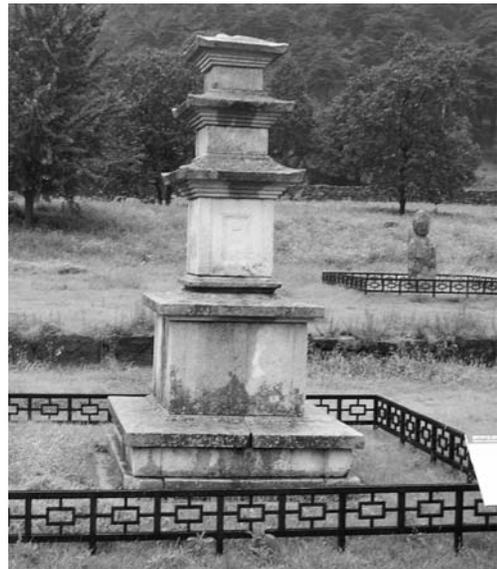
이 탑은 후술할 동탑과 형태나 의미 등의 모든 면에서 거의 흡사한데, 동탑과는 달리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9) 동3층석탑

• 지정번호 : 충청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 26호(1963년 1월 21일)

• 위 치 :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2 성주사지 내 성주사지 금당지 뒤의 3개의 석탑 중 동쪽에 있는 석탑으로 통일신라 말기의 3층석탑이다. 높이가 381cm이고 화강암으로 되었다.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단부는 여러 개의 장대석으로 된 지대석 위에 2층기단을 만들었으며, 4개의 판석으로 된 하층기단의 면석에는 탕주 1개, 우주 4좌에 각 1개씩 2개가 모각 되었으며, 그 위의 하층기단 갑석은 상면에 각형과 호형의 2단 받침이 모각되고, 낙수면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상층기단 면석에도 약간 가는 형태로 우주 2개, 탕주 1개가 모각되었으며 상층기단 갑석도 상면에 각형 호형의 2단 받침이 모각되어 있고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다. 다른 탑과 마찬가지로 1층 탑신석과 상층기단 갑석 사이에 별석으로 된 받침돌이 들어 있다.



성주사지동3층석탑

탑신부의 1층 탑신석에는 서3층석탑에서와 같이 양쪽에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남북 양측면에 문틀이 새겨졌고, 문에는 자물통이 가운데에 있고, 그 아래 좌우에는 문고리 형이 양각되어 있다. 옥개석은 하단에 4단의 받침이 모각되어 있고, 상단에는 2단의 받침이 모각되어 상층의 탑신석을 받고 있다. 또한 옥개석의 처마 양끝이 반전하고 있다.

1층 탑신석 상면에는 42cm×41cm×10cm의 방형 사리공이 있으며 사리장치는 없고 소형 토기 파편과 향목소편(香木小片)이 해체시 발견되었을 뿐이다.

상륜부는 성주사지의 석탑 중 가장 많이 파손된 상태인데 3층 옥개석 상면의 받침 모각이 파손되고 노반도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상면에 직경 8cm, 깊이 9cm의 원형 찰주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앙탑과 같은 형태의 상륜부가 있어 경쾌한 상승감을 주는 석탑으로 추정된다.

이 석탑은 서3층석탑과 거의 모든 면에서 유사하나 보존상태가 약간 좋지 못하다. 성주사지의 3층석탑 3기는 「성주사사적기」가 발견되기 전만 하더라도 사찰의 일반적 구조상 불탑이 아닌 무염대사와 그의 법제문도의 부도탑(승탑)으로 해석하여 왔으나, 「성주사사적기」가 발견되어 이 3기의 석탑이 선광여래사리탑(宣光如來舍利塔), 가섭여래사리탑(迦葉如來舍利塔), 약사여래사리탑(藥師如來舍利塔)으로 알려지면서 불탑임이 명백해졌다.

10)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 파재(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破材)

- 위치 :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2 성주사지 내

1968년 이전까지 이곳 성주사지에는 무염대사의 탑비만 남아 있고 부도가 발견되지 않아서 금당지 뒤의 3기의 3층석탑 중의 하나가 무염대사의 부도인 백월보광탑일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68년 동국대학교 조사단이 성주 5리 이인봉 씨의 제보로 사지(寺址) 서쪽 부도골에서 백월보광탑의 위치를 확인하였으나 이미 그 자리는 명당자리라고 탐낸 사람이 있어 부도를 파괴하고 묘를 조성한 뒤였다. 그러나 조사단은 주변 마을과 계곡에서 부도 파재를 수습하여 백월보광탑으로 추정하게 되었고, 현재는 성주사지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옆에다 옮겨 놓은 상태이다.



성주사지부도파재

이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의 존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최치원이 지은 「탑비」에서는 “(대사의 입적) 2년 뒤 돌을 다듬어 층층의 무덤을 높이 쌓았는데 소문이 옥경(玉京:경주)까지 알려질 정도였다(越二年 攻石封層冢 聲聞玉京).”와, “탑을 꾸미고 비문을 새겨

형혼(形魂)은 감추고 자취는 드러냈으니 고니처럼 흰 사리탑은 푸른 산 속에 한 점 자리하고 거북이 엮은 비석은 푸른 바위벽처럼 버티고 섰네(整石 復刊石, 藏形且顯跡, 鶴塔點 青山, 龜碑撐翠壁).”의 구절이 있다. 그리고 「성주사사적기」의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이 서쪽 산기슭에 안치되어 있다(大郎慧和尚白月葆光塔 安于西麓).”의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곳 사지 서쪽의 부도골에서 발견된 화강암으로 된 흰 파재는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으로 추측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도는 신라 하대 9C에 유행하던 전형적 8각원당형(八角圓堂形) 부도임을 알 수 있고, 아쉬운 대로 대강의 모습을 복원해 볼 수 있다. 이 부도 파재의 크기로 볼 때 9C에 유행하던 다른 산문조사(山門祖師)의 부도탑보다는 작은 규모로 보이며, 전체 높이는 2.5m~3m 정도로 추정된다.

11) 성주사지 일명부도 파재(逸名浮屠破材)

- 위치 : 보령시 성주면 성주5리 부도골

성주5리 부도골 계곡의 상류에서는 화강암으로 된 부도의 옥개석 파재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부도골에 백월보광탑과는 다른, 또 하나의 부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옥개석의 처마 부분은 모두 깨져 결실되었고 8각형의 정상면(頂上面)의 둘레에는 단판복련(單瓣覆蓮)이 새겨져 있는데 많이 마모되었고 상면부의 직경은 20cm, 가운데는 직경 3cm, 깊이 3.5cm의 상륜부를 지탱하기 위한 찰주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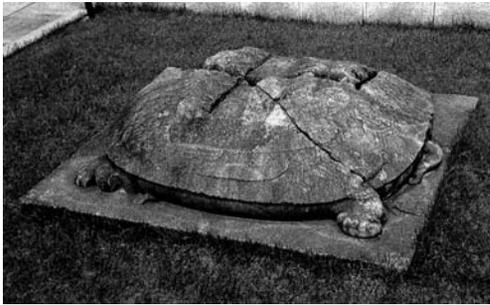
성주사지일명부도파재

있다. 하면에는 8각형으로 된 3단의 괴임이 모각되어 있으며, 현재 옥개석의 직경은 43cm, 높이는 23cm이다.

이것은 성주사지에 있는 백월보광탑의 옥개석과 형태가 아주 비슷하며, 따라서 전체적인 부도의 모양도 크기만 약간 작을 뿐 백월보광탑과 비슷한 8각원당형의 부도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2) 성주사지 이수와 귀부

- 위치 : 부여군 부여읍 부여박물관 내



성주사지 출토 귀부 -부여박물관-



성주사지 출토 이수 -부여박물관-

1960년에 성주사지의 백월보광탑비의 동북쪽에서 2개 분의 귀부(龜趺) 파재와, 1개의 이수(螭首)가 수습되었고, 곧 부여 박물관에 옮겨져서 전시되고 있다.

이수는 3등분된 상태로, 화강암이 재료이며 표면에는 여의주를 문 용문(龍文)과 비운문(飛雲文)을 양각하였고 중앙 전면에는 '日'과 후면에는 '月'을 표현하였다.

귀부는 이수와 비신이 결실된 상태의 화강암 재료이다. 전반적인 크기나 성격 등은 알 수 없으나 거북모양이며, 몸체의 일부인 3/4만이 남아 있으며 곡선을 이룬 배면(背面)에는 귀갑문(龜甲文)이 조각되었고, 몸체 하단에는 밖으로 내민 일족(一足)과 4개의 발가락에 발톱이 조각된 상태이다.

대남해화상백월보광탑비에 나오는 김입지비(金立之碑)의 이수와 귀부로 추정되기도 한다.

13) 성주사지 석등

- 지정번호 :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33호(1979년 7월 7일)
- 위 치 :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2 성주사지 내

통일신라 말기 성주사 창건기에 세워진 신라양식의 석등으로 알려져 있다. 지붕돌(옥개석)에 비해 등불을 두는 화사석(火舍石)과 받침기둥(간석)이 가늘게 만들어졌으며, 팔각형 지붕돌 위의 상륜부가 파손되었다. 높이는 220cm이며 화강암으로 되었다. 파괴되었던 것을 수습하여 지금에 이른다.



성주사지 석등

14) 성주사지 석불입상

- 지정번호 : 문화재자료 제373호(2000년 9월 20일)
- 위 치 :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2 성주사지 내

이 불상의 얼굴모양은 타원형인데 마멸이 심하여 원래의 모습을 알기 어렵다. 머리는 소발(素髮)이며, 정수리 부분의 육계(肉髻) 표현은 뚜렷하지 않다.

왼쪽 귀는 없어지고 코는 시멘트로 때워져 전체적인 인상이 일그러졌지만 비교적 우아하고 세련되게 처리한 흔적이 보인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뚜렷하며, 오른손을 내리고 왼손을 들어 배에 대고 있는 형태이며 손은 결실되었다. 입고 있는 법의(法衣)는 양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식(通肩式)이며, 어깨에서 배까지 U자형의 옷 무늬를 표현하고, 양팔 등에는 계단식 옷 무늬를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불상은 옷 무늬, 신체 등에 표현된 볼륨, 선(線) 처리 기법 등으로 보아 9세기경에 유행한 양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주사지석불입상

15) 성주사지 석계단

- 지정번호 : 문화재자료 제140호(1984년 5월 17일)
- 위 치 :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2 성주사지 내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것으로 성주사의 금당에 오르는 돌계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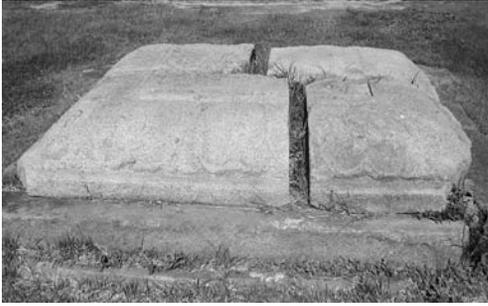
이 석계단 양쪽에는 돌로 사자상을 조각하여 세워 놓았었는데 그 조각 수법이 아주 뛰어나았다. 그러나 이것은 1986년 도난당하고 현재는 계단만 남아 있다.



성주사지 석계단 -도난전-

16) 불대좌(佛臺座)

- 위치 :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2 성주사지 내



성주사지불대좌

성주사지 금당지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남아 있는 불대좌 하대석은 복련부(覆蓮部)의 형태인데 4개이며,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다. 지대석과 받침 등이 모두 장방형인 것으로 보아 간석(杆石)과 상대석이 역시 사각형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철제 불상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지금은 없어진 상태이다.

17) 김입지의 성주사비(金立之 聖住寺碑)

성주사에는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외에도 한림랑(翰林郎) 김입지가 지은 성주사비가 있음이 백월보광탑비의 내용에 보이고 있으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발굴과정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1971년부터 1997년까지 모두 12개의 파편이 수습되어 부여박물관, 충남대박물관, 호림박물관, 동국대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은 불법(佛法)의 시초와 동류지설(東流之說), 백제사찰로서의 성주사, 김인문의 수봉지소(受封之所)와 추선원당(追善願堂)으로서의 신라 중대 성주사, 성주사 창건 과정 및 단월(檀越), 불전(佛殿), 즉 장육세존상(丈六世尊像), 칠조사당(七祖師堂)의 건립과 단월의 시주 등에 관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성주사비는 백제시대 법왕 이래 통일신라시대 김인문의 원당에서 성주사 개창에 이르는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당시 문한(文翰)을 장악하고 있던 한림랑 김입지의 찬(撰)으로 성립된 성주사의 증창을 기념하는 기념비로 추정되고 있다.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의 내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 : 양승률, 『김입지의 성주사비』, 충남대석사학위논문, 1994.

2. 백운사와 부도

1) 백운사(白雲寺)

- 지정번호 : 전통사찰 제62호(1988년 9월 20일)
- 위 치 :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산35
- 소 속 : 조계종

통일신라 시대 범일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또는 무염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조선 시대에도 중창을 거듭하며 오늘날까지 전해온다. 1988년 9월 20일 전통사찰로 등록되었다. 현재의 극락전 건물은 최근 중창 공사로 새롭게 지은 것이다.



백운사

조선시대 것으로 보이는 정연당(淨蓮堂) 부도가 절의 아래 100m 지점에 있다. 과거에는 지역의 학도(學徒)들이 들어가서 면학하기도 하였다. 불상1기, 탕화(幀畵) 7점, 석물 1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조계종 사찰이다.

2) 백운사 정연당 부도(白雲寺淨蓮堂浮屠)

- 지정번호 :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374호(2000년 9월 20일)
- 위 치 :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산 35번지

백운사에서 남쪽 산등성이를 타고 100m 정도 아래쪽에 10여 평의 대지 위에 자리잡고 있다.

이 부도는 조선시대 후기 유행한 석종형(石鐘型) 부도이다. 부도란 스님들의 유골이나 사리를 모신 불교 조형물로 승탑(僧塔)이라고도 한다. 이 백운사의 부도는 정면에 정연당(淨蓮堂)이라는 명문(銘文)이 있어 그 주인공이 백운사에서 수도(修道)하다가 입적한 정연당 스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약 30cm 높이의 지대석을 포함하여 전체 높이가 약 170cm 정도로 비교적 규모가 크다.



정연당부도

그리고 석종(石鐘)형의 양식으로 표현된 점과, 탑신석(몸체)에 주인공의 이름을 새겨 넣은

집에서 조선후기 부도의 양식을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상륜부의 보주(寶珠)가 이중으로 된 특이성과 전면을 납작하게 만든 형식, 비교적 균형이 잡힌 형태가 충남지역에서 그리 많지 않은 예로 보이는 특징이다.

3. 단원사 귀부와 이수

1) 단원사(團圓寺)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산13번지

단원사는 범일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산 13번지에 위치하는 사찰로 1937년에 중창했다. 처음에는 단원사라고 하다가 뒤에 영수암으로 고쳤으며, 오늘날은 다시 단원사라고 부른다. 고려말~조선시대는 구룡사(九龍寺)라는 큰 절이 있어 번창하였으나, 폐사된 후 일제시대에 사역 중앙에 웅천-부여간 도로를 신설하자 김원제(金元濟)가 구룡사 아래에 절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단원사이다.

2) 단원사 귀부와 이수

- 지정번호 : 충청남도지정유형문화재 제32호(1979년 7월 3일)
- 위 치 :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산13번지

‘보령 수부리 귀부와 이수(保寧水芙里龜趺螭首)’라는 이름으로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32호로 지정되었다.

탑비의 귀부는 4각의 반석(盤石) 위에 거북을 조성하였는데, 4개의 발이 귀통이에 배치되었고, 다섯 개의 발가락이 힘차게 드러났으며, 등에는 2중의 6각형을 연속으로 배열하여 귀갑을 이루었으며, 등의 상단에는 비신을 끼우기 위한 사각의 구멍을 뚫었다.

치켜든 머리는 용의 형태를 보이며 모양이 기괴하다. 이수는 장방형 육면체로 여의주를 두고 구룡(九龍)이 상쟁하는 조각이며 정면 중앙에는 田字형의 비액(碑額)이 있으나 글씨는 없다. 하단에는 비신을 끼우기 위한 사각의 구멍이 있다. 귀부는 장방형으로 가로 150cm, 높이 65cm로서 사면이 반룡(蟠龍)과 운문(雲文)으로 깎아 있다. 그리고 폭은 145cm, 측면 165cm의 화강암으로 귀갑문(龜甲文)이 조각되어있다. 이수는 높이 63cm, 측면 72cm, 폭 145cm로 화강암이다.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이 귀부와 이수는 근처의 폐사지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나,



단원사 귀부와 이수



단원사부도 파재

과거 사역(寺域)이 넓었던 관계로 이렇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의 탑비 인지는 모르나 뛰어난 고승의 탑비로 보인다. 최근에 복원한다는 의도로 내용이 없는 비신을 만들어 놓았다.

이 이수와 귀부의 오른쪽에는 이 탑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도 파재가 있다. 탑비의 비신부와 부도의 탑신부가 결실되었기 때문에 탑호(塔號)를 알 수가 없다. 현재의 상태는 화강암으로 된 기단부와 옥개석만이 남아 있을 뿐인데 전체적으로 나말 여초에 유행하던 8각원당형의 부도임을 알 수 있고, 또 성주사지의 백월보광탑과 유사한 양식임을 알 수 있다.

기단석은 8각의 반석(盤石)으로 되어 있는데, 측면 각 면에는 안상(眼象)을 각 한 개씩 배치하고, 상면에는 유려(流麗)한 총 16엽의 복련문(伏蓮紋)을 둘러 새겼고, 그 위에는 대축(臺軸)을 받기 위한 받침을 조출(造出)하였다. 팔각형 한 변의 길이는 55cm

이고 반석의 높이는 35cm이며 직경은 145cm이다.

옥개석은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옥개석의 하단에는 각형-호형-각형의 3단의 받침이 모각되어 있고 낙수면이 심한 반전을 보이는 호형의 형태이며, 처마 끝에는 귀꽃의 흔적이 보이나 현재는 모두 파괴된 상태이다. 옥개석의 상단 정부(頂部)에는 상륜부를 받기 위한 8엽의 복련문을 돌렸고 그 안으로는 2단의 팔각형 받침을 모각하였고 가운데는 찰주공이 직경 7.5cm, 깊이 8cm로 만들어졌다. 이 팔각 옥개석의 한 변 길이는 58cm이고 높이는 60cm이며 직경은 155cm이다. 특히 옥개석의 낙수면에 기와꼴 문양이 없는 것은 성주사지의 백월보광탑, 일명부도탑 파재와 아주 유사하다. 그러나 부도의 크기는 파재로 보아 성주사지의 백월보광탑보다 컸을 것이다.

이 부도 파재와 이수 귀부는 고려시대의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나말여초

성주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불교 발달을 주도한 큰 사찰이 단원사(그 당시의 절 이름은 알 수 없고, 단원사 이전에는 구룡사라고 했다고 전해 음)였음을 알 수 있다.

3) 단원사 석불입상

단원사 대웅전의 우측에 있으며, 폐사지에서 옮겨 온 것이라 한다. 석불의 육계는 넓은 반면 높지 않으며, 보발(寶髮)은 나발(螺髮)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눈은 거의 감은 듯 가늘게 표현하였으며, 코는 오뎅하게 조각해 놓았다. 양쪽 귀는 어깨까지 길게 조각해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불상의 인상은 일그러진 형태이다. 법의(法衣)는 양 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식으로 가슴 중앙부에서 V자형을 이루고 있다. 양손은 왼손은 접어 왼쪽 가슴 부위에 올려놓고 있으며, 오른손은 오른쪽 다리에 밀착시키고 있다.



단원사석불입상

4. 중대암과 부도

1) 중대암(中臺庵)

- 지정번호 : 전통사찰 제29호(1988년 6월 18일)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산81-1의 아미산 중턱 해발 396m 지점에 위치한다. 중대암(中臺庵)은 동국여지승람, 남포읍지, 여지도서 등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선말기에 와서야 중대암으로 불린 것으로 보인다.

이 중대암은 통일 신라 시대인 9C에 도선 국사가 창건하였고, 산 이름을 아미산이라고 하였다고 전해진다. 현재는 요사채와 최근



중대암

중창한 법당이 있고, 계속 법당 중창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1988년 6월 18일 전통 사찰로 등록되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6교구 말사이다. 한말~일제 시대에는 선비들이 세상 만사를 잊고 공부하기 위해 많이 찾았던 장소이기도 하다.

2) 중대암 부도

(1) 안곡당(安谷堂) 부도

전체 높이는 115cm이다. 지대석·하대석·탑신석(몸체)·옥개석의 구조로 되어있다. 지대석은 115cm×110cm 크기의 방형으로 되었는데 판석을 납작하게 다듬었다. 하대석은 한 변 20cm×높이 12cm 직경 60cm의 평면 팔각형으로 되었으며, 측면에는 어떤 문양도 없다. 탑신석(몸체)은 높이 67cm, 몸통 직경 60cm의 배흘림 원통형으로 되었으며 이 곳의 다른 부도에 비하면 몸체가 균형있게 가공되었다.

앞면에는 부도의 주인공인 ‘安谷堂塔’이라는 명문(銘文)이 있다. 옥개석은 63cm×63cm×35cm의 정사각형의 사각지붕 형식(석탑의 옥개석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낙수면은 경사가 완만하고 낙수면 우동 처마가 반전이 심하여 전체적으로 납작하게 보인다. 그리고 이 옥개석의 하면에는 2단의 각형 받침을 모각하였고, 상면에는 정사각형의 킴돌을 조각하고 그 위에 둥근 보주(상륜부)를 조각하였다. 그리하여 옥개석과 상륜부가 일체형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둔중하고 투박한 느낌을 준다.



중대암부도, 좌로부터 안곡당부도, 대암당부도, 일명부도

이 안곡당 부도는 하대석만 평면 팔각형으로 전통적 팔각원당형의 양식을 따랐을 뿐 탑신석은 조선시대 유행한 원통형 배흘림 석종형이고, 특히 옥개석은 8각형의 지붕이 아닌 정사각형으로 간략하게 변화되었고 낙수면 등의 반전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 8각지붕 양식의 옥개석을 단순화 하여 4각형 석탑의 옥개석을 모방한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이며, 그 위에는 옥개석과 일체형으로 된 보주(상륜부)를 조각하고 있는 것도 단순화 간략화되어 가는 부도양식의 특징이다. 이러한 제작 수법으로 볼 때

조선시대 후기의 유행을 따른 부도임을 알 수 있다.

전해 내려오는 안곡당의 제문에 안곡당의 열반일이 가정(嘉靖) 연간(1522~1566) 1월 22일이라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부도는 임진왜란 직전 16세기 후반 조선 중·후기에 건립된 것이다.

(2) 대암당(大庵堂) 부도

전체 높이는 145cm이다. 지대석 위에 탑신석(몸체)과 상륜부가 일체형인 석종형(石鐘型)을 올려놓은 석종형 부도이다. 지대석은 190cm×160cm 크기의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의 판석이다. 탑신석(몸체)은 직경 65cm, 높이 145cm의 배흘림 원통형이고, 상단에 둥근 보주를 조각하였다. 몸체는 완전히 둥글게 깎지 못하였다. 앞면에 부도의 주인공인 ‘大庵堂大和尚之塔’이라는 명문(銘文)이 있다. 제작에 있어서 비슷한 양식인 성주 백운사의 정연당(淨蓮堂)부도에 미치지 못하고 이곳 3기의 부도 중 가장 공력(功力)과 재력(財力)이 덜 투입된 작품이다. 지대석 또한 자연석의 판석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자연과의 조화가 강조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시대유행이 반영된 예술적 부도탑이 아닌, 지방의 아마추어적 솜씨임을 보여준다.

이 대암당 부도는 석종형의 전형적 양식과 탑신석에 주인공을 각자하는 양식, 돌의 풍화상태 등을 감안하면 조선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당을 헐어낸 후에 나타난 상량문에 의하면 대암당이 도광(道光) 15년(1835년)에 법당을 중창하였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 부도는 19세기 초인 조선말기에 건립된 것이다.

(3) 일명(逸名) 부도

전체 높이는 140cm이다. 지대석, 연화대석, 탑신석(몸체), 옥개석, 상륜부가 별개의 석재로 구성되었다.

지대석은 한 변 15cm×높이 7cm, 직경 33cm의 8각형 모양이며, 측면에는 간단한 문양(眼象으로 추정)이 새겨져 있다. 보통 지대석은 탑신석보다 큰 것이 일반적인데 이 부도는 지대석이 작아서 약간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 연화대석(蓮花臺石)은 직경 53cm, 높이 17cm의 원형이며 총 14葉의 투박한 양련(仰蓮) 연화문(蓮花文)을 돌렸다. 그리고 상면에는 탑신석을 받기 위한 괴임을 모각하였다. 탑신석은 높이 58cm, 직경 40cm의 배흘림 원통형이며 상면에는 괴임을 모각하여 옥개석을 받고 있다. 몸체는 완전히 둥글게 깎지 못하였다. 이 탑신석에는 이 곳 다른 부도와는 달리 부도 주인공의 명문이 없어

누구의 부도인지 알 수 없다. 옥개석은 한 변 47cm, 높이 33cm의 정방형이며 사각지붕 형식(석탑 옥개석 형식)이다. 낙수면의 경사가 상당히 급하며, 낙수면 4면에는 각각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돌을새김의 문양이 있다. 옥개석의 상면에는 12葉의 연화문을 두른 상륜부 꺾돌이 조각되었고, 그 중앙에 구멍을 뚫어 석탑 상륜부 수연(水煙) 형식의 상륜부(보주)가 있고, 하면(下面) 돌기를 끼워 올려놓았다. 보주의 높이는 30cm이다. 그런데 사각형의 옥개석은 절반정도 파손된 상태이고, 옥개석의 직경이 탑신 석과 거의 비슷하고 옥개석 낙수면 경사가 심하여 부도가 전체적으로 왜소한 느낌을 주나, 이 곳 3기의 부도 중 가장 세련되게 제작되었다.

이 부도는 크기는 작지만 구성요소가 지대석, 연화대석, 탑신석, 옥개석, 상륜부로 되어 있고 각각 별개의 석재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팔각형의 지대석, 14엽의 양련(仰蓮)이 조각된 연화대석, 상면에 12엽의 연화문이 조각된 옥개석이 특징이다. 조선 후기에는 거의 볼 수 없는 연화문과 각 구성요소가 간략화되지 않고 별석(別石)으로 된 점을 감안하면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상대암(上臺庵)

상대암은 중대암 위쪽의 아미산 정상부 해발 525m 지점에 있다. 상대암의 내력은 다음과 같다.

주산면 황율리의 유학자였던 풍천임씨 노은(老隱) 임학준(任學準, 1850~1930)은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일본에 외교국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망한 것을 통분하여 선비 운봉(雲峰) 이관영(李觀榮)과 함께 아미산 중대암으로 숨어들었다. 여기서 이관영은 삭발을 하고 승려가 되었다.



상 대 암

이들이 중대암으로 들어간 이유는 임학준이 부친 묘를 1895년에 아미산 중대암 후봉(後峰)에 이장(移葬)하고, 그 묘소 아래 상대에 재실(齋室)을 건축하여 조석으로 시묘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상대암의 시초가 되었다.

중대암과 상대암을 오가며 지내던 임학준은 1919년에 고종황제의 서거 소식을 듣고는 고종의 어상(御像)과 부친의 영정을 그려 상대암 벽에 걸어놓고 바라보며 삭망에 통곡하고 술일을 먹으며 지냈다. 이 중대와 상대에 임학준은 여러 서적을 갖추고 후생의

교육장으로 삼기도 하였다.

그의 사후에 지역의 선비들이 숭고한 임학준의 충효의 자리를 보존키 위하여 1934년 상대암에 상대사(上臺祠) 건립을 추진하여, 고종황제와 임학준 그리고 그 부친 임태하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임학준의 사당으로 기능하던 상대사는 그 후 1960년대에 임학준 후손의 관심 소홀과 함께, 현 중대암 소속의 불교 암자가 되어 상대암으로 되었으니, 사당에서 불교 암자로 성격이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상대암에는 영천(靈泉)이라는 약수터가 있으며, 송암(松巖) 조익순(趙翊淳)이 그 내력을 적은 비석이 있다.

5. 금강암과 석불 및 비편

1) 금강암(金剛庵)

• 지정 : 전통사찰 제74호(1992년 12월 10일)

금강암은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산59번지 양각산 중턱에 있다.

조선 태종의 후궁 권씨를 위하여 지은 원찰로서 당시 조성한 석불좌상과 비편(碑片)이 있어 금강암의 유서 깊은 역사를 말해 주고 있다. 1992년 전통 사찰로 등록되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제 6교구 말사이다.



금강암

16세기의 동국여지승람에는 양각산에

옥계사(玉溪寺)가 있다고 하였고, 조선 후기 남포읍지와 여지도서 등에는 양각산에 옥계사가 있는데, 금강암(金剛庵)이라고 한다는 것으로 보아 금강암이 처음에는 옥계사로 불리다가 어느 시기인가 금강암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2) 석불 및 비편

• 지정 ;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58호(2000년 9월 20일)

금강암은 조선3대 태종의 후비(后妃)였던 권씨의 소원을 빌기 위한 원당(願堂)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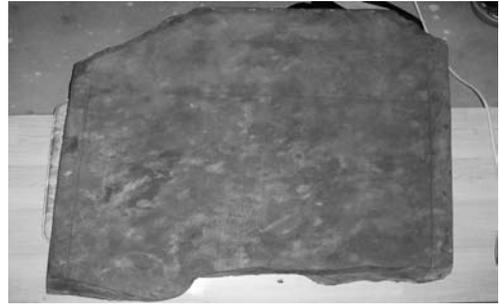


금강암석불

무학대사의 제자 영암(瑛岳) 스님이 1412년(태종 12)에 중건하였는데, 건립을 주관한 사람은 후비권씨의 아버지인 권홍(權弘)과 딸인 옹주 이씨였다. 이때 조성된 석불은 2단의 좌대 위에 양손을 가지런히 하여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 모습으로, 약사불 또는 미륵불로 추정된다. 재료는 사암(砂岩)이다. 석불의 전체 높이는 180cm이고, 연꽃무늬를 새긴 원형의 좌대와 석불 몸체 그리고 머리의 관(冠), 관 위의 꼭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금강암과 석불 조성 사실을 기록한 비석은 현재 절반 정도 파손된 상태의 비편(碑片)으로 남아있는데, 청석에 16줄 241자만 남아 있다. 이 비편은 1412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높이 84cm, 폭 74cm, 두께 4cm이며 하단부가 깨져 없어졌다. 전면에 “玲岩比丘創金剛庵碑銘”

이라 각서되어 있고, 금강암 중건 사실과 관련된 내용의 241자가 각서되어 있다. 비편의 기록은 조선초기 왕실의 불교신앙 모습과 금강암과 석불의 조성 시기를 알려주는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최근 극락전 해체 과정에서 나온 영조 때 쓰인 상량문에도 비편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금강암비편

6. 왕대사 마애불(王臺寺磨崖佛)

• 지정 :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317호 (1990년 9월 27일)

보령시 내항동 산97의 왕대산 기슭에 있는 왕대사에 있다. 왕대사 서쪽 화강암 암벽에 음각으로 새긴 미륵불 입상(立像)으로 제작연대는 미상이다. 심하게 풍화되어 잘 알아보기 어려우나, 머리, 어깨, 법의(法衣)의 왼쪽 부분이 남아 있다. 불상은 하나이며, 머리 주변에 2줄의



왕대사마애불

두광(頭光)을 나타내는 선이 뚜렷하며, 몸통 부분에도 신광(身光)을 나타내었다.

남아 있는 부분의 높이는 386cm, 폭은 160cm이며 선의 깊이는 1cm 내외이다.

전설에 의하면 신라 경순왕이 왕위를 버리고 이 곳에 와서 거처하면서 미륵불을 만들었다고도 하며, 바위가 떨어져 암벽이 될 때 자연적으로 미륵불이 되었다고도 한다. 초하루, 칠석, 백중에 왕대사에서 제를 올린다.

7. 기타 석탑

1) 보령리 5층석탑

- 지정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39호 (1984년 5월 17일)
- 위치 : 충남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226(보령중학교내)

이 석탑은 원래 주포면 보령리의 진당산 서쪽 기슭의 폐사지에서, 파괴되어 매몰되어 있었으나 1960년도에 발굴하여 보령중학교 교정에 이전·복원한 석탑이다. 화강암으로 되었고 전체 높이는 350cm이며 건립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탑은 체감율이 거의 없어 둔중한 느낌을 주고, 형식이 간략한 점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양식으로 보인다. .

거칠게 다듬은 기단부에는 우주나 탕주의 모각(模刻)은 없고, 받침돌만 모각이 있으며, 탑신석에는 우주와 3단의 받침돌 모각이 있다. 맨 꼭대기 5층의 탑신석과 옥개석이 없어 현재는 4층만 남아 있다.

두꺼운 장대판석(長大板石) 6장을 짜 맞춘 지대석 위에 4개의 장대석으로 만든 하층 기단부가 있고, 그 위에 상층기단 면석(面石)이 놓여 있는데 4개의 넓은 판석을 세워서 구성하였다.

그러나 거칠게 다듬은 흔적만 보일 뿐 우주나 탕주의 모각이나 기타 문양은 찾아볼 수가 없다. 상층기단의 갑석은 1매의 넓은 판석



보령리5층석탑

으로 구성하였고, 그 상면에는 3단의 호형 받침을 모각하여 1층 탑신석을 받고 있다. 원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안내기에 의하면 원래의 기단부와는 다르다고 한다.

탑신부에 있어서의 탑신석과 옥개석은 별석(別石)으로 되어 있고 탑신석의 길이나 폭의 체감이 거의 없어 경쾌한 상승감이나 균형을 엿볼 수 없고 둔중한 느낌을 받게 한다. 탑신석에는 좌우에 희미한 우주의 모각이 보이며 옥개석의 하단에는 3단의 받침이 모각되어 있으며, 상단에도 1단의 받침 모각이 있어 상층 탑신석을 받고 있다. 옥개석의 처마는 성주사지 석탑과는 달리 하단은 직선이고 상단은 곡선을 이루고 양끝이 두꺼워 전체적으로 곡선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둔중한 느낌이 들게 한다. 원래 5층탑이었을 것 같은데 5층 탑신석과 옥개석 그리고 상륜부가 결실되었다.

고려시대 석탑의 경우 통일신라와는 달리 지방민의 발원에 의한 경우가 많아 전국적 석탑 분포를 이루고, 다양한 양식의 출현, 처마선의 곡선화, 전체적 모습이 둔중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보령리 5층석탑도 기단부의 생략화, 전체적으로 둔중한 윤곽을 보이는 것 등이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2) 남곡동 석탑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25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 원위치 : 충남 보령시 남곡동 탑동마을

현재 이 탑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데, 재료는 화강암으로 거칠고 투박하게 다듬어 만들어졌으며 높이는 245cm이다. 지대석은 결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층 기단인지 2층 기단인지는 알 수가 없다. 현재 기단부의 면석은 두꺼운 4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었으며 탕주나 우주의 모각은 없다. 면석 위의 기단 갑석은 1매의 넓은 판석이고, 그 상면에 1층 탑신석을 받기 위한 받침이 약간 모각 되었다.

탑신부의 옥개석(屋蓋石)과 탑신석(塔身石)은 별석(別石)으로 되어 있으나 탑신석은 1층만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없는 상태이며, 탑신석에는 우주나 문양 등이 전혀 모각 되지 않았다. 1, 2, 3층 옥개석은 처마의 두께가 두껍고 처마선의 반전이 심하고 우동의 경사는 완만하며, 낙수면의 경사는 급하다. 그리고 옥개석의 하단에는 3단의 층급 받침이 아주 형식적으로 모각되어 있으나 상단에는 받침 모각이 없다. 3층 옥개석 한쪽 모서리가 파손되어 있다.

상륜부는 결실되었으나 복발과 비슷한 부재가 있는데 원래의 것이 아닌 듯하며, 3층

옥개석 상단에 노반을 놓았던 흙이 있다고 안내기에는 기록되어 있다.

이 탑은 옥개석의 형식이나 기단부의 구성 등을 볼 때, 지방세력 내지는 지방의 현지 주민들이 발원하여 건립되는 고려 석탑의 특징인, 일률적 규범보다는 다양한 특징의 형식, 옥개석 낙수면의 급경사, 처마의 곡선화, 단층기단, 상층기단 갑석의 부연이 형식화 혹은 생략 등, 전체적으로 둔중해지는 고려석탑 특유의 형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 탑의 발견 경위를 자세히 기록해 둔다.

대천 해수욕장 진입로인 대해로 중간 지점에 남곡동(藍谷洞) 탑동(塔洞)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의 탑과 관련된 내용은 1973년 이구열이 지은 『韓國文化財秘話』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그 전문(全文)을 적어 본다.

日政 초기인 1910년대 중엽에 인천부의회 의원으로 고노라는 일본인이 있었다. 그는 석탑을 탐내어 충남 보령에서 5층석탑 하나를 지능적 수법으로 불법 반출해다가 인천의 자기집 마당에 놓고 있었다. 그는 보령군 대천면 남곡리 堂洞(塔洞의 오기로 보임)의 이름 모를 폐사지에서 있던 5층석탑을 반출해 오는 방법으로 한 사람의 조선인을 돈으로 매수하고, 그가 절터의 땅임자에게 가서 석탑을 사는 간접적 간계를 썼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매수자로부터 석탑을 말쑥없이 다시 사는 형식으로 무난히 인천까지 실어 왔다. 그러나 총독부의 고적 조사과가 그 사실을 알고 보령군수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자 고노의 완벽했던 석탑 반출음모는 즉각 탄로나고 말았다.

보령군수의 현지 진상보고와 인천의 이전지 확인을 토대로 총독부 고적 조사과가 작성한 조서가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석탑을 판 사람이 그것은 예전부터 자기 집의 소유물이었다고 주장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 조선의 풍속은 개인 집에 탑을 세우는 일이란 없었기 때문임. 설사 집을 지은 자리가 예전의 절터여서 석탑이나 석불 같은 것이 있었다 해도 조선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일은 절대 없었다. 한테 그것을 매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근래에 생긴 폐습이며, 그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팔아먹는다는 점을 익히 알면서도 감히 그런 짓을 하는 자들임. 이번 사건만 해도 고노가 직접 그것을 사지 않고, 표면상으로는 다른 조선인에게 일단 석탑을 팔게 한 후에 다시 자기 소유로 만들었는데 매각인에게 그럴 권리가 없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음. 따라서 이번 사건의 석탑은 그들의 매매를 취소시켜야 하며, 인천의 고노 집에 조사관을 보내 그럴 필요가 있다면 서울 박물관으로 가져오는 것이 좋을 듯함. 1916년」

이 조사서의 주목할 만한 마지막 대목인 「불법적인 매매의 취소와 경우에 따라 인천에서의 석탑 압수」 건의가 총독부에 의해 실행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불법적인 일본인 매수자 고노는 인천의 부의회 의원쯤 되던 신분이어서 무슨 수를 썼던 것 같다. 비운의 5층석탑은 대천의 원위치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서울의 박물관으로 오지도 않았다. 인천항에서 재빨리 일본 본토로 빼돌렸는지, 그 후에 인천에서 그 석탑을 조사했거나 확인한 전문가가 없다.

반면 해방 후 과거에 고노가 살았던 인천 송학동의 별장에서 많이 깨지고 형태나 연대도 신통치 않은 3층석탑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것도 충청도 어디선가 가져온 것이라는 막연한 증언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대천에서 반출했던 문제의 5층석탑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3층과 5층이라는 차이가 있다. 해방 후까지 남아 있던 신통치 않은 3층 석탑은 현재 인천 공보관 앞으로 옮겨져 있다.

앞의 총독부 조사서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첨가되어 있다. 인천의 고노가 충남 보령군 대천면의 폐사지에서 5층석탑을 반출하던 무렵에 같은 보령군 미산면 성주리에 위치하는 성주사터의 석탑에도 반출 음모자의 손길이 뻗치고 있었다는 내막이다. 그것은 인천으로 불법 반출된 석탑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잡힌 또 다른 음모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음모는 진행 중에 포착 제지되었고, 성주사 탑들은 위기일발에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원래 이 마을에는 예로부터 탑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일본인이 가져가서 지금은 없다고 알려져 왔다. 즉 1916년 인천부의회 의원인 일본인 고노가 이 마을의 5층석탑을 불법적으로 매수하여 인천으로 가져갔고, 총독부의 조사를 받았으며, 해방 후 인천 송학동 고노의 집 정원에서 깨진 3층석탑 1기가 발견되었다는 기록이다.

그러던 중 1998년 12월 대천여고의 한 학생(3년 고은혜)이 인천 자유공원에서 남곡동 석탑을 보았다는 자기 아버지의 말을 황의호 선생님(당시 한내여중 교사. 보령문화연구회원)에게 제보하여 왔다. 그리하여 당시 대천여고 역사교사였던 황의천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인천 자유공원을 찾았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탑은 없었다. 그렇지만 어딘가는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인천 시내의 모든 공원과 구청의 정원 등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인천시립박물관의 잔디밭에서 문제의 남곡동 석탑을 어렵게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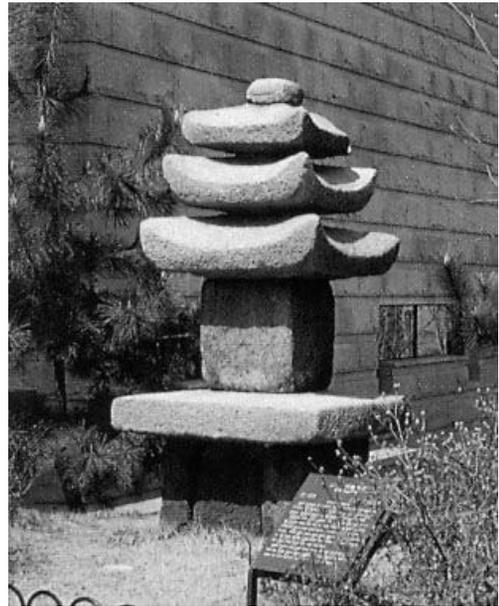
그런데 이 탑은 1층의 탑신석만 있고 나머지 2, 3층은 탑신석이 없이 옥개석만 포개져 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 석탑의 전형은 탑신석과 옥개석이 갖추어진 것이 일반적인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이 탑도 원래는 탑신석을 갖춘 석탑이었는데, 『문화재비화』의 내용대로 일본인 고노가 총독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재를 피하려고 일부 탑신석을 파괴하고 현재와 같은 탑신석이 없는 3층 석탑으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고노가 일본으로 돌아간 뒤 누군가에 의해서 파괴 결실되어 옥개석만 수습된 것으로 보인다.

또는 문화재비화의 내용대로 옥개석과 탑신석을 갖춘 5층 석탑이었는데 탑신석과 일부 옥개석을 파손하고 탑신석이 없는 전혀 다른 형태의 3층석탑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현재 남곡동에는 이 탑을 직접 본 사람은 생존하지 않으며, 마을古老들의 증언에 의하면 3층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당시 6명의 마을 인부들이 남곡동 해안까지 운반해 주었고 이 과정에서 깨뜨려먹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3층 옥개석 부분이 깨진 상태와 일치하며, 석탑의 크기로 보아 단거리 운반이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으로 보인다.

2001년도에는 보령에서 반환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남곡동석탑

3) 보령 삼계리 석탑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6-1 부여 박물관
- 원위치 : 충남 보령시 미산면 삼계리 379 (절골)

화강암으로 된 이 탑의 현재 높이는 지대석, 2중기단, 1층 옥개석, 그리고 2층 탑신석을 포함하여 210cm이다. 길이 145cm의 두꺼운 장대석 4개로 짜 맞춘 지대석 위에, 4매의 장대석으로 짜 맞춘 하층 기단부 면석이 만들어졌는데, 탕주 1개, 우주 2개가 모각되어 있다. 하층 기단 갑석은 넓은 1장의 판석으로 되었고 상면에 두껍게 된 호형과 얇게 된 각형의 2단 받침을 모각하였고 그 위에 1개의 돌로 상층 기단을 구성하였는데, 면석에는 탕주 1개 우주 2개를 약간 가늘게 모각 하였다. 이 면석 위의 갑석은 1장의 넓은 판석으로 구성하여 그 상면에 호형과 각형 2단의 받침을 모각하고 1층 탑신석을 받고 있다.

탑신부는 옥개석과 탑신석이 별석(別石)으로 되어 있고 2층 탑신석까지만 남아 있다. 2층 옥개석 이상과 상륜부는 모두 결실되었다. 탑신석에는 약간 가는 우주가 모각되어 있으며, 특히 1층 탑신석 정면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

옥개석 하단에는 3단의 받침 상단에는 1단의 받침이 모각되어 있고 처마선은 거의 직선에 가깝고 양끝에서 약간 반전하였으며 낙수면이 약간의 호형을 이루고 있다.

2층 옥개석 이상이 결실되었으나 전체적 규모로 보아 3층 석탑일 가능성이 크고, 안정감이 있고 높은 2층기단을 갖추었고 세련된 옥개석의 모습 등을 보아 통일신라



삼계리석탑

계통의 탑으로써 통일신라 말이나 고려 초기에 제작이 추정되는 석탑이다.

1층 옥개석, 상층기단 갑석, 하층기단 갑석, 지대석이 한쪽 모서리가 위에서 아래로 같은 방향으로 파손된 상태이다.

이 석탑은 원래 부여 박물관에 성주사터 석탑으로 9~10C의 것이라는 안내기와 함께 전시되고 있었는데 그 원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하여 발견 경위를 자세히 기록하고자 한다.

황의천(당시 대천여고 교사)이 1999년 부여 박물관에 가서 이 석탑을 보고 성주사지의 석탑이라는 안내기에 많은 의심을 가진 것은 현재 성주사지 4기의 석탑도 절의 구조상의 문점이 상당히 많은데 또 하나의 석탑이 있었다는 것(혹시 부도탑 이라면 모를까)과, 그 동안 파괴된 이수나 귀부, 비편 등이 옮겨졌다는 보고는 있었으나 탑이 옮겨졌다는 보고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부여 박물관 학예실에 그 수습과정을 문의하니 1980년 5월에 모씨가 기증한 것이라는 것을 문서를 찾아 확인해 주었다. 그런데 탑의 원위치는 자기들도 잘 모르고 미산 어디선가 가져온 것이라는 것만 알고, 성주사지 석탑이라고 안내기를 만든 것은 당시의 근무자들이 ‘미산’이라는 지명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든 것 같다고 하였다(당시 성주사지의 행정구역은 미산면 성주리였음).

그 후 황의천은 현재 미산면 어느 마을에 서울에 사는 어느 개인이 탑을 만들어다 놓았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다. 면사무소에 확인하여 보니 미산면 삼계리라고 하였다.

삼계리의 지명 조사자료를 보고 절골의 조병제 씨(당시 75세, 삼계리 378번지)에게 전화로 과거에 이 마을에 탑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니 맞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1999년 8월 17일 삼계리 절골의 조병제씨를 방문하여 탑의 원위치(삼계리 379번지)를 답사하고, 사진을 조씨에게 대조하여 보니, 탑의 위 부분이 없고 깨진 모습이며, 약간 까무잡잡한 모습을 보고 20여 년 전에 없어진 탑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 곳에서 간간이 고려 조선시대의 어골문 와편을 수습할 수 있었다.

조병제씨와 다른 고로(古老)들이 들려준 탑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20여 년 전까지 삼계리 379번지(현재는 폐가된 상태이고 그 당시의 李鍾國, 李馨淳이라는 문패만 있음) 앞마당에 탑이 있었는데, 이 집의 할머니가 탑을 골동품상에게 팔았고(15만원에 팔았다고 함) 현재는 모든 가족이 서울과 대천 등으로 이사하였다. 탑을 판 후 할머니네가 이 땅을 사기전의 땅 주인(조씨라고 함)이 탑은 판 것이 아는데 탑을 마음대로 팔았다고 말썽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탑을 판 후 할머니네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자주 생겨서 서울에서 석공업을 하는 할머니의 한 아들이 원래 위치 바로 옆에 탑을 만들어다가 새로 세웠고, 가끔씩 할머니는 서울에서 내려와 이 탑을 위하고 간다고 한다.

이 탑은 팔 당시 흥정 과정에서 탑의 위 부분이 없고 뒷부분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가격을 둘러싸고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탑이 깨진 원인은 전해오는 말로는 벼락을 맞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같은 방향으로 깨진 것을 보니 사실인 것 같았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여박물관 야외에 전시된 이 석탑은 ‘정주사지 석탑’에서 ‘보령 삼계리 석탑’으로 안내기를 바꾸어 전시하고 있다.

4) 기타 석탑 파재 및 불상

(1) 오천면 교성리의 석탑 옥개석

- 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834번지

이 옥개석은 교성리 834번지의 집주인 곽팔문 씨가 신당을 짓고, 옥개석 3개를 쌓은, 위에 옛 절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석불(높이 80cm)을 올려놓고 민속적 숭배물로 삼았다. 이 옥개석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3개가 남아 있는데 옥개석의 사이에 높이 20cm 정도의 파손된 옥신석을 넣었다.

그러나 이 옥신석은 이 석탑에 있었던 원래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맨 아래층의 옥개석은 한 변의 길이가 1m 정도이고, 높이는 30cm 정도이다. 옥개석의 상면에는 약간의 상층 옥신석을 받기 위한 옥개석 받침이 조각되어 있고, 하면에는 층단이 낮게 각형의 3단 옥개석 받침이 조각되었다.

특이한 점은 추녀의 두께가 얇고 낙수면의 반곡(反曲)이 거의 없으며, 경사가 완만하고 넓은 편이다. 그리고 추녀의 면이 안쪽으로 경사졌으며, 우동과 전각의 반전이 크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옥신석에 비하여 옥개석이 넓고 얇은 모양을 보이면서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2층과 3층의 옥개석은 경쾌한 분위기는 많이 약화되었으나 형식은 거의 비슷하다.

이 옥개석은 짐주인인 광팔문 씨가 시멘트 벽돌과 슬레이트 지붕으로 보호각을 지어 놓고 신당으로 만들었는데, 이전에도 기와로 된 보호각이 있었으나 훼손되어 새로 지었다 한다. 주변에 조선시대 청해파문류의 완형(完型)의 수키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조선시대에도 어느 개인이 포교당이나 신당을 조성하지 않았었나 생각된다.



교성리석탑 옥개석

(2) 천북면 천북초등학교 옥개석

이 옥개석은 현재 2개만 남아서 천북초등학교 현관 옆 정원에 있다. 원래는 천북면 사호리 절골의 한 절터에서 수습해서 가져다 놓은 것인데, 지대석은 사호리 절터에 매립되어 있다 한다.

아래층 옥개석의 한 변의 길이는 70cm이고, 높이는 30cm이며, 옥개석의 하면은 3단의 층급 받침이 있고, 상면에는 1단의 층급 받침이 있다. 낙수면의 경사는 급한 편이다.



천북초등학교 옥개석

2층의 옥개석은 한 변이 60cm이고 높이는 30cm이다. 마찬가지로 낙수면의 경사가 급하고, 이 옥개석의 상면에는 찰주공으로 보이는 직경 3cm의 방형 구멍이 있다.

(3) 단원사 석탑 옥개석

단원사 경내에 있는 2개의 옥개석인데 하나는 완전히 파손되어, 하나는 낙수면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 가운데 부분만 남아 있고, 또 하나는 비교적 옥개석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 옥개석은 하단에 4단의 각형 층급받침이 모각되어 있고, 상면에는 1단의 받침이 모각되어 있다. 한 변은 80cm 정도이며 높이는 40cm 정도이다. 낙수면의 경사는 비교적 급한 편이다.



단원사 옥개석

그리고 현재 이 옥개석 위에 올려져 있는 상륜부 부재인 복발(覆鉢)은 보령지역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1/3정도 파손된 상태로 두께가 20cm, 지름이 40cm의 원형석재로 되었으며, 측면에는 2줄의 띠를 새긴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이 복발의 상·하면에는 칼주공으로 보이는 직경 8cm 정도의 원형 구멍이 보인다.

(4) 대창리 미륵불

이 석불은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를 통과하는 장항선 철로변 또는 국도 21호선변 미륵모태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다.

현재 사지로 추정되는 곳은 채석장이 들어서면서 흔적이 없고 이 석불 1구만 있을 뿐이다. 석불은 총 높이 205cm이며, 풍화가 심하여 얼굴 부분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얼굴은 방형의 형태로 세부적인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한 눈은 부녀자들의 미신 풍속으로 움푹 패인 상태이다.

법의를 양쪽 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식(通肩式)을 따르고 있으며, 양손은 배 부분에서 약함(藥盒)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고려말 이후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창리 미륵불